

제 6 회

목포문학상 수상 작품집

목포문학상 운영위원회 역임

• 본상



양진영
보이저1호

정순희
자유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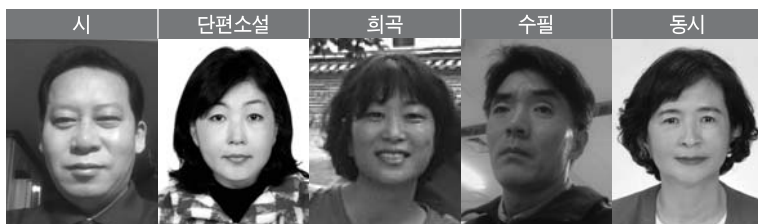
황석연
사과나무꽃

조운수
익어간다는 것

조영일
가을

이병철
송재학 시에 나타난
죽음이미지고찰

• 신인상



나동하
스키드마크

이은미
복원

유수현
살고지고

김동수
너와집

박혜자
세상에서 제일



제6회 목포문학상 수상집을 내며

목포문학상공모회장 박 홍 룰

한 해를 정리하는 시기에 목포 문학의 참 모습을 알리는 '제6회 목포문학상'의 수상작 모음 작품집을 발간하게 된 것을 축하합니다.

그동안 목포문학상의 위상제고와 유능한 작가들이 등단할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신 목포문학상운영위원회 김학래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훌륭한 작품 선정을 위해 공정한 심사를 해주신 심사위원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공모전에 참여해 주신 총512명, 1,848편의 작품을 보내주신 작가 분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수상의 영예를 안은 분들에게는 축하의 박수를 보냅니다.

목포문학상은 매년 공모전을 통하여 한국문학의 기라성 같은 문인들이 극작가 김우진·차범석, 소설가 박화성, 문학평론가 김현의 뒤를 이어 우리나라의 문학을 전인할 역량 있는 작가에게 주어지는 품격 있는 상입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공모전 참여 작가가 늘어나고, 다양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훌륭한 작품들이 많아진 것은 목포문학상이 전국적으로 권위 있는 문학상으로 자리매김 하였다는 유의미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역문화의 발전을 통한 한국문학의 위상을 더 높이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고 예향 목포의 긍지를 드높이며, 한국문단을 이끌어 가는 명성 있는 작가의 배출과 명작을 창출해 내는 기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각종 멀티미디어 매체나 기능성 서적에 밀려 순수문학이 날로 위축되어 가는 시대이지만 작가 여러분의 상상력, 그리고 더 좋은 작품을 위한 끊임없는 열정들이 새로운 가능성과 희망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품고 앞으로도 멋진 창작활동을 펼쳐주기를 기대합니다.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과 작품집 발간에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 12.



contents

제6회 목포문학상 수상집을 내며	2
-------------------	---

| 본상 부문 |

시	양진영 <보이저1호>	9
단편소설	정순희 <자유 시간>	13
희곡	황석연 <사과나무꽃>	39
수필	조윤수 <익어간다는 것>	105
동시	조영일 <가을>	111
문학평론	이병철 <송재학 시에 나타난 죽음이미지고찰>	113

| 신인상 부문 |

시	나동하 <스키드마크>	135
단편소설	이은미 <복원>	139
희곡	유수현 <살고 지고>	163
수필	김동수 <너와 집>	197
동시	박혜자 <세상에서 제일>	205

| 심사평 |

시	210
단편소설	214
희곡	223
수필	229
동시	233
문학평론	238

| 수상소감 |

본상 부문	243
신인상 부문	255



제6회 **목포문학상** 수상 작품집

본상 부문

• 본상

시	단편소설	희곡	수필	동시	문학평론
					

양진영
보이저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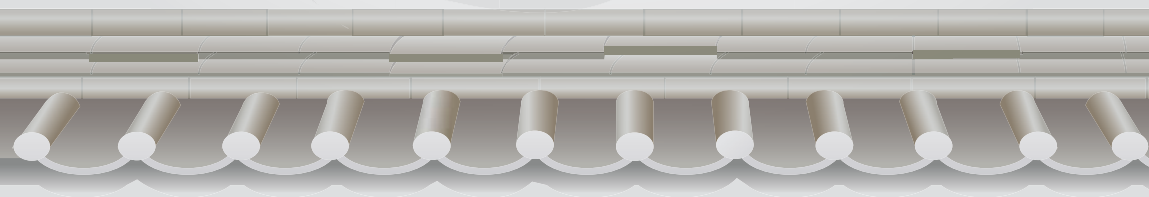
정순희
자유시간

황석연
사과나무꽃

조윤수
익어간다는 것

조영일
가을

이병철
송재학 시에 나타난
죽음이미지고찰



제6회 목포문학상 수상 작품집

• 본상 부문

| 시 부문 |

보이저 1호



양 진 영
(서울시 노원구)

2012년 김만중문학상으로 등단

2013년 양산 단편소설공모전, 암사문학공모전

2014년 무등일보 신춘문예, 천강문학상, 목포문학상(시) 수상

보이저 1호

양진영

수년 전에 멈추었어야 하는 우주 탐사선
최초로 태양계를 벗어나 미지의 은하계 중심부로
항해 중이다
수명이 다하면 사라진다는 생각은 지구인의 편견
인공위성은 오늘도 영혼의 전파를 보내온다
반년째 의식불명으로 누워 있는 할머니
간병인들은 정신이 떠났다고 수군대는데
여전히, 숨결을 고르게 내쉴다
식구를 데우려 제 몸을 살랐던 할머니의 일생은
불 이었다
개밥바라기*가 주홍빛으로 물든 해거름
비너스 여신의 고결한 별 하나가 지구에 떨어져
잉태된 할머니는
금성처럼 스스로를 태워 주위를 밝히며 살아왔다
새벽 어스름 속에서 반짝대는 샛별을 볼 때마다
수억 킬로미터 너머의 혹성을 꿈꾸었을 그녀
할 일을 마친 잔해는
날아온 궤도를 더듬거리며

안식처로 회향하고 있는지
단내 나는 들숨 날숨을 반복 한다
보이지 1호가 임무를 마쳤는데도 왜 여태 비행하는지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구름 담요가 둥그렇게 달을 감싸 안은 이 밤,
할미별은 캄캄한 우주 공간을 유영하고
밤하늘은 떠나온 행성으로 되돌아가는 영혼들로
반짝이는지 모른다

* 저녁에 보이는 금성이다. 아침에는 샛별, 서양에서는 미의 여신, 비너스로 불린다. 표면 온도가 섭씨 500도에 달해 밝게 보인다.

제6회 **목포문학상** 수상 작품집

• 본상 부문

| 단편소설 부문 |

자유시간



정 순 희
(충남 천안시)

백석문화대학 부동산과 졸업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단국대 평생교육원 소설창작반 재학 중

자유시간

정순희

진회색 실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거실에서 소파 뒤, 서랍장 아래, 거실장 사이까지 찾아봐도 없다. 아무래도 실 바구니를 들고 다니다 떨어뜨린 것 같아 안방으로 갔다. 침대 머리 쪽에 조그만 틈이 있다. 머리를 바닥에 대고 침대 아래를 내려다봤다. 세상에. 그 좁은 사이로 많이도 들어갔다. 맨 앞에 진회색 실이 있다. 그 뒤로 솜털 같은 먼지를 쓰고 볼펜, 일회용 밴드, 포스트잇, 판촉용 화장품, 심지어 포크까지 있었다. 그중에 남편 양말도 돌돌 말린 채 굴러가 있다. 하나하나 분리해서 제자리에 놓고 남편 양말은 쓰레기통에 처넣었다. 침대 아래를 걸레로 닦고 일어섰다. 화장대 거울에 일어난 내 모습이 비쳤다. 그 모습을 오래 보고 싶지는 않았다.

나는 시간의 순서대로 움직이는 기계처럼 소파에 앉았다. 창문이 바람의 충격이라도 받았는지 한 번 덜컥거렸다. 봄이 오면 종일 흔들리는 창문이다. 뜨개질 바구니를 무릎 위에 올렸다. 건너편 벽에 붙은 허름하기 짝이 없는 거실장 손잡이가 눈에 들어왔다. 몸체의 철은 군데군데 벗겨져 비슷한 색으로 덧칠했지만, 다시 덧칠한 부분만 도드라졌다. 그 뒤의 벽지는 그림의 형체만 남기고 나머

지는 사라졌다. 거실장 나이가 내 나이만큼은 늙어 보인
다. 구석에 서 있는 옷걸이에 남편의 작업복이 피곤함에
찌들어 있다. 창문을 열고 작업복의 피곤을 툭툭 털어버
리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앞 동에 가려진 거실은 아침만
이라도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지하창고나 다름없다. 겨
울이 지나면 거실만이라도 도배를 해야겠다. 그래서 칙칙
한 분위기를 내 쫓아 버리고 싶다.

지금부터 무늬실과 바탕실을 잘 구별하면서 떼야 한다.
여기서 손가락이 실을 잘못 선택하면, 무늬도 아니고 그
림도 아닌 복잡한 것이 되어 버린다. 털실로 무늬를 만들
때 여러 색의 실로 엮어지는 것은, 복잡한 인간관계와도
같다. 순조롭게 만들어지던 무늬가 엉뚱한 색의 실이 끼
어들어 무늬가 망쳐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검지에
걸었던 진회색 실을 이마 위로 쪽 잡아당겼다. 실이 팽팽
하게 조여질 뿐 끌려오지 않는다. 무슨 일인가 바닥을 내
려다보았다. 발아래에서 한가로이 구르던 실들이, 소파
다리를 감고 저희끼리 엉켜있다. 바탕실과 무늬실이 만나
지 못하도록 두 개의 바구니에 나누어 담았다.

감기가 오려는지 머리가 무겁다. 어제부터 재채기를 할
듯 말 듯 애애 거리다 또 실패한다. 하필이면 생일에 감기
라니. 뜨끈한 미역국이라도 한 그릇 먹으면 무거운 머리
가 가라앉을 것 같았다. 아침에 조금 기대했었다. 그러나

세상을 반쪽밖에 못 보는 남편에게 바라는 건 무리였다. 일어나면 나가기가 바쁘고, 저녁에 들어오면 잠자기 바쁜 식구들에게 나는, 생활에 쓰이는 물건일 뿐이었다. 있어도 없고 없어져도 모르는 물건. 내 나이 사십이 되기 전까지는 그런대로 생일이 존재했었다. 남편이 퇴근길에 방금 생각난 듯 케이크 하나 사 들고 와서, 아이들과 둘러앉아 촛불을 후후 불어 끄는 것으로도 만족하며 지냈다. 그런데 사십이 지나고부터 잇다말다 하더니 삼 년 전부터는 아예 생일이 없는 여자로 만들었다. 남편은 느슨하게 풀어진 끈처럼 언제나 자유로움에 경쾌해져 있었다. 일상의 관습과 제도를 꼭 끼는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해하고 귀찮아했다. 내가 위아래로 줄줄이 형제가 달려있지 않은 것도, 아내로 선택할 때 좋은 조건 중의 하나였다. 어디서 주위들은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혈액형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다. 나와 첫 만남에서 뜬금없이 혈액형부터 물었다. A형이에요, 라는 대답에 아주 좋습니다, 라며 만족한 웃음을 지었다. 정년이 얼마 안 남았으면서도 성공한 친구들이 부럽다는 말을 해 본 적도 없고, 성공하겠다고 있는 돈 없는 돈 그러모아 점포 하나 마련하겠다고 있는 돈, 해 본 적이 없다. 소규모의 가구공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오면, 쌓인 피로가 모두 눈꺼풀 위로 내려앉는 지, 밥만 먹으면 잠속으로 빠져든다. 여덟 시부터 달랑

삼각팬티 하나로 전신을 가리고, 해부 당하는 개구리처럼 자는 남편을 보면서, 과연 이 사람에게 꿈이라는 게 있는 걸까 생각해 본 적도 있다. 어느 때는 남편의 머릿속에 아내라는 존재가 어디쯤 박혀있는지 궁금했다. 그에게 아내라는 존재는 침대 위에서나 위하는 척하고, 진심으로 위하던 마음은 침대 아래에서 먼지나 뒤집어쓰고 있는지 모르겠다.

창문으로 들어온 짧은 겨울 햇볕이, 왼손 검지에서 오른손 대바늘에 연결된 실위에도 공평하게 내려앉았다. 뜨개질은 겨울이 되면 잠자는 곰처럼 집안에 틀어박혀, 온정성을 다하는 나만의 취미다. 올겨울에는 큰딸의 망토를 시작으로 작은딸 목도리, 남편은 스웨터를 떼서 입혔다. 이제는 직장도 다니고 연애도 하느라 제 할 일에 바쁜 두 딸이 싱싱하게 자랄 때, 예쁘게 뜯 털실 옷을 입혀 밖으로 내보는 것이 내 유일한 희망이었다. 이젠 아이들도 남편도 털옷은 별로 반기지 않는다. 그동안 입지도 않는 식구들의 옷을 뜨느라 내 옷은 뒷전이였다. 이번에는 내 조끼를 뜨기로 했다. 조끼의 앞판이 제법 올라갔다. 그때, 탁자 위에서 핸드폰이 울렸다. 남편일까? 한 가닥 희망이 반짝였다.

‘김정숙 씨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덕진동 농업협동조합.’

가족도 모르는 것을 농협이 챙겨준다. 형식적인 것 같지만 내 마음에 작은 감동이 몽실몽실 피어났다. 공과금을 납부하려고 농협에 가면 세 번째 창구의 남자직원이 제일 친절하다. “어서 오세요, 더 필요하신 건 없으세요?, 안녕히 가세요.” 라고 언제나 세 문장의 말만 하지만 어쩐지 그 직원만의 진심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이제 제법 낮이 익어 농협 문을 열고 들어가면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한 번 더 한다. 메시지를 삭제하려다 며칠 더 남겨두기로 했다.

조끼가 제대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대바늘을 들어 커튼처럼 펼쳐보았다. 처음의 고무단을 지난 겹뜨기는 브이모양을 하면서 질서 있게 올라간다. 그런데 중간쯤에 무늬실이 브이자로 두 개나 들어가 있다. 이런 실수를 하다니, 뜨개질을 오래 했으면서도 잠깐 마음이 풀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혹시 또 다른 잘못이 있는지 꼼꼼하게 찾아본다. 아깝지만 진회색 실까지 풀어서 다시 바탕색으로 이어간다. 겹뜨기는 한 땀 한 땀 벽돌을 쌓아가는 담벼락 같기도 하고, 텅없이 쌓여가는 내 나이 같기도 하다. 안뜨기 겹뜨기의 고무단이나, 두 줄 건너뛰며 꼬아가는 파배기가 기교적이라면, 겹뜨기는 뜨개질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순한 기술이다. 나는 기교적인 것 보다는 단순한 것을 좋아한다. 겹뜨기는 노력의 대가를 정직하게 보여준

다. 그리고 무료해 보이기는 해도, 드러낼 것 없는 평범한 내 삶과도 같다. 손가락에 건 실의 탄력을 조절하며 대바늘을 돌리는데 핸드폰이 또 울렸다. 모르는 번호다.

“김정숙 씨 되십니까?”

“그런데요.”

“혹시, 아버님 성함이 김자, 동자, 술자 되시는지요?”

순간, 의심이 고개를 들었다. 낯선 남자가 아버지 이름을 묻다니. 나는 누구냐고 재차 물었다.

“누나, 저 정식이입니다. 동천에 사는.”

동천에 사는 정식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나는 전기에 감전되는 것처럼 모든 생각이 몸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뭘? 정식이?”

“네, 정식이에요. 누나 오랜만이지요.”

정식은 나를 어제 만난 것처럼 누나, 누나 했다.

“그래서.”

“저…… 한 번 뵙고 싶은데요.”

“내가 왜, 너를 만나?”

“드릴 말씀이 있어요.”

“할 말이 뭔데.”

“그러지 마세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정식에게서 생각해보고 연락하겠다고며 전화를 끊었다.

한동안 손안에 쥔 휴대폰을 바라보았다. 꼭, 드릴 말씀이 있다는 말이 하수구에서 흘러가지 못한 찌꺼기처럼, 내 휴대폰에 남아 있었다. 하필이면 오늘 정식이의 전화를 받다니, 나는 다시 우울해졌다. 그런데 왜 이제야 연락을 했지, 꼭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며, 그동안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다. 혹시,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서달라고 할지도 몰라, 급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어쩌지 하는 걱정도 들었다. 그때, 작년에 배화리가 개발지역으로 선정되었다는 소리를 들었던 생각이 났다. 그 소식이 동천에 까지 전해졌고, 그 문제로 나를 찾아왔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돈 빌려달라는 것은 거절하면 되지만, 이건 거절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불길한 예감이 어두운 그림자가 되어 소리 없이 다가오는 것 같다. 그렇다면 이럴 때가 아니다. 일단, 배화리에 가서 개발지역이 어디서 어디까지이며, 현재 상황은 어떤지도 알아봐야겠다. 정오를 향하여 달리는 벽시계를 바라봤다. 벽시계의 숫자와 남은 시간을 계산했다. 오늘 저녁에 정식이를 만나고 그 사이 배화리 고물상에나 다녀와야겠다. 지금부터 서둘러야 저녁 시간과 맞을 것 같아 일어섰다. 안방을 가려고 탁자를 돌아가는데 실타래가 원발에 툭 걸린다. 실타래는 탄력을 받아 건너편 벽에 닿더니 다시 데굴데굴 구르며 내게로 온다. 마치 목적이 있는 것처럼.

정식이는 기다렸다는 듯 전화를 받았다. 이렇게 빨리 전화가 오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는지 고맙다고 두 번이나 반복했다. 지금 성산시에 있다고 해서 미림정이라는 한식당에서 여섯 시에 저녁을 먹기로 했다. 정식이는 오랜만에 만나지만 구태여 꾸밀 필요는 없다. 무릎이 나온 바지만 갈아입고 입은 옷에 검정코트를 걸쳤다. 저녁까지 있어야 하니 단단히 준비하고 나섰다.

배화리는 내가 사는 성산 시에서 시내버스로 삼십 분은 가야 한다. 대학교가 들어선다는 소리만 들었지 구체적인 상황은 잘 모른다. 버스 안은 다섯 명이 타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관심이 없는 듯, 지나가는 풍경을 보느라 창밖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었다. 한낮의 햇볕과 히터의 온기가 모여든 버스 안은 그런대로 훈훈했다. 깍지 낀 소매 끝에 털실 보푸라기가 보풀보풀 뭉쳐져 있다. 나는 손가락으로 보푸라기를 하나씩 뜯어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뜨개질 거리를 꺼냈다. 가방 속에는 감청색의 실이 동그랗게 오므린 채, 실 한쪽을 밖으로 내 보내고 있었다. 그 옆에 무늬로 들어갈 진회색 실은 순서를 기다리는 번호표처럼 얌전히 있다. 감청색이 어느 색깔의 옷에도 잘 어울릴 것 같아 선택했는데, 겨울 색으로는 잘한 것 같다. 가방에서 감청색실만 뽑아 손가락에 걸었다. 혹시 순서도 아닌 진회색 실이 모르는 사이 손가락에 감길까봐

조심한다. 대바늘에 감청색 실을 감고 빠르게 돌린다.

버스는 도시를 벗어나 이미 시골 길로 접어들었다. 잡풀이 말라버린 논둑에 까치 세 마리가 콩지를 세웠다, 내렸다 하며 깡충 거렸다. 그 모습을 보는데 배화리에 다녀온 지가 언제인지 기억이 가물거렸다. 비봉면 소재지에서 떨어진 고물상은 오래전부터 전세로 사는 사람이 있어 별 관심 없이 지내왔다. 그런데 그곳이 어떻게 개발이 된다는 건지 모르겠다. 비봉면이 가까워질수록 아련한 기억 하나가 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드러났다.

비봉면 ‘북경반점’ 구석방에서 네 사람이 앉았다. 정식이 엄마는 정식이를 데리고 나타나 아버지의 재산을 아들 몫으로 나누어 달라고 했다. 언제나 큰소리부터 지르는 건 엄마였다.

“젊은 년이 할 짓이 없어서 애나 앞세워서 돈이나 뜯어 내려고 해!”

“그래요. 젊은 년이 애하고 살아야 하니까 본격적으로 나섰어요. 보세요, 어차피 우리 더럽게 엮어진 사이니까 꼬장 부리지 말고 내 말대로 하는 게 서로 깔끔할 겁니다.”

“뒤편? 누구 좋으라고 하라는 대로 해. 주제에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어!”

“참, 답답한 양반이네. 애가 아들이라고요, 아들. 법적으로로는 장손입니다.”

“뭐? 장손! 내가 장손을 무서워할 것 같냐? 어림 반 푼 어치도 없다.”

그다음에는 안 들어도 뻔한 이야기다. 이 잡년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너 같으면 가만있겠냐? 그러니까 빨리 내 말대로 하세요. 그들은 해결도 안 되는 일에 상처만 키워 나갔다. 어른들의 세계는 얼마나 복잡한가. 엄마가 낳지도 않은 아이가 아버지의 아들이란다. 중국집 구석방에서 두 사람의 언성이 높아지는 동안 나는 짜장면에 깍두기 몇 개 집어 먹고 밖으로 나왔다. 정식이기도 슬그머니 따라 나왔다. 우리는 중국집 간판 아래 쭈그리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을 바라보았다. 사람들은 구두, 운동화, 등산화들 많이 신고 다녔다. 그중에 낡은 신발 새 신발을 세고 있는데 정식이가 내 눈앞에 노란 봉지를 내밀었다. ‘자유시간’이라고 쓴 초콜릿이 내 얼굴 앞에 떠 있었다.

“누나, 이거.”

“이게 뭐냐?”

“누나, 주려고.”

나는 초콜릿을 탁 쳐서 바닥에 떨어뜨렸다. 바닥에 떨어진 자유시간은 내 발끝에 차여 멀리 날아갔다. 정식이

는 울음을 터트릴 것 같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등을 돌려 중국집 구석방으로 뛰어 들어갔다. 두 엄마가 집으로 갈 때까지 난 밖에 있었다. 노여움을 채 다 스리지도 못해 얼굴이 벌건 엄마는 내 손을 꼭 잡고 “여우 같은 년이 뻔뻔하기는, 어딜 와서 감히.” 하면서 집으로 향했다. 걸어오는 동안 풀어지지 않는 엄마의 노여움만큼 나도 기분이 나빴다. 감히 날보고 누나라니. 그 북경반점이 아직도 있는지 궁금했다.

눈에 익은 집들이 웅기종기 모여 있는 비봉면 소재지가 서서히 다가왔다. 오래된 건물에 새로 단장한 공인 중개사 사무실들이 이곳이 개발지역임을 알려주기에 충분했다. 이 층으로 된 건물은 그런대로 볼만했다. 지붕이 낡은 슬레이트에다 알루미늄 새시로 가게 문을 만들고, 나머지는 원색으로 페인트칠해서 어설피고 조잡해 보이는 곳도 있었다. 새로 만든 가게 앞에는 시골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고급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다. 이렇게 비봉면에서 축제가 열리고 있는 동안 난 뜨개질만 하고 있었다. 버스에서 내려 북경반점이 있던 자리부터 찾았다.

중국집은 이미 없어지고 ‘비봉 공인중개사’ 사무실로 바뀌었다. 사무실 유리창에는 매물광고가 퍼즐처럼 붙어 있었다. ‘포도밭 이천 평. 평당 육십 만원. 이차선 도로

옆.’ 그 아래에는 ‘임야 삼천 평, 평당 이십 만원. 도로에서 이백 미터.’ 커다란 글씨도 있었다. ‘금매 주택과 대지 포함. 삼백 평. 상담 후 결정. 조정 가능.’ 하다는 이야기다. 다른 사무실에도 밖에서 안이 들여다보이지 않을 정도로 붙었다. 나는 중국집 안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해서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갔다. 남자와 여자가 컴퓨터 작업을 하다 “어서 오세요.” 하고 인사를 했다. 다른 한 남자는 손님과 상담 중이었다. 상담하던 키 큰 남자는 내게 의자에 앉기를 권했고, 여자는 종이컵을 들고 차를 준비하러 정수기 쪽으로 갔다. 중국집 안은 밖으로 보이는 쪽은 사무실이고, 우리가 짜장면을 먹던 구석방은 막아서 살림집으로 쓰이는 것 같았다. 막은 벽의 절반은 비봉면 개발지역의 지도로 덮였다. 나머지 반은 지역 신문광고를 확대한 것과 투자지로 적지라는 광고문이 크게 붙었다. 예전에 이곳에 들어서면 간장, 고춧가루, 생선 비린내까지 몽땅 합해진 중국집 특유의 냄새가 주방에서 흘러나왔다. 짜장면을 시켜놓고 앉았던 구석방에서는,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는 눅눅하고 음습한 냄새가 스멀스멀 코로 들어왔다. 지금은 종이 냄새에 컴퓨터 자판 두드리는 소리만 들린다. 컴퓨터를 하던 남자가 내게로 다가와 매물 책자를 펴며 물었다.

“무엇을 찾으십니까?”

“배화리에 땅이 조금 있는데 시세 좀 알아보려고 왔어요.”

남자는 매우 관심 있는 얼굴로 위치와 평수를 물었다. 나는 천 평정도 된다고 말했다.

“배화리는 상업지역처럼 일급 지는 아니지만 원룸 건축지로서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현재 건축업자들이 원룸을 지으려고 매물을 물색 중이니 한 번 내놓아 보세요. 제가 최고가로 받아드리겠습니다.”

남자는 엄지손까지 추켜올렸다. 고물상은 앉은 자리만 삼백 평이고, 나머지 임야도 팔백 평이다. 현재 임야가 삼십만 원이라면 대학교가 들어서면 애기가 달라진다. 나는 예상 이상의 숫자가 눈앞에서 춤을 추자 더럭 겁이 났다. 정식이는 이미 다녀가서 이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만나서 꼭 할 말이 있다고 한 것은 법적으로 재산분배에 대한 권리행사를 운운하면서 나에게 들이댈 것이 분명하다. 배화리가 개발이 된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길까. 정식이도 잠잠했던 욕심이 살아나서, 그 애 엄마와 내 엄마가 북경반점에서 하던 것처럼, 우리도 같은 길을 가야 하는 걸까. 끔찍한 쪽으로 향하는 생각들을 끌어당겼다. “매매하시려면 저희에게 꼭 주십시오. 가격은 적기일 때가 가장 좋습니다.” 라는 남자의 말을 뒤로하고 사무실을 나왔다. 택시를 타고 고물

상을 향했다.

고물상은 먼 소재지에서 1km 정도 벗어난 곳에 있다. 배화리로 가는 길은 예전보다 길이 넓어졌다. 포장도 시멘트가 아닌 아스팔트로 바뀌었다. 머리가 반은 허영게센 택시기사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의 나이쯤으로 보였다. 고물상 주위에 건물이 열 개는 들어섰지만 고물상 간판이 선명하게 보였다. 함석담 위로 고철과 비철이 삐죽 삐죽 나왔다. 그 사이로 잡동사니가 수북이 쌓여있어 여기는 누가 봐도 고물상이다. 고물상은 ‘현대 자원’이란 간판 아래 ‘철거전문’이라고 세로로 쓰여 있었다. ‘고철, 비철’과 ‘파지’라고 쓴 문구는 함석담에 낙서처럼 휘갈겼다. 택시기사는 나를 정문애다 내려놓고 돌아 나갔다.

대문도 없는 문 앞에 섰다. 오른쪽으로 내가 살던 집은 사라졌다. 그 자리에 컨테이너 두 개가 놓여있다. 고물도 철골이 많고 티브이, 에어컨, 폐전선, 기계부속과 같은 고급질의 폐품이다. 인기척이 없는 것으로 봐서 세입자는 밖으로 일하러 나갔나 보다.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다. 네 모진 담장 구석에 세 개의 감시카메라가 부엉이처럼 눈을 부라리고 있다. 예전에 아버지가 주인이었던 ‘배화고물상’은 큰 개 세 마리가 지켰었다.

그 시절 고물을 수거하는 사람들이 기껏해야 폐지나 철

이 벗겨진 냄비 아니면 누런 밥통을 리어카에다 모아왔다. 세 식구가 등지를 틀었던 마당의 고물 속에는 들고양이도 살고 있었다. 이곳에서 엄마는 서른아홉에 어렵게 나를 출산한 후 무슨 일인지 아이가 없었다. 내 놀이터는 고물상 안마당이었고, 장난감은 찌그러진 국자나 플라스틱 바가지였다. 국자의 손잡이가 틀어졌어도 플라스틱 바가지에 흙을 퍼 담는 일은 아주 재미있었다. 아버지는 아저씨들이 리어카로 수집해 오는 고물을 판수동저울로 달아 돈을 주었다. 리어카 아저씨들은 엄마를 사모님이라고 불렀다. 엄마는 그때가 자기 생애에서 가장 낭만적이었다고 했다. 그날 저녁에는 돼지고기 두루치기가 안주로 나온 술상이 차려졌다. 아버지는 고물을 실으러 가는 일이 아니면 거의 외출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고물 안에는 아버지의 비밀이 꼭꼭 숨겨져 있었다.

그날 아버지는 마당에서 흩어진 고물을 차곡차곡 쌓고 있었다. 파지 상자를 들어 올리다 머리를 감아쥐고 쓰러졌을 때, 내 나이 열 살이었다. 아버지는 병원에 가는 택시 안에서 숨졌다. 엄마는 장례식장에서 세 번이나 까무러쳤다. 엄마는 링거액을 맞고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다. 나는 엄마 곁을 갓 태어난 오리 새끼처럼 졸졸 따라다녔다. 장례 이튿날이었다. 검은 상복에 눈이 툭툭 부은 서른 초반의 여인이 들어왔다. 그 곁에는 다섯 살짜리 남자

아이가 손을 잡고 있었다. 그들은 아버지 영정 앞에서 나란히 절을 올렸다. 조문객들의 눈길도 일제히 그쪽으로 쏠렸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왔다. 나는 그때부터 구경꾼이 되었다. 아버지가 꼭꼭 숨겨놓았던 여자와 아들. 그 여자의 실체는 아버지가 죽음으로서 설익은 과일처럼 우리 눈앞에 나타났다. 그들이 장례식장에 나타난 것은 아버지의 죽음보다 더 큰 사건이었다. 엄마가 또 쓰러졌다. 온몸에 경련까지 일으켜서 다시 병원으로 옮겨졌다. 엄마는 링거액을 단 채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두 손을 들어 부르르 떨면서 “이 인간, 기가 막힌 선물 하나 던져주고 갔구나!” 하고 소리쳤다. 그 여자는 장례식을 치르는 동안 엄마와 거리를 둔 자리에서 말없이 앉아 있었다. 엄마는 보아서는 안 되는 물건이라도 있는 것처럼 아예 등을 돌리고 있었다. 그들은 장례식이 끝난 후 배화리에서 사십 리나 떨어진 동천으로, 영화의 마지막 장면처럼 사라졌다.

엄마는 아버지의 사망신고를 하다가 호적에 정식이와 엄마 아들로 올려 있는 것을 알았다. 내 이름 정숙이와 돌림이 같은 김정식으로. 엄마는 사망신고를 하고 와서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이나. 이 교활한 인간, 고물처럼 고쳐 쓸 수도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라고 했다. 그리고 그 후로 잊을만하면 나타나 엄마의 상처를 건

드리며 괴롭히던 정식이 엄마. 이곳이 개발된다면 어떤 방법이 되었던 고물상은 사라질 것이다. 돌아가신 엄마가 그토록 지키려고 했던 고물상이었는데. 내가 살던 곳을 한 번 더 둘러보고 정식이와 약속한 미림정으로 향했다.

겨울의 저녁 해는 병아리 꼬리만 했다. 이월의 초입이라 그런지 저녁 바람이 매서웠다. 식당은 버스에서 내려 한 정거장 정도 걸으면 되는 거리였다. 습관처럼 발에 익은 길인데도 느낌이 다른 건 순전히 기분 탓이라. 우선 내 안에 담긴 탁한 공기를 뿜어내고 싶어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내뱉었다. 그래도 기대처럼 후련하지는 않았다. 딱각딱각 내 발걸음 소리는 오가는 차 소리에도 사라지지 않고 선명하게 내 뒤를 따라왔다. 식당에 가려면 길을 건너야 한다. 빨강 신호등을 바라보고 섰다. 까르륵 웃음소리가 내 등 뒤로 다가왔다. 싱그러운 목소리였다. 내 옆으로 스물다섯쯤 된 자매가 손잡고 나란히 섰다. 외출하고 집으로 가는 듯하다. 동생의 손에 케이크가 들려있다. 동생이 언니에게 말했다.

“엄마가 선물이 없다고 실망할까?”

“우리가 선물이지.”

나는 장난을 치는 그들을 보고 오늘이 내 생일이라는 기억이 떠올랐다. 아침에 무심한 가족에 대한 서운했던

감정이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다. 나가면 서둘러 들어
 갈 일도 없고, 어디를 반드시 들러야 할 곳도 없는 채 가
 구처럼 남아가고 있는 나에게도, 가만히 보면 작은 행복
 이 어딘가에 숨어있었다. 집에서 뜨개질하다가 신문의 문
 화면에서 '이주일의 시'를 읽고, 나도 시 한 번 써 보고
 싶은 희망도 생겼었다. 친구에게 전화하여 나박김치를 담
 았더니 김장김치가 맛이 없어지더라고 수다도 떨었다. 오
 후에 잠깐 마트에 들러 가족을 위한 반찬거리를 사기도
 했다. 전자제품 코너에 가서 요란한 소리만 내고 잘 빨아
 들이지 않는 청소기가 생각나서, 가격표를 들여다보다 망
 설임 없이 구입했다. 그리고 그 옆 화장품 가게에서 봄에
 어울리는 분홍색 매니큐어도 하나 샀었다. 남편과 아이들
 얼굴이 떠오른다. 저녁식사는 어떻게 했는지 걱정이 되었
 다. 생각에 잠긴 나에게 건너편의 파란불이 깜박깜박 경
 계신호를 보낸다. 나와 나란히 섰던 자매는 횡단보도 중
 간쯤 걸어가고 있다. 나는 행렬의 끝을 종종걸음으로 따
 라갔다.

식당에 들어가 종업원이 가리키는 곳으로 갔다. 정식이
 는 미리와 있었다. 내 발 앞에 어른 구두가 한 켤레 나란
 히 있다. 그 구두를 내려다보았다. 어느새 둘 다 나이를
 많이 먹었다. 정식이가 나보다 다섯 살이 아래니까 올해
 마흔다섯이다. 방 안에 들어가면서 손을 들었다.

“일찍 왔구나.”

“추운데 고생했어요.”

우리는 오줌 냄새만으로 동족을 알아보는 짐승처럼 서로를 금방 알아봤다. 정식이는 사십 중반의 나이에 비해 이마에 깊은 주름이 패어 있었다. 아버지의 이마에도 깊은 주름이 보였다. 아버지의 귀밑에는 조그만 검은 점이 있었다. 정식이의 귀밑에 있는 검은 점과 실눈이 되어 눈웃음치는 모습에서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었다. 나는 아버지를 닮았다는 사실만으로도 기습적인 불쾌감이 들었다.

종업원이 음식을 들고 왔다. 상위에 음식을 하나씩 내려놓았다. 상위에는 배추포기김치, 갈치조림, 양념꽃게장, 쇠고기볶음, 동태전, 잡채에 미역국까지 푸짐하게 차려졌다. 미역국이 보이자 순간 생일상을 여기서 받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형제와 함께 생일 밥상에 마주 앉아 보는 것도 나만의 그리움이기도 했다. 그런데 정식이와 함께라니, 묘한 기분이다.

“누나는 뭐하고 지내세요?”

“주부가 다 하는 일, 그런 거지 뭐.”

“그게 제일 편해요. 간섭을 안 받잖아요.”

“왜 간섭을 안 받냐? 간섭은 남자들이 하는 걸. 너는 애가 몇이나?”

“혼자예요.”

“아직도?”

“아버지 노릇 제대로 할 자신이 없어서……. 그쪽이 편해요.”

정식이의 가시 돋친 말한 마디가 몇 개로 분열되어 내 머릿속에서 와글거린다. 의욕에 불타는 겁 없는 나이는 지났건만, 이런 식으로 감정에 불을 붙이고 시작하려는 의도가 뭔지 모르겠다. 아무래도 거북한 분위기로 몰고 갈 것 같아 슬쩍 비켜섰다.

“비봉면 북경반점이 없어졌더라.”

“오래되었으니 변했겠지요.”

“넌, 가본 적이 없니?”

“안 좋은 기억만 있는 곳이잖아요.”

안 좋은 기억이라는 말이 또 찌꺼기로 남았다. 혹시 그건 아닐까. 북경반점에서 일어났던 그 날의 어떤 장면이 떠올랐다.

“안 좋은 기억 속에 자유시간도 들어있니?”

정식이는 한참 동안 침묵했다. 난, 그 침묵을 즐기고 있었다.

“몸이 아픈 건 약으로 해결되는데 마음이 아픈 건 약으로도 안 돼요. 난, 어려서 그랬는지 누나가 있다는 것이 참 기뻐요. 북경반점에 가는 건 누나를 볼 수 있어서 신

이 났거든요. 그전, 누나에게 갖다 주고 싶어 아껴두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그 후로 누나를 만난다는 게 두려웠어요.”

나는 보여줘서는 안 되는 모습을 들킨 것 같았지만 결코 흔들리지는 말자고 다짐했다. 그때 네 사람은 각자의 감정으로 풀어진 실타래처럼 엉켜있었다. 만날수록 실타래는 더 엉켜지고, 때가 끼고, 색깔마저 바래져 갔다. 그 실타래 때문에 지금까지 누구도 그 기억 속에서 자유롭지 못 했다. 상처가 얼마나 깊었으면 가까이 살면서도 서로를 밀어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토막 난 대화로 분위기만 무거웠다. 정식은 젓가락을 들었다가 손가락으로 바꾸어도 밥을 뜯 생각을 안 한다. 내가 밥을 뜨고 취나물을 집어오자 그 옆의 김치 한 조각을 마지못해 집어간다. 김치를 빈 접시에 담아 놓고 젓가락을 가장자리에 걸쳐놓는다. 나는 손가락으로 미역국에 뜬 기름을 떠내었다. 그리고 궁금하지도 않은 안부를 물었다.

“너의 엄마는 안녕하시냐?”

“병원에 입원해 계세요. 많이 아프세요.”

“저런, 어디가?”

“폐 쪽이래요.”

“질망적이야?”

“폐는 어렵잖아요…… 누나, 부탁이 있어요. 엄마가 뵙고 싶다는데 꼭 좀 만나주세요. 제 소원이예요.”

“나를? 오늘 할 말이 그거였어? …… 무슨 일인데?”

“만나보면 알아요. 꼭 좀 가주세요.”

정식이는 밥상 위에 두 손을 모으고 초조하게 앉아 있었다. 나는 전혀 예상도 못 했던 일이었다. 숟가락을 상 위에 내려놨다. 정식이 엄마가 아프다니. 그것도 심각한 상황이라지 않는가. 이걸 대체 무슨 일인가. 정식이 엄마가 나에게 하고 싶은 말은 과연 무엇일까. 고물상에 미련이 있어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한 걸까. 이런저런 궁금증이 내 안에서 집요하게 꿈틀거렸다. 정식이 엄마가 많이 아프다는데 피할 수는 없다. 일단 만나보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 다음에 상황을 보고 대책을 세우기로 했다.

“우선 먹자, 조금이라도 먹고 병원에 가자”

“고마워요, 누나.”

정식이는 이제야 안정이 된 듯 숟가락을 들어 밥을 먹기 시작했다. 나는 정식이에게서 어려운 일을 끝낸 것 같은 안도의 눈빛을 보았다. 내 마음은 더 착잡해졌다. 밥알이 입안에서 돌기만 할 뿐 넘어가려 하지 않았다. 우린 병원을 가기 위해 대충 먹고 일어났다. 긴 시간도 아니었는데 밖은 깜깜해져 있었다. 이따금 불어오는 칼바람은

코트 자락을 펴렷다. 나는 시린 발을 툭툭 털며 정식이 차에 올랐다.

성산 종합병원 정문에 나를 내려놓고 정식은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갔다. 정문을 밀고 들어서자 소독 냄새가 코로 들어왔다. 이 냄새는 언제나 내 얼굴을 찡그리게 만들었다. 낮에 많은 사람이 드나들었을 접수대를 지나 내 과병동을 향해 걸었다. 복도 벽에 화살표가 그려져 있었다. 내키지 않는 내 발걸음을 화살표가 제시해 주는 것 같았다. ‘영상의학과는 이쪽으로 가십시오.’ 감정이 없는 얼굴로 의사가 내 곁을 지나갔다. 그 뒤로 환자를 휠체어에 태우고 보호자가 밀고 왔다. 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으로 올라갔다. 705호 병실 앞에 섰다.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불편해서 선뜻 문을 열지 못했다. 손잡이를 잡았다.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어떤 것이 보여도 놀라지 말자고 나와 단단히 약속했다. 병실에 들어갔다. 창문 옆 침대 위에 ‘이청자’라는 이름의 여자가 누워있다. 나는 그 여자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내 앞의 여자는 탕탕했던 자루를 비틀어 짜서 물은 빠지고 가죽만 남은 것 같았다. 검고 누르칙칙한 가죽 자루. 어깨까지 들썩이며 숨을 쉬는 여자는 눈을 감고 있었다. 이름이 아니면 정식이 어머니인 줄 몰라보게 변해 있었다. 내가 서 있는 인기척에 여자의 눈꺼풀이 천천히 홑뜨다가 내 눈과 마주쳤다. 나

는 가슴이 철렁했다. 가족 자루에 눈이 달린 이 여자가 엄마에게 대들던 그 여자였나. 나는 눈을 돌리고 싶었다. 정식이 엄마가 먼저 알아보았다.

“너, 왔구나.”

양상한 손이 내 손을 덥석 잡았다. 바스러질 것 같은 손에는 온기가 하나도 없었다. 사람 손이 아닌 어떤 물체가 옥죄는 것 같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나는 네, 라는 말이외에는 할 말이 없었다.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다. 그러다 정식이 엄마가 이것저것 물었다.

“오랜만이다. 아이는 몇이냐, 남편은 어디를 다니고.”

“둘이에요, 회사에 나가요.”

그때 정식이가 들어왔다. 내 곁에 나란히 섰다. 정식이 엄마는 양상한 두 손으로 다시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건조한 입술로 어려운 결정을 내리는 사람처럼 말을 끊었다.

“너를 오라고 한 것은…… 다름이 아니고…… 한 번 보고 싶어서 그랬다. 그냥…… 보고 싶었어. 미안하고.”

정식이 엄마는 이렇게 말한 다음 할 일을 다 한 듯 긴 한숨을 내쉬었다. 이럴 수가.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걸 농담이라도, 상상이라도 짐작조차 못 한 일이었다. 오늘 정식이 전화를 처음 받았을 때, 두 사람이 고물상의 주인인 것처럼 뚜벅뚜벅 걸어와

모두 차지할 것 같았다. 둘이서 공격하면 엄마처럼 대항하려는 마음까지 먹었다. 나는 부끄러워 다리가 휘청거릴 지경이었다. 그러나 이런 기분이면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우선 엄마의 마음이 되었다. 그리고 정식이 엄마의 손을 꼭 잡아 주었다.

병원 밖은 이미 캄캄해서 가로등마저 없었다면 물체의 윤곽조차 분간하기 어려웠다. 가로등 아래에 서 있는 나는 무언가에서 풀려난 기분이었다. 집에 오는 버스에 올라탔다. 가방에서 뜨다만 조끼를 꺼내었다. 버스는 내부등을 꺼서 어두웠지만 가로등이 희미해서 뜨개질은 가능했다. 색깔은 실 꾸러미의 크기로 구별하면 되었다. 왼손가락은 가방 속에서 정확하게 무늬의 실을 찾았다. 오른손으로 대바늘을 잡았다. 눈을 감아도 실을 구별해서 무늬를 만들 것 같은 자신감이 들었다.

나는 정식이 엄마의 얼굴에서 영혼이 떠날 준비를 하는 검은 그림자를 보았다. 그 얼굴에서 편안하고 행복해하는 또 다른 얼굴도 보았다. 어두운 버스 안에서 정식이 엄마가 내게 한 말이, 혼란했던 나의 마음에 한 개씩, 한 개씩, 등불로 켜지고 있었다. 병원을 나서면서 살짝 웃었던가. 아마 그랬을 것이다.

제6회 **목포문학상** 수상 작품집

• 본상 부문

| 희곡 부문 |

邪果(사과)나무 꽃



황 석 연

(경기도 김포시)

1958년 경남 김해 출생.

1980년 서울예술대학 연극과 졸업.

2014년 경상일보 신춘문에 희곡 당선.

「邪果(사과)나무 꽃」

황석연

등장인물

老人 : 사과 농장 파수꾼.

青年 : 사과 농장 일꾼.

女子 : 몸 파는 꽃 뱀.

그 외, 농장주인, 장남, 차남 망령들, 일꾼들(눈에 보이지 않으나, 가시화 할 수도 있다)

일러두기 : 여자의 치마는 폭이 넓고 뱀 꼬리를 연상하듯 길다. 때로는 짧아지기도 한다. 노인과 청년이 그 치마 안으로 들어가서 움직일 수 있도록 공간의 확보 필요하다. 연출의 필요에 따라 죽은 일꾼들의 망령이 극적 효과를 위해서 등장해도 무방하다. 이 연극에서 사용되는 피리 연주는 기존 곡을 차용하거나 창작을 하면 더욱 좋겠다. 특히 남녀의 사랑하는 장면에서 망령들이 코러스 역할을 해서 욕망을 극대화 하는 퍼포먼스를 해도 좋겠다. 노인이 농장주와 아들을 살해 하는 장면은 스크린을 이용해 악의 절정을 보여줘

도 좋다. 불필요하다면 생략해도 무방하다.

舞臺

치열한 매미의 울음소리가 무섭게 몰아치듯 들려오는 사과밭.

프롤로그.

무대에 마치 뱀처럼 구불구불하게 자란 큰 사과나무가 서있다.

그 주변에 몇 구루의 작은 사과나무가 기형적으로 자라서있는 모습이 기괴스럽다는 느낌을 준다.

사과나무엔 탐스럽고 붉게 익은 열매가 달려 있다.

그 뒤로 원두막 한 채가 전망대처럼 사과나무를 굽어보고 있다.

원두막으로 올라가는 사다리가 걸쳐져 있고 그 원두막 위엔 머리가 길게 자란 눈에서 광채가 나는 비쩍 마른 노인이 한복을 입고 참선을 하는 모습으로 정좌하고 앉아있다.

그 앞에 탐욕스런 붉은 사과 하나가 접시 위에 올려져 있다.

매미 소리가 일제히 파도를 치듯 들려왔다. 사라졌다
반복한다.

원두막 아래 청년과 여자가 뱀처럼 뒤엉켜 붙어 있다.

두 남녀의 신음소리가 매미소리가 사라지는 그 사이를
채운다.

매미 소리 길게

신음 소리 짧게

주고받고 반복을 한다.

매미 소리가 갑자기 침묵.

사이

신음소리는 마치 노래하듯이 들려온다.

노인. 감았던 눈을 번쩍 뜬다.

그리고 붉은 사과를 하나 집어 들고 한참 들여다보다가
이내, 한 입 베어 먹고 그 사과 맛을 조용히 음미한다.

남녀의 교접 소리, 푹 멈추고

매미 소리가 또 한 번 사납게 휘 몰아친다.

노인 눈을 조용히 감는다.

입안에 삼킨 사과를 우물거리며 씹다가 삼킨다.

한 몸으로 붙어 있던 청년이 여자의 몸에서 일어난다.

여자가 일어나 치마를 올리고 사과 밭에서 사라진다.

청년 이마에 맺힌 땀방울 흠친다.

노인 문득 입에 문 사과 씨앗을 툇 하고 뱉는다.

청년 흥분이 채 가시지 않은 얼굴로 가쁜 숨을 토해 낸다.

노인 : 오늘따라 사과 맛이 너무나 좋구나.

청년 : 사과 하나 더 따 드릴까요?

노인 : 한 개면 족하다.

청년 : 사과 말고 다른 건 먹고 싶은 건 없으세요?

노인 : 없다.

청년 : 이상해요. 요즘은 기형적으로 생긴 사과가 달리
기도 해요. 이 사과밭에 저주가 내린 게 아
닐까요? (노인 대답 없다) 그럼 전, 땀이나 좀 식
히려 갈게요.

청년 여자가 나간 방향을 향해 나간다.

노인 반 쯤 남은 사과를 바라보다 이내 힘껏 거칠게 베
어 물고 눈을 부릅뜬다.

마음속에 뿔처럼 자라나는 욕정을 잠재우려고 애를 쓰
는 모습.

1 장.

뜨거운 태양의 열기가 이글거리는 사과밭.

사과나무에 열린 붉고 탐스런 사과를 따는 청년.

청년 : (딴 사과를 살피며) 뭐야? (놀란다) 벌레가 우글
우글 거리네.

여자가 멀리서 “빠꼭” 하고 신호를 보낸다.

청년이 사과를 따던 손길을 멈추고, 소리가 난 쪽을 향해 빙긋 미소를 짓는다.

여자가 다시 “빠꼭, 빠꼭”하고 신호를 보낸다.

원두막 위에 정좌를 하고 있던 노인이 눈을 번쩍 뜬다.

노인 : 빠꾸기가 몸으로 우는 걸 보니, 또 드라마가 시작될 거 같구나.

청년 : 오늘은 힘이 없어요. 사과도 따야 하고 (사이) 근데 여름인데도 사과가 다 익었어요. 원래 가을에 수확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가 아닌가요?

노인 : 봄엔들 사과가 열려도 이상할 것 없지.

청년 : 그리고 보니 겨울이 점점 짧아지는 것 같아요.
폭염의 끝이 보이질 않고 바람이 불어 온지

도 오래됐고, 매미만 지* 맞게 울고, 이러다가 사과밭도 이젠 끝 장이에요. 저 봐요. 사과 나무가 다들 뱀처럼 구불구불해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과열매가 이렇게 싱싱하게 알이 굵게 자라는 게 신기해요. 물론 이상하게 생긴 괴물처럼 생긴 사과도 가끔 발견되긴 하지만.

노인 : 신기할 게 뭐가 있나. 네 불*이 점점 작아지는 것 모양 앞으론 더 신기한 일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날 거다.

이때 여자의 뼈쑉 뼈쑉 하는 소리가 반복적으로 운다.

노인 : 매미도 미쳐가고, 둥지 찾는 뱀꾸기도 미쳐가는구나.

청년 : 아, 정말이지 시도 때도 없이, 사과 따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너무 하잖아. 이러다간 내 몸의 수분이 다 빠져 나갈 것 같아요.

노인 : 죽으면 썩어 문드러질 육체 아껴서 구더기 좋은 일 시킬 거냐.

청년 : 그래도 영감님 앞에서 우리끼리만 재미 보는 게 미안해서 영감님의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맑은 눈을 차마 보지 못하겠어요.

노인 : 난 사과가 있잖니. 처녀의 하얀 속살 같은 맛있
는 사과!

청년 : 정말 사과로 만족하시는 거 맞긴 맞아요? 참기
힘드시면 저에게 말해 주세요. 혹시 사과를
먹으면서 상상을 즐기시는 거라면, 제가 뼈꾸기
에게 잘 얘기하면 들어 줄지도 몰라요.

이때 여자. 살금살금 도둑고양이처럼 온다.

원두막 밑으로 가서 거침없이 치마를 걷어 올린다.

청년이 여자의 하체를 보고 침을 삼킨다.

여자가 입을 벌리고 혀를 내밀고 유혹의 눈빛을 날린다.

청년. 참지 못하고 허겁지겁 여자를 안고 쓰러진다.

청년과 여자가 한 몸이 되면 매미 소리가 한 바탕 울음
을 쏟아낸다.

노인은 눈을 질끈 감고, 사과를 한 입 베어 문다.

입에 문 채로 있다가 문득, 눈을 번쩍 뜬다.

바라보는 안구가 튀어 저 나을 것만 같다. 이어 몸을 부
르르 떤다.

청년과 여자가 리듬을 타듯이 물결처럼 움직인다.

매미 울음소리와 교성소리가 리듬을 타듯이 들려온다.

노인 : (눈이 점점 커지고 입에 물었던 사과가 툭 떨어
지고) 그만!!!

움직이던 청년과 여자의 동작이 멈춘다.

노인 : (거친 호흡을 내 쉬며) 사과를 줘! 사과를 달란
말이다!

여자가 일어나 치마를 황급히 내리고 눈치를 보다가
슬금슬금 도망을 친다.

청년 일어나 바지를 올리고 사과 밭으로 가서 바구니에
담긴 사과를 하나 꺼내 들고 돌아선다.

청년 탐스런 알이 굵은 사과를 노인을 향해 쳐들고 미
소를 짓는다.

노인 : 사과를 가져 와. 목이 타듯 마르다.

청년, 원두막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노인 앞에 앉는다.
사과를 주면 노인이 사과를 받는다.

청년 : 괜찮아요?

노인 : 뭐가?

청년 : 영감님의 호흡소리가 오늘따라 무척 불규칙적이고 거칠어요.

노인 : 더위 탓이야.(사과를 한 입 베어 문다. 진정한다)
이젠 괜찮아 졌다.

청년 : 정말, 사과만 드셔도 되는 건지. 빼꾸기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와서 죄송해요. 제가 앞으로 주의를 줄게요. 매번 영감님께 죄송해요.

노인 : 괜찮다고 했잖아. 가끔은 사과 속에 숨은 이상한 벌레를 먹다 보니 목구멍에 걸려서 그런다.

청년 : 색다른 맛을 경험 하고 싶지 않으세요? 젊은 빼꾸기의 속살은 정말이지 뽕 껍질처럼 서늘한 게 아주 좋아요. 한 번 붙으면 도대체 떨어지지 않아요. 마치 내 존재를 다 집어 삼키는 느낌이 든다니까요.

노인 : 그 간교한 혀바닥을 나불되지 마라. 내가 인내해 온 모든 공든 탑이 무너진다.

청년 : 분홍색 갈비뼈의 맛을 보시면 미칠 건데.

노인 : 분홍색 갈비뼈라니.

청년 : 아담의 갈비뼈요. 그 갈비뼈가 자라서 빼꾸기가 됐잖아요. 빼꾸기는 사과 일꾼인 저를 먹고요. 영감님에게 한 번 주고 싶어 하는 눈치예요.

노인 : 계속 빼꾸기를 튀겨 먹든 찌서 먹든 해라. 난 사과면 됐다.

청년 : 무슨 사과 속에 글래머라도 감춰 두셨어요? 영감님도 이렇게 평생 사과밭파수꾼 노릇을 하는 게 지겹지 않으세요? 주인이 영감님께 임금을 사과로 주잖아요. 그래도 만족 하세요? 주인 놈이 빌딩이 몇 채 인지 알아요? 그동안 우리를 착취해서 번 돈 이잖아요. 그 많았던 일꾼들이 다 떠나가고 파수꾼인 영감님과 저만 남았잖아요.

노인 : 그 대신 너를 기쁘게 위로해 주는 빼꾸기가 날아왔잖아. 넌 빼꾸기가 너를 조금씩 없애버린다는 생각은 해 보았느냐.

청년 : 나를 없앤다고요? 하긴 요즘 몸이 축이 많이 낫어요. 사과만 먹었더니 딸꾹질만 나고요.

노인 : 넌 네가 조금씩 없어진다는 사실을 모르는구나. 언젠가는 넌, 사라질 거다. 사과밭에서 네가 일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한 채.

청년 : 가끔 영감님은 알아듣질 못할 말을 하고 그러세요. 빼꾸기가 지우개 입니까? 날 지우다뇨? 어때요? 제가 한 번은 양보를 하면 어떨까 해서요. 공든 탑 무너지면 다시 쌓으면되죠. 쓸쓸하고 고

독한 노년을 이대로 보내고 싶으세요?

노인 : 쓸데없는 고집 피우지마라. 말했지. 난 사과면
족하다고.

청년 : 정말이지 후회 하지 말아요.

노인 : 무슨 후회?

노인 남은 사과를 힘껏 베어 물고 씹으면서 웃는다.

청년 : 왜 웃어요? 왜요? 제 불알이 사라지기라도 했어
요? 아직은 알밤처럼 단단해요.

노인 : 내려가서 일해라. 사과밭 주인이 어디선가 볼지
도 모른다. 게으른 일꾼들 쥐도 새도 모르게 잡
아간다는 거 모르냐.

청년 : 설마하니 최후의 일꾼인 저를 해고 하겠어요?
저요. 주인이 제발 나타나기만 기다려요. 밀린
임금도 받아야 하고 고향에도 한 번 가봐야 하고
요. 등이 점 점 휘어가는 엄마도 보고 싶고요. 집
떠난 지 너무 오래 되서 엄마 얼굴조차 기억이
안나요. 내 청춘을 이 사과밭에서 다 받쳤는데,
이게 뭐예요. 우린 사과벌레 보다 못한 인간이라
고요.(사이) 힘을 너무 많이 썼더니 피곤이 몰려
와요. 잠이나 푹 자야지. 농장 주인이 혹시, 나
타나면 피리 연주나 들려주세요.

청년 원두막에서 사다리를 타고 내려와 사과 밭으로 가서 사과나무 아래 와서 들어 눕는다.

이내 코를 골며 잠이 드는 청년.

2 장.

여자의 노래 소리가 들려온다.

그 노래는 발성연습을 하듯 내는 소리인데, 묘한 운율을 탄다.

청년은 깊은 잠에 빠져 있다.

여자가 노래를 부르면서 원두막을 향해 온다.

노인. 명상에 잠겨 있다가 여자의 노래 소리가 점점 높아지자.

눈을 번쩍 뜬다.

여자 잠든 청년을 바라보며 앉아 있다가 청년의 몸을 애무를 하듯 어루만지며

노래를 부른다.

노인은 피리를 꺼내어 분다.

(여자의 노래와 피리 소리가 교차하며 묘한 하모니를 이룬다)

여자의 노래가 멈춘다.

청년은 깊이 잠들었는지 코까지 곤다.

노인은 피리를 계속 분다.

구슬프고 애잔한 피리소리가 울려 퍼진다.

여자 : (원두막을 향해 두 팔을 벌리고) 내려오세요.

노인 : (눈을 감고 계속 피리를 분다.)

여자 : (큰 목소리로) 이제 그만 내려오세요!

노인 : (피리 부는 걸 멈춘다. 여자가 풍성하고 긴 치마
를 천천히 걷어 올린다.)

여자 : 내려오세요. 붉고 아주 잘 익은 달콤한 향기가
나고 육즙이 짙은 사과가 왔다고요.

노인 : (눈을 다시 감고 피리를 분다)

여자 : 한 입 콧 베어 물면 존재가 사라질 만큼 아득해
져요. 육체를 멀리 한다고 정신이 고양되나요?
오히려 정신이 썩어 문드러질 거예요.

노인 : (피리 연주를 멈춘다)

여자 : (새카만 눈을 반짝이며 혀를 내민다) 그럼, 제가
올라갈까요?

노인 : 그 사악한 눈빛은 뭐야? 네가 내게서 취 할 건
아무 것도 없다. 악취가 진동한다. 썩 물러 가거
라. 뱀 다리에 빨간 하이힐을 신고서 도대체 너

의 목적이 뭐냐?

여자 : 아이, 정말 영감님은 사내 맞아요? 제가 무슨 뺨
처럼 보여요? 오늘은 제가 특별히 잘해 줄
게요

노인 : 코 골며 자는 저 نوم을 깨워서 육즙이 차고 넘치
는 그 사과를 주려무나.

여자 : 정말 가면을 쓴 그 얼굴은 뭐야? 내 눈엔 괴물처
럼 대가리를 잔뜩 선 게 다 보여요.

노인 : 뭐야? 뭐가? 뭐가 섰다고? 이런 요망 한 것.

여자 : 어머니. 저것 좀 봐. 입맛을 다시며 일어서네.
성난 코뿔소처럼 저돌적이잖아. 솔직한 욕망을
당당하게 꺼내 봐요.

노인 : 내가 누구냐?

여자 : 사과밭 허수아비 아닌가요? 벌레나 잡고, 까마
귀나 쫓거나 하는 빈 총찬 허수아비. 당신의 그
머릿속엔 도대체 어떤 미래가 숨어 있는 거야?
똥 바다 속 구더기잖아.

노인 : 난 이 사과밭의 파수꾼이야.

여자 : 파수꾼 좋아하네. 공자 왈 맹자 왈 무슨 득도 했
어? 파수꾼이 농땡이 치는 사과일꾼이 나랑 놀
아나는 거 눈감아 줘? 혹시 속셈이 있는 거 아냐
그럼. 계속 남의 드라마만 보고 살던가.

여자 사과나무 아래서 잠에 빠져 있는 청년 쪽으로 가서 머리위에 가랑이를 벌리고 선다.

노인이 눈알이 튀어 나올 듯이 보다가 눈을 이내 질끈 감는다.

여자가 팬티를 벗어 사과나무에 걸어 놓고는 청년의 몸 위로 올라타고 폭이 넓고 풍성한 긴치마를 내린다.

청년이, 잠에서 깨어나 여자의 허리를 꼭 잡는다.

치마 폭 속으로 청년의 모습이 사라진다.

3장.

매미 소리 요란하게 올리다가 일제히 침묵.

사과 밭 나무 위로 뜨거운 여름 태양이 작렬 한다.

사과나무에 걸려 있는 여자의 유혹적인 팬티.

노인이 조용히 사과나무로 와서 그 주위를 천천히 돌고 있다.

노인이 여자 팬티를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그 팬티를 벗겨 손에 움켜잡는다.

긴 한 숨을 길게 내 쉬고 가슴에 움켜잡고 망연히 서 있다

허둥지둥 비틀대며 원두막으로 올라간다.

이내 정좌를 하고 앉는다.

긴 한숨을, 내 쉰다.

청년이 사과 밭으로 일하러 온다.

노인 : 오늘은 늦었네. 성실한 일꾼이 되기엔 글렀구나.

청년 : 어찌다 오늘 한 번 늦었다고요. 죽어라 일하면
뭐해요? 사과도 많이 땀는데, 임금을 계속 미루
잖아요. 사과 밭 주인은 코빼기도 안 보여요. 이
렇게 뜨거운 날엔 내가 무슨 짓을 할 지도 몰라
요. 그러니 영감님도 오늘 만큼은 제 기분 건들
지 말아요.

청년이 사과나무를 이리 저리 살핀다.

청년 : 어? 뭐야? (여기 저기 살피며) 어디로 갔지? 분
명 이 나무에 걸어 뒀다고 하던데? (그러다 돌아
서서 노인을 향해) 영감님, 여기에 걸려 있던 뱀
무늬 앞사귀 못 보셨어요?

노인 : (피리를 불다가 멈추고) 뭘, 앞사귀?

청년 : 뱀 껍질처럼 미끌미끌하고 차가운 촉감이 느껴
지는 뱀 가죽 같은 여자팬티요!

노인 : 태양이 삼켰거나, 악마가 삼켰거나, 둘 중 하나겠지.

청년 : 이런 쟁쟁, 큰 일 났네. 못 찾으면 또 돈을 물어내야 하는데.

노인 : 왜? 그 속옷이 무슨 황금 잎사귀라도 되냐?

청년 : 나 이거 미치겠네. 그 팬티 못 찾으면 뼈꾸기가 미쳐 날 뿔 텐데. 어찌죠?

노인 : 어차피. 벗기도 번거로울 텐데. 차라리 노팬티가 뼈꾸기 에게도 편하고 좋잖아.

청년 : 그 팬티 하나 살려면 사과를 몇 박스를 팔아야 하는지 아세요? 안 그래도 내가 모아 두었던 돈을 다 쏟아 부었다고요.

노인 : 그 잎사귀가 도대체 뭐라고 그렇게 비싸더냐?

청년 : 명품이래요. 명품!

노인 : 그럼 주인 몰래 사과를 열심히 따야겠구나.

청년 : 몰래 팔다가 들키면 주인 놈이 어떻게 하는지 모르세요? 삼으로 머리며 팔 다리 무자비하게 내리찍는다고요. 영감님은 모르세요? 죽은 일꾼들을 다른 농장에다 다 파묻었다는 풍문요. 그래서 다른 농장은 대 풍년이 나서 주인 놈이 갑부가 되었다는 풍문 못 들었어요? 그래서 뼈꾸기들이 여기에 등지를 틀려고 날아온다고요.

노인 : 그래서 뭐가 어쩔다는 거냐? 그럼 내가 눈 감아 주면 되잖아.

청년 : 영감님이 저더러 그랬잖아요. 양심의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자는 남은 생명을 살 권리가 없다고 했잖아요.

노인 : 내가?

청년 : 그러면서 눈 감아 주겠다고요. 더구나 제 몸 안에 지옥을 느끼지 않는 자에게는 영혼의 안식조차 구할 자격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노인 : 그 말도 내가?

청년 : 그럼 이 과수원에 영감님과 저와 빼꾸기 말고 누가 또 있다고 그래요? 더구나 영감님은 코빼기조차 안 보이는 주인을 대신해 사과밭의 도둑을 지키는 파수꾼이잖아요. 이 사과밭은 이미 버려진 밭이란 말예요. 여기서 우리가 꿈꾸는 게 도 대체 뭐죠? 뭘 지키는 거죠? 자신을 지켜서 뭐 하게요?

노인 : 내가 그렇게 보였나? 난 벌레와 까치나 까마귀나 있으면 되는 허수아비야.

청년 : 그리고 제가 빼꾸기랑 그 짓 하는 걸 묵인도 해주시고, 그래서 전 영감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잖아요.

노인 : 네가 사과를 흠쳐 팔아도 눈감아주면 되는 거냐?

청년 : 팬티를 더 찾아 봐야죠. 언제나 사과만 드시고도
행복해하고 만족해하는 영감님에게 제가 사과를
흠쳐 팔아서 팬티를 산다는 건 용납이 안돼요.

노인 : 너의 마음속에 그런 의로운 생각이 있다니, 기특
하구나. 그런데 어째서 육신의 쾌락은 절제를 못
하는 게냐?

청년 : 그렇잖아요. 전, 제 욕구를 참지를 못해요. 그녀
의 유혹에 늘 제 육체를 던지곤 하잖아요. 그냥
습관적으로 쾌락에 모든 걸 잊어요. 하지만 겁이
나요. 빠꾸기가 덜컥 임신이라도 하게 되면 전,
어찌죠? 보다시피 전, 몸 하나 남은 게 전부예요.

노인 : 그렇다면 부지런히 사과를 따면 되지. 주인이 언
제까지 너의 밀린 임금을 모른 척 하겠니? 성실
함만이 너의 미래의 등불이 되는 법이다.

청년 : 영감님이 눈 감아 주시면, 사과를 팔면 잃어버린
팬티와 똑같은 명품 팬티를 살순 있지만, 난 차
라리 그녀와 쾌락을 멈추면 멈추었지. 제 양심을
속일 순 없어요.

노인 : 양심을 팔고 생명의 구원을 포기하면 되잖니.

청년 : 영감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양심을 팔아서
그녀가 좋아하는 명품백도 사주고 근사한 보석

반지도 끼워주고 청혼도 근사하게 하고 싶어요.

노인 : 그런데? 왜! 그렇게 못하지?

청년 : 만약에 제가 양심을 집어 던지고 그렇게 한다면,
제 더러운 손과 더러운 눈을, 언젠가는 손목도
잘라 버리고, 눈도 파 버리고, 비통한 참회의 눈
물을 흘릴 것만 같아요.

노인 : 그 팬티를 누가 훔쳐 갔을까 생각은 왜 안 하는
거지?

청년이 순간, 멈칫하고 노인을 바라본다.

그러다가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다.

노인 : 왜 우는 거냐?

청년 : 상상하기도 싫어요. 너무나 끔찍해서요.

노인 : 왜 우냐고 묻잖니?

청년 : 여기엔 영감님과 저 둘 뿐이라는 사실이 잔인한
지옥처럼 느껴져요.

노인 : 그러니깐, 왜 잔인하고 지옥처럼 느껴지는데,
이눔아.

청년 : 전, 영감님이 설마 그 냄새나는 더러운 팬티를
가져갔다고 생각을 하기가 싫어요.

노인 : 내가 왜 가져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냐.

청년 : 영감님은 그럴 분이 아니시고, 저에겐 영혼의 파수꾼과도 같은 높으신 분이잖아요. 오직 사과 하나에 만족을 하시고, 피리나 부시고, 더구나 제가 그애를 공유하자고 제안을 했지만, 단연코 거절을 하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견디기 어려운 일인지를 전, 잘 알아요. 만약에 제가 영감님 입장이 라면 그 애랑 내가 붙어서 그 짓을 천연덕스럽게 하고 있었다면.....

노인 : 있었다면?

청년 : 아마도 머리통을 부셔버렸을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쭈은 것들이 붙어서 그 짓을 하는 꼴을 전, 못 봐요. 그리고 난, 당장 그 녀석을 이 사과 밭에서 쫓아 버렸을 거예요! 아무런 자비심도 없이 이 사과밭에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게 말이에요!

노인 : 만약에 빼꾸기의 잎사귀를 내가 훔쳤다면 너의 생각은 어떠냐?

청년, 놀라서 새삼 한참 동안 노인을 본다.

노인 : 왜 그렇게 놀란 눈으로 보는 거냐?

청년 : 만약이잖아요. 영감님이 만약에 정말로 그 팬티를 몰래 훔쳐서 그 애의 지독한 냄새를 맡으면서

행복해 한다면, 전 영감님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노인 : 그 말, 진심이나? 날, 용서 하지 않는다는 말!

청년 : 절대 용서를 못 하죠!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용서는 절대로 없어요!

노인 : (감춰 둔 팬티를 보인다) 여기에 있다.

청년 : (너무나 놀라서 눈이 커진다) 그, 그거 누, 누구 겁니까?

노인 : 눈을 크게 뜨고 보라. 그래도 모르겠니? 향기로
운 달콤한 사과 향기가 나는 이 팬티가 누구 건
지, 모르겠어?

청년 : 아, 저, 정말, 그 패, 팬티가 그, 그러니깐, 저,
저기 사과나무에 걸려 있던 빠꾸기의 팬티가 맞
아요?

노인 : 말까지 더듬는걸 보니, 많이 놀랐구나. 그래 내
가 훔쳤다.

청년 : 아니. 이럴 수가 없어요. 영감님의 손목을 자르
고 눈을 파내는 그런 일을 제게 시키고 싶은 겁
니까? 영감님, 아니라고 부정을 하세요. 저 나무
에 걸린 팬티는 태양이 삼켰거나, 악마가 삼킨
거라고요.

노인 : 이 팬티가 그, 팬티다. 악마인 내가 삼킨 거야.
이젠 사과만 먹기엔 인내에 한계가 왔나 보구나.

이젠, 이 파수꾼 자리도 너에게 넘겨 줄 때가 왔나 보구나.

청년 : 그래서요? 저 보고 어떻게 처분을 해달라는 겁니까?

노인 : 내 손목을 자르고, 내 눈을 파라! 그리고 날. 저 사과나무 아래 파묻어 다오.....

청년 : (무릎을 꿇고 앉는다) 그러실 필요 없어요. 제가 떠날게요. 그 팬티 버리세요. 악취가 진동한다고요. 차라리 제 입에 넣어줘요. 제가 삼켜서 악마처럼 갈기갈기 씹어 먹을게요.

청년. 몸을 부들부들 떨다가 오열을 하며 옆드린다.

노인. 눈을 감는다.

4 장.

청년이 한복을 입고 원두막에 정좌를 하고 눈을 감고 있다.

한 손엔 사과를 들고 있다.

사과밭에서 긴 머리를 자르고 머리를 삭발한 노인이 농장 일꾼이 되어

사과를 따고 있다.

매미 울음소리가 간헐적으로 들렸다. 사라졌다 반복을 한다.

여자가 원두막 밑으로 와서 들어 눕는다.

치마를 천천히 걷어 올린다. 그리고 노인을 향해 소리를 친다.

여자 : 팬티 어디에 있나요? 찾았나요?

노인 : (사과를 따다가 멈추고 여자를 본다) 입혀 줄까?

여자 : 부끄럽게. 호호.

노인 : 내 손으로 입혀 주고 싶었어.

여자 : 제가 그리로 갈까요?

노인 : 태양이 너무 뜨거워서, 괜찮을까? 그 아름다운 얼굴이 타면 어쩌게?

여자 : 태양이 삼키거나, 악마에게 먹히거나 하겠죠.

여자가 일어나 노인에게로 향한다.

노인이 여자를 본다.

여자가 다가오면 자신이 쓰고 있던 밀짚모자를 여자에게 씌워준다.

여자 : 언제나 친절하세요. 머리를 식발하니깐, 딴 사람
같아요. 팬티를 입혀 주세요. 가문의 영광
으로 생각하겠어요.

노인이 주머니에서 팬티를 꺼내면 여자가 한 쪽 다리를
든다.

노인이 팬티를 발목에 걸치면 다른 한 쪽 다리도 든다.

노인이 치마 속으로 풍성하고 폭이 긴 치마속의 팬티를
올린다.

여자, 흐뭇하게 청년을 본다. 청년이 눈을 뜨고 보다가
얼른 눈을 감는다.

여자 : (노인을 바라보며) 미치겠어요. 안아 주세요.

노인 : 여기서?

여자 : 저 짧은 파수꾼이 보는 앞에서 하기가 부끄러워
요?

노인 : 그런 건 아니지만, 원두막 밑은 어때?

여자 : 그냥 여기에서 해요. 누구 눈치 볼 일 없잖아요.
영감님이 일하고 부터는 사과 수확량이 더 늘었
다고, 주인이 칭찬을 하셨다고요. 이 사과밭에
재 투자를 하고 싶다나 봐요. 새로운 일꾼도 뽑
으려나 봐요.

노인 : 농장 주인도 머리가 이상해지나 보군. 어쨌든 여
긴 좀 그래. 젊은 파수꾼이 보잖아.

여자 : (청년을 향해 소리친다) 팬티를 훔쳐간 것을 용
서한 대신, 파수꾼이 된 네가 무척 자랑스러워
보여.

청년이 눈을 뜨고 여자를 보면서 사과를 한 입 베어 먹
는다.

노인은 원두막 아래로 가서 정좌를 하고 앉는다.

여자 : 어때? 그 자리에 있으니깐, 좋아? 이젠 땀도 흘
리지 않아도 되고, 더구나 나와와 노동의 수고
스러움도 안 해도 되고, 사과나 먹으면서 피리도
불고 너무 낭만적이다. 후회는 안해?

청년 : (노려보며 사과를 우적우적 씹어 삼킨다)

여자 : 더구나. 사과를 내가 훔쳐가도 눈도 감아주고,
너의 배려는 너무나 아름답다 못해 눈물이 흐를
것만 같아. 더구나 우리 예전에 너무나 좋았던
관계였잖아. 진즉에 양심을 팔았으면, 너와 나
의 관계는 훨씬 더 좋아졌을 텐데, 내 뱃속에 심
은 씨앗이 자라고 있어. 언젠가는 사과나무가 내
배를 뚫고 나올 거야. 그리고 언젠가는 치열한

매미 소리를 들으며 탐스럽고 붉은 사과가 열릴
거야.

청년이, 사과를 먹다가 사과 씨를 툭 하고 뱉는다.

여자를 보며 미소를 짓는다.

청년 : 그래서 행복해? 예전보다 더 물이 오르고 예뻐
졌네. 새로운 일꾼이 온다고? 우리를 모두 구덩
이에 파묻을 생각이나 보네.

여자 : 그럴 생각이라는 거지. 결정된 건 없어. 너는 어
때? 날 팬티와 바꿔치기 한게 괜찮은 결정이었
나?

청년 : 영감님 잘 해드려. 오랫동안 참고 사셨어. 그리
고 난 행복해. 가끔은 네 생각이 나기도 하지만,
난 빈 털털이잖아. 그래도 난 지금이 좋아.

여자 : 나도, 지금이 너무나 행복해. 너에게 느낄 수 없
었던, 마음의 힐링도 느끼고 말이야.

청년 : 영감님과의 관계는 어때? 나와 할 때처럼 기쁨
이 오나?

여자 : 만족은 무슨. 시들은 강아지풀인 걸.

청년 : 저런, 그래도 행복하다니, 영감님은 정말 무슨
신기한 마법이라도 부린 거야?

여자 : 너와의 관계했던 지난날이 그리운 건 사실이야.
하지만 넌 팬티와 파수꾼 자리를 교환했잖아. 날
팔아먹은 거지. 나대신 넌 편안한 얼굴을 하고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노동의 즐거움도 버린 채
오직 피리를 불면서 즐거워하면 그걸로 됐어,

청년 : 그래. 난 요즘 기분이 너무나 좋아. 이봐. 뭐해?
영감님의 눈이라도 즐겁게 해드려.

여자 : 너도 참, 영감님이 버린 공허한 삶을 내가 이어
가는 구나. 피리나 불어 줘.

청년 : 내가 너에게 해 줄 건 피리를 부는 것 밖에 없네.

여자가 원두막 밑으로 간다.

노인의 앞으로 가서 치마를 올린다.

노인이 치마 속으로 머리를 집어넣는다.

여자가 (풍성한 사람이 충분히 들어갈 정도의) 치마를
내린다.

노인이 치마 속으로 사라진다.

여자 : 개울가에서 씻고 온다는 게 깜빡 했어요. 냄새가
좀 심하죠?

노인 : (소리) 향기롭고 좋아.

여자 : 썩은 냄새가 날 텐데.

노인 : (소리) 물 향기가 나네.

여자 : 언젠는 강물이 울면서 흘러가는 소리가 들린 다
면서요.

노인 : (소리)내가 그랬나?

여자 : 기억의 저편에 숨겨 둔 종소리도 들려온다고 했
어요.

노인 : (소리) 정말. 내가 그랬나?

여자 : 예쁜 아기 사과가 열리고 있다고도 하셨고요.

노인 : (소리) 그 사과의 주인이 누군지 아냐?

여자 : 파수꾼 청년이거나, 영감님 둘 중 누군가이겠죠.

노인 : (소리) 이 사과밭 농장 주인도 널 보던 눈빛이 수
상 하던데.

여자 : 농장주인과 그의 아들들도 요즘은 날 보는 눈빛
이 만만치 않아요.

노인이 거칠게 팬티를 내리고 치마 안에서 팬티를 움켜
잡고 나온다.

노인의 눈이 질투에 불타는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여자
를 쏘아 본다.

노인 : 그럼 내가 애타게 찾았던 그 날 밤은 어디에 있
었지? 목이 쉬도록 불렀던 그 날 밤 대답없는 메

아리에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여자 : 살기 띤 그 눈빛이 너무나 무서워요. 왜요. 그 날
밤이 궁금해요?

노인 : (팬티를 보이며) 이 팬티는 도대체 뭐야?

여자 : 영감님이 손수 입혀준 내가 잃어버렸던 팬티잖
아요.

노인 : 젠장, 이 팬티가 아냐. 내가 훔친 팬티에선 이런
냄새가 나질 않았어.

여자 : 어떤 냄새가 나는데요?

노인 : 악마의 썩은 내가 났어.

여자 : 거짓말! 물 향기가 났다고 했잖아요.

이때 청년이 소리를 친다.

청년 : 아 정말! 그만! 눈뜨고 사랑싸움 못 봐 주겠네.
그만들 해!

노인과 여자가 청년을 본다.

청년 : 내가 봤어. 그 팬티는 주인이 선물한 팬티야. 그
걸 입고 나한테 자랑했잖아.

여자 : 주인이 원래 입고 있던 팬티를 입으면 싫어해.

영감님의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그리고 영감님을 언젠가는 해고 할지도 몰라.

노인이 여자를 노려보다가 이내 사과 밭으로 간다.
그리고 돌아서서 두 사람을 본다.

노인 : 사과를 딸 시간이야. 성실한 일꾼의 모습을 보여
드려야지. 삽으로 맞으면 좋겠어? 기름진 밭이
되려면 시체가 필요하지.

청년 : 영감님께 용서를 빌어. 영감님이 해고 되고, 나
까지 떠나면 어쩌려고?

여자 : 두 사람 다, 나를 버린다고? 내 뱃속에 사과가
자라고 있는데, 언젠가 사과를 낳으면, 그 어린
사과는 어찌지?

노인 : 어찌긴, 사과밭에서 사과를 따면서 삶을 노래하
면서 뼈를 묻을 때 까지 살아 야지.

노인이 무서운 눈으로 여자와 청년을 본다.

청년이 피리를 분다.

여자가 춤을 춘다.

노인 : 그 만해! 춤을 멈춰! 저기를 봐. 사과를 든 일꾼

들이 서 있는 게 안 보여? 다리가 부러진, 팔이
부러진, 눈알을 잃은, 해골이 부서진 저 일꾼들
이 안보이냐고?

청년이 기괴한 소리가 나는 피리를 계속 불고, 여자가
미친 듯이 춤을 춘다.

노인 : 그만들 하라고 했잖아! 이제 사과 대신 구덩이를
파야겠다! 내가 피리를 왜 불었는지 알아? 망령
들을 달래주기 위해서야.....

피리와 춤을 멈추는 청년과 여자의 낯빛이 두려움에 휩
싸인다.

노인 : 망령들을 위로 해주기 위해 우리는 여기에서 계
속 붙어먹어야 해! 더러운 욕망을 되새김질을 계
속 해야 한다고!!

노인이 주저앉는다.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벌린다.

5 장.

노인이 구덩이를 열심히 파고 있다. 청년 옆에서 사과를 먹으면서 지켜본다.

청년 : 목이 마른데, 사과 하나 드시고, 쉬엄쉬엄 파세요.

노인 : (개의 치 않고 땅만 판다)

청년 : 화가 많이 나셨나 봐요? 헛것이 아직도 보이세요?

노인 : 년, 원두막으로 올라가서 낮잠이나 자렴.

청년 : 제가 도와주면 안 돼요?

노인 : 년 파수꾼이잖아. 사과 받을 지켜야지. 어젠 황소같이 생긴 쥐가 나타나 사과를 다 따 먹었잖니. 망령들도 사과를 훔쳐 먹으니깐 사과가 남아나지 않지.

청년 : 정말 영감님의 말대로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지난번에 대머리 까치가 날라 왔어요. 그리고 지, 지난번엔 머리에 빨난 까마귀가 날아와 사과나무에 앉았는데, 발이 세 개나 달렸더라고요. 더구나 더욱 더 신기한 건 제 불알이 점점 커지는 거 있죠? 이러다가 수박만 해지면 어찌죠?

노인 : 불알이 커져서 좋겠네.

청년 : 그 구덩이는 매일 왜 자꾸만 파세요? 심는다고
열매도 맺는 다는 보장도 없고요.

노인 : 그래도 난, 사과나무를 심을 거다.

청년 : 사과나무를 심는 다구요? 어떤 사과나무요? 바람도 불지 않고 가뭄만 계속 되는데, 사과나무를 심다니요? 이젠 사과도 열리지 않아요. 영감님도 그랬잖아요. 이젠 망령까지 사과를 훔쳐 먹는 다구요.

노인 : 귀찮아. 저리가. 입만 살았어. 저기 사과나무 밑으로 가서 쉬던가. 오늘은 매미조차 울지 않네.

청년 : 영감님이 구덩이를 파기 시작하면서 부터, 매미가 사라졌어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아요. 귀뚜라미가 짐승처럼 울어요. 세상이 왜 이러죠? 망령이 날 뛰고, 희망조차 사라진 이 밤에서 우리가 왜 이러고 있죠? 새로운 일꾼이 온다면데요? 포 크레인으로 땅을 파내고 펜션을 짓는 다는 풍문이 돌아요. 이제 우린 여길 떠나야 하는 건 아닌가요? 평생을 주인을 위해 몸 받쳐 일한 게 영감님은 억울 안 해요?

이때, 여자가 빨간 양산을 쓰고 온다.

청년 : 양산 멋지네.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고도비만인
농장 주인이 사줬나 보구나. 기름진 뱃가죽과 사
타구니를 핏으며 사는 게 행복하나 보네.

여자 : 밀짚모자 보담 덜 낭만적이지만, 이 양산을 쓰고
있으면 태양이 날 어찌진 못해. 아니 세 상 누구
도 날 함부로 못해. 내가 아직도 뺨꾸기로 보여?

청년 : 양산을 쓰고 다녀서 그런지, 얼굴이 하얗고 부드
러워 보이네. 값 비싼 팬티만 입고 다녀? 농장
주인이 매일 파티를 하며 많은 뺨꾸기들이 흡혈
귀처럼 모여 든다며? 팬티를 입을 시간이 없겠
구나.

여자 : 맞아. 이젠 팬티를 입을 시간이 없어. 딱정벌레
돼지가 싫어해.

청년 : 하긴. 장남과 차남도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
입히고 벗기고 할 시간이 없겠구나. 내 앞에서만
벗을 때가 그래도 넌, 행복해 했는데

여자 : 두 사람이 날 버렸잖아. 아니 무시했잖아. 사과
씨를 툭 뱉듯이. 그런데 아쉬워?

청년 : 아쉽긴. 영감님만 고생이지. 저 흘리는 땀 좀
봐. 물 적신 수건이라도 갖고 오지? 안 보여?
힘들어 하잖아.

여자 : 근데, 영감님은 왜 구덩이를 저토록 열심히 파

지. 그리고 넌, 왜 여기로 내려왔어? 이제 파수
꾼이 되어서도 게을러 터졌군. 이제 더 이상 난
너의 보호막 이 아니야.

청년 : 이젠 딱정벌레 돼지한테 딱 들러붙었구나. 곧 사
모님 되는 거야?

여자 : 내가 너랑 잤다고, 내가 네 여자처럼 보여? 그러
니깐 내가 묻잖아. 영감님이 어째서 저렇게 구덩
이를 하나도 아니고 여러 개를 파는 거야?

청년 : 새로 심을 사과나무가 많은가 보지. 그리고 나
오늘부로 파수꾼이 아냐.

여자 : 뭐야? 바꿀 때는 언제고 네 맘대로 관두고 그래.

청년 : 아니. 내가 관렸어. 내가 관둬야 할 것 같아서.

여자 : 그건 왜?

청년 : 파수꾼은 영감님의 자리야.

여자 : 영감님은 구덩이를 파고 있잖아. 행복해 하는 저
모습이 안 보여? 사과나무를 심을 거라며?

청년 : 그랬지. 네가 낳은 어린사과가 여기로 오면, 아
마 저 구덩이도 그 애의 똥 일거야?

여자 : 꿈쩍한 소리 마. 그리고 다른 구덩이는 또 뭐야?

청년 : 몰랐어? 딱정벌레 돼지 놈과 일꾼 때려잡는 아
들들의 똥이지.

여자 : 세상에 저런. 그럼 저 구덩이가 무덤이라는 거

야?

청년 : 아름다운 무덤이지. 사과 받을 더욱 더 기름지게
해 줄, 어차피 요즘 들어 사과가 열리지 않아. 열
려도 더 이상 크지도 않고.

여자 : 그래서 다 죽이고 파묻고, 난 뭐지?

청년 : 넌 여기에 홀로 남아서 무덤지기가 되겠지. 파수
꾼도 네가 하고, 사과도 혼자서 따고 원두막도
네 꺼야. 넓은 사과밭도 혼자서 일궈야 하고! 그
리고 피리를 부는 연습도 좀 해야겠네.

여자 : 피리 연습을 하면?

청년 : 외로울 땐 피리를 불면 마음이 한결 위로가 돼.
그리고 욕정을 주체 할 순 없을 땐.....

여자 : 없을 땐 뭐?

청년 : 사과를 먹고, 씨를 뺀어. 그럼 그 씨앗이 자라 사
과나무가 되고, 탐스런 그 사과가 주렁주 열리
면 그걸 다시 따 먹고, 또 씨를 톳하고 뺀으면
돼.

여자 : 사과만 먹고 사과만 바라보며 그렇게 살라고?
누가 그런 법칙을 만들었어?

청년 : 영감님은 평생 그렇게 사셨어. 네가 팬티를 사과
나무에 걸어 놓지만 안 했어도 영감님은 원두막
에서 결코, 내려오지 않았을 거야.

여자 : 그래서 이제 와서 원망 하는 거야? 나보고 어찌
라고?

청년 : 네가 함부로 몸을 굴러대니깐, 이런 지옥의 시간
이 온지 몰라서 물어?

노인, 구덩이를 파다가 삼을 내려놓고 청년과 여자를
본다.

노인 : 해가 지고 있다. 방해하지 말고 숙소로 어서들
가렴.

여자 : 어머. 뭐야? 정말? 금방 떠 있던 해가 어디로 사
라졌지?

청년 : 네 가랑이 사이로 숨어들었나 보지.

여자 : (웃으며) 어쩐지 뜨겁다 했어.

노인 : 어둠이 더러움을 삼키기 전에 어서 가라.

청년 : 영감님은요?

노인 : 난 여기서 구덩이를 하나 더 파야 해.

청년 : 그 구덩이는 뭔데요?

노인 : (빙긔 미소) 뭐 인거 같아?

여자 : 혹시, 영감님의 영원한 안식처?

청년 :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영감님이 자신의
무덤을 판다고 생각해?

여자 : 넌, 그런 생각이 들지 않니?

청년 : 넌 어서 가. 오늘은 농장 주인의 장남이 너의 뺨
처럼 긴 손가락에 보석반지를 끼워주며 청혼을
할지도 모르잖아.

여자 : (눈빛이 빛난다) 그렇게 되면 난 뭐가 되지?

청년 : 그렇게 되면, 넌 이 사과 밭의 여주인이 되는 거
야. 차남의 질투도 너의 몸으로 달래 줘야 하고,
주인 놈의 질투도 한 몸에 받고 말이지.

여자 : 그럼 나는 황금 탑을 쌓은 사과 밭의 로열패밀리
가 되는 거네.

청년 : 그 로열패밀리 모두 다 이 구덩이에 황금 통이
되어 언젠가는 묻힐 거야!!

여자 : 너는 무슨 파수꾼도 아니고, 영감님의 동업자도
아니고 뭐야? 게다가 나는 너의 추억 속의 여자
로 남는 거야? 그리고 싶어서 악담을 하는 거
야?

청년 : 네가 사과 밭 주인이 되면 옛정을 생각해서 무
덤지기라도 시켜줘.

여자 : (청년에게 비웃음을 날리며) 장남의 청혼을 달빛
이 어둠을 밝힐 때 이 사과밭에서 받아 줄까? 어
떻게 생각해?

청년 : 그건 네가 선택 할 문제야. 그러니 어서 가봐, 네

눈이 보석처럼 빛나네. 이 날을 위해 나와 영감
님의 무료함을 달래주며 기다렸잖아. 이제 빠꾸
기가 이 사과밭에서 등지를 틀었네. 네가 낳은
알은, 우리에게 줘. 우리가 키워 줄게.

여자 : 네 말속엔 가시가 돋았네. 비장한 그 표정 참 우
스워 보이네. 어쨌든 갈께.

여자가 즐겁게 춤을 추면서 간다.

청년과 노인이 우두커니 서로를 바라본다.

청년 : 영감님. 옛날이 그리워요. 사과 하나 따 드릴까
요?

노인 : (청년이 사과를 주면 받아 들고 노려보다가 한
입 베어 문다)

청년 : 맛이 어때요?

노인 : (인상을 찌푸린다) 고약한 냄새가 나고, 속이 부
글부글 끓어 넘치는 군.

청년 : 예전의 사과 맛이 사라졌나 보죠? (하늘을 보며)
저주가 비처럼 내렸으면.

노인 : 분노가 포도처럼 알알이 가슴에 박혀와. 삼을 진
손에 살기가 멈추지 않아.

청년 : 세상에, 그 맑았던 영감님의 눈 속에 천둥과 번

개가 보여요.

노인 : 가슴이 답답하고 머릿속엔 태양이 뜨거워. 내가 전에 먹었던 그 사과는 도대체 어디로 다 사라진 걸까? 사과가 괴물처럼 꿈틀거리는군. 저 봐! 우리를 보고 조롱하고 있잖아! 예전의 사과는 이제 열리지 않아! 사악하고 냄새나는 사과 뿐 이야! 저 봐, 저기 저 열린 사과! 해골 같아 보여!!

청년 : 장차 이 사과밭의 여주인이 될 뼈꾸기의 가랑이 사이로 사라 진 걸까요?

노인 : 그 가랑이 사이에서 강물이 울면서 흘러가는 소리가 슬프게 들려왔어.

청년 : 뼈꾸기의 뱃속에 은밀하게 크고 있는 사과는 누구의 씨앗이 잉태가 된 거죠?

노인 : 아직도 그게 누구의 씨앗인지 모르겠어?

청년 : 그러니깐 그게

노인 : 주인의 것이든, 장남의 것이든, 차남의 것이든, 뭐가 중요해?

청년 : 그러면? 혹시

노인 : 내 씨앗 일 수도 있고 우리 모두의 악의 씨앗일 수도 있지.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구덩이를 열심히 파는 일 밖에 뭐가 또 있겠니?

청년, 두려운 눈길로 노인을 바라본다. 청년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린다.

노인 : 왜 울어?

청년 : 울고 싶어요. 영감님이 불던 피리 소리를 들으며, 치열했던 매미의 울음 소리를 들으며 뼈꾸기의 찰진 속살 깊숙이 여행을 떠났던 지난날이 그리워요. 영감님, 왜 그 팬티의 유혹을 참지 못했죠?

노인 : 내가 젊어지고 가야 할 지독한 업보다.

청년 :제가 이제 구덩이를 팔게요. 내 땀이, 내 눈물이, 내 피가! 구덩이 속에 가득 넘칠 때 까지 말입니다.

노인 :그런다고 뭐가 달라지니?

청년 :우리가 지은 죄를 누군가 용서해 주지 않을 까요?

노인 : 눈물은 닦고, 그만 여길 떠나. 밤이 오고 새벽이 올 때쯤, 자네는 여기에서 그림자처럼 사라지면 그만 이다. 어머니의 등이 더 굽어지기 전에 어서 떠나라.

청년 : 영감님은요? 영감님을 여기에 혼자 내버려 두고 저 혼자만 살겠다고 도망을 치라고요?

노인 : 싫으면 나와 같이 구덩이를 스스로 파고 싶나?

청년 : 제가 묻힐 구덩이를 파라고요?

노인 : 그 구덩이 위에 근사한 사과나무 한 구루 심어
줄게. 정말 향기로운 사과열매가 주렁주렁 달리
면, 누군가 저 원두막에서 사과를 먹으면서 파수
꾼이 되어 피리를 불겠지.

청년 : 누가요? 영감님이요?

노인 : 그 누가 됐던, 그렇게 삶은 반복이 되는 거야. 삶
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퍼붓지. 저녁연기
처럼 사라 질 삶의 끝에서 난 평화롭고 싶었는
데, 한 순간의 욕망이 죄를 낳고, 그 죄를 내 손
으로 매듭지고 싶은 오늘 이야.

청년이 눈물을 흘리고 노인을 바라본다.

노인 : 가는 길에 강가에서 너의 손을 씻고 가벼운 발걸
음으로 고향으로 가라. 네가 지은 모든 죄 까지
내가 다 가져가마. 다시는 여기로 오지마라. 여긴
내가 머물러 봐야 너의 손에 잡힐 아무것도 없
다.

청년이 노인을 와락 껴안고 있다가, 포옹을 풀고 떠난다.

보는 노인의 시선에서.

번개.

천둥소리.

6 장.

무대엔 무덤이 있고, 그 무덤위에 사과나무가 심겨져 있다.

그 사과나무에 물을 주고 있는 청년.

긴 드레스처럼 드리운 치마를 입고, 화려한 양산을 쓰고 나오는 여자.

청년 : 아, 점점 뱀 꼬리처럼 우아하고 긴 치맛자락이 어울려요. 사과밭 주인님 어서 오세요.

여자 : 그래. 보인다니 다행이네. 수고가 많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야? 우리밭에서 수확한 사과 맛이 영 형편이 없다던데? 이러다가, 빗만 들어가고 언젠가는 이 사과밭이 남의 손에 넘어가면 어쩌지? 새 일꾼을 좀 뽑으려고 하면 내가 반대해서 여태껏 미루고 있잖아.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닌가? 최후의 일꾼인 당신 생각은 어때?

청년 :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이 사과나무 보이시죠?

이 나무가 자라면 사과밭을 지킬 수 있을거예요.

여자 : 어째서? 그 아래 조용히 숨을 쉬고 누워 있는 그

자가, 누구였더라?

청년 : 벌써 잊었어요? 한 때 주인님을 사랑했던 영감

님이잖아요.

여자 : 아, 그랬지. 세상은 신기한 일들이 많이 벌어 질

거라고 했지. 하긴 빼꾸기 소리나 팔아먹던 내가

이 애플 가든의 주인이 되다니. 신기하지 뭐야.

더구나 영감님 무덤 위에 사과나무를 심었으니,

특별한 맛이 나는 사과가 열리길 기대 해야지.

농장 입구에 멋진 간판을 좀 내 걸지 그랬어?

청년 : 걱정 마세요! 멀지 않아 정말 육즙이 짙 차고 알

이 굵은 속살이 눈부신 사과가 분명히 열릴 거라

고 저는 확신을 해요!

여자 : 하지만, 장남과 차남과 주인이 묻혔던 구렁이에

서 자란 사과나무 때문에 우리가 겪었던 지난날

의 고통을 넌 잊었니? 사과를 한 입 베어 먹으면

무슨 소리가 들렸는지 알아?

청년 : 악귀에 찬 비명소리요?

여자 : 그래, 비명소리 뿐만이 아니야. 장남 사과나무에

서 딴 과일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

청년 : 장남이 끼워준 그 보석반지가 구더기로 변했다면서요? 더구나 차남이 몰래 선물한 목걸이는 뱀으로 변해서 목을 밤마다 조른 다면서요. 게다가 뱀처럼 생긴 귀신들이 응월가를 부른다면서요.

여자 : 요즘 매미 소리는 그들의 아비규환처럼 들리는구나.

청년 : 근데, 장남과 차남과 농장 주인을 누가 구덩이에 파묻었대요?

여자 : 몰랐어? 영감님이 손수 하셨잖아. 내가 구덩이에 들어 갈 순간, 네가 날 구했어.

청년 : 제가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난 강가에서 손을 씻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내가 주인님을 구했다니요. 정말 내가 주인님을 구한 거 맞아요? 아무리 세상이 신기한 일이 너무나 많이 벌어져도 그랬죠. 나와 같은 쌍둥이가 있지 않고서야 어째서 그런 일이!

여자 : 몰랐어? 그 누구도 아닌, 네가 영감님의 머리를 삼으로 후려쳤잖니. 그때, 바람도, 태양도 사라지고, 세상은 온통 검게 변해갔지.....

청년 : 제가 그랬다고요? 전 그 날 밤 여기에서 떠났다고요. 영감님이 그림자처럼 사라지라고 해서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날 모함 하는 겁니까?

여자 : 그땐 네가 정신이 나갔지. 그렇게 존경했던 분을
삼으로 쳐서 영감님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진 모습을 보다가 넌 미쳐서 날 뛰었어. 그
리고 날 올라탔어. 게다가 우린 영감님이 누워
있는 구덩이 옆에서 아침이 밝아 올 때 까지 그
짓을 되풀이 했어.

청년 : 뭐야? (손을 들며다보며 떠다) 내가 그런 짓을
했다니. 무서워 저요. 아무리 생각해도 꿈같이
느껴져.

여자 : 꿈을 꾸는 사람은 네가 아니고, 영감님이야. 봐.
숨소리가 들리 질 않니?

청년 : (노인의 무덤에 귀를 기울인다) 그러게요. 코까
지 골면서 자는 가 봐요.

여자 : 영감님이 우리의 사악한 죄를 모두 삼키고 우릴
구원해 줄 거라 믿어.

청년 : 정말 그렇게 생각 하세요?

여자 : 너는 영감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 했는지 모르
는 구나.

청년 : 왜 모르겠어요? 난 그 분의 깊은 뜻을 알아요.
아마도 정말 맛있고 달콤했던 예전의 그 순수한
향기가 나던 사과를 열리게 해 줄 거라고 믿어

요.

여자 : 그렇게만 된다면, 사과 받이 남의 손에 넘어가진
않겠구나.

청년 : 영감님이 묻힌, 이 사과나무가 우리를 구원해 주
리라고 믿어요.

여자 : 나도 그렇게 되길 믿고 싶구나.

청년 : 그래서 난 특별히 이 사과나무에 정성을 기울이
고 있어요.

여자 : 그런데 뱃속에 있는 아이 말이야.

청년 : 전에 주인과 그의 장남과 차남이 구두 발로 걷
어차서 유산 되었다면서요?

여자 : 아니.

청년 : 그럼요?

여자 : (불쑥) 영감님이 가져갔어.

청년 : 아기를 요?

여자 : 아니. 사과를!

뭔가 여자의 정신 상태가 분열과 환각 상태로 빠진다.

청년 : 아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자 : 너는 모르겠지만, 영감님이 분노에 찬 얼굴로 죽
인 농장주인 늑과 장남과 차남을 차례로 구덩이

에 처넣고 그 무덤위에 사과나무를 심으면서 나
에게 물었어.....

청년 : (놀라서 보며) 뭐라고요?

여자 : 구렁이에 들어갈래? 어린 아기 사과를 낳을래?
하고, 간절한 눈빛으로 하고서.....

청년 : 그래서요?

여자 : 그 순간, 난 너무나 놀란 나머지 나도 모르게 뭇
가를 쭈욱, 낳았어!

청년 : 아기를?

여자 : 아니, 사과를! 너무나 아름다운 사과를! 아기의
볼처럼 빨간 사과를 낳았어.

청년 :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신기한 일이 영
감님의 말대로 일어났군요.

여자 : 이 사과밭에서 벌어진 거야. 그 땐 난 보았어. 내
가 방금 낳은 사과를 영감님이 손에 쥐고서, 볼
에 부비면서 너무나 기뻐서 끝도 없이 울었어.
그 눈물이 흐르고 흘러 내가 들어 갈 구렁이에
눈물이 출렁거릴 정도로 가득 찼어.....

여자, 뭔가 슬픔이 차오르는지 급격하게 흥분을 하고
눈물도 흘린다.

청년 : 그래서요?

여자 : 그리고 그 어린 아기 사과를 푸르고 빛나는 구덩이 물 위에 던졌어.

청년 : 세상에. 그래서요?

여자, 점점 정신이 쭈욱 빠져나간 것처럼 횡설수설 한다.

여자 : 어린 아기 사과는 출렁이는 눈물 위에 누워 나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

청년 : 세상에!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 진 거죠?

여자 : 나도 모르게 그 사과에 손을 뻗을 순간, 노인이 내 목을 잡았어. 그리고 내게 말했어. 사과를 입에 물어! 하고 말이야

청년 : 그래서 물었어요?

여자 : 나도 모르게 꼭 물었어. 내 몸 전체가 아픔으로 울었어!

청년 : 세상에 자기가 낳은 사과를 그렇게 잔인하게도 물었다고요?

여자 : 한 입 베어 물 순간, 사과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울음소리를 냈어!

청년 : 세상에!

여자 :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엄마! 엄마! 하면서, 그때 난 영감님의 얼굴을 봤어. 천사처럼 웃고 있었어. 커다란 짐을 내려놓았다는 안도의 한숨을 보았어.

여자가 미친 듯이 웃는다.

청년은 당황한 기색, 이어 뭔가 생각을 하다가

청년 : 그때 내가 어디선가 슈퍼맨처럼 나타나 영감님의 머리를 삼으로 내리쳤고, 주인님을 구했 다는 겁니까?

여자, 정신이 드는지 미소를 지으며, 청년을 사랑스럽게 바라본다.

여자 : 그랬어. 그래서 난 이렇게 너 앞에 웃고 서 있잖아. 네가 날 구원 한 거야. 아니었으면 나도 사과밭의 거름이 되어 사과 꽃을 피웠겠지.

청년 : 정말 거짓말 같은 기적이 일어 난거네. 이렇게 해서 우리의 더러운 삶은 계속 이어져 가는건가?

여자 : 다 지나간 슬픈 추억이야. 우리 원두막으로 올라

가서 어때?

청년 : 거긴 영감님의 체취와 흔적이 남아있는 파수꾼 자리야.

여자 : 내가 이 사과 밭의 주인이야. 이젠 아무 눈치 볼 사람도 없어. 우리 둘만의 행복한 시간이 지겨울 정도로 쌓여 있어.

청년 : 그냥. 원두막 밑에서 예전처럼 하면 어때요?

여자 : 두려워?

청년 : 마음이 춥고 떨려. 태양이 펄펄 끓어도 난, 몹시 추워. 그리고 옛날처럼 뻔뻔하게 그 짓을 하는 것도 두렵고, 심장이 소금에 절여진 것처럼 가슴이 아파와.

여자 : 영감님은 우리가 하는 짓을 늘 지켜보면서 즐거워 하셨어.

청년 : 그래서 내가 죽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영감님이 지켜보는 무덤 앞에서 하자고?

여자 : 뭐가 어때서? 욕망의 전차를 타고 즐기다가 지옥의 정거장에서 내리면 되지, 뭘 두려워해?

청년 : 땅에 묻힌 거룩하신 고인 앞에서 이걸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니잖아.

여자 : 너, 내가 싫어? 내가 누구야? 혁명 여 전사처럼 보여?

청년 : 쓰레기들을 묻고 사과밭의 영원한 주인님 요.

여자 : 이제 부터 여왕님이라고 불러.

청년 : 여왕님! 여왕님! 최후의 일꾼으로 살아남은 나
혼자만의 빼꾸기 여왕님!

여자 : 그러니깐, 앞으론 내가 법이야. 내가 하자고 하면 넌 따르면 돼.

청년 : 그럼 무덤 앞에서?

여자 : 매미 소리가 늑대 울음소리로 들리고, 쥐머리를 한 고양이가 사과를 훔쳐 먹는 세상이야. 도대체 제대로 된 게 뭐가 있어? 영감님도 우리가 무덤 앞에서 하면 좋아하실 거야.

청년 : 정말 신기하다 못해, 별 이상한 일들이 올해는 유난히 많이 일어나. 사과나무가 뱀처럼 구불구불 하게 자라는 게 별 이상할 게 없어. 몸이나 팔던 네가 여왕님이 된 것도 별 이상할 것 없지.

여자 : 네가 영감님을 죽였는지 안 죽였는지도 별 이상할 것도 없지. 이리와.

여자가 풍성하게 폭이 넓은, 좀 짧아진 치마를 올린다.

청년이 여자의 치마 속으로 고개를 집어넣는다.

여자 : 영감님과 추억이 있었어.

청년 : (소리) 무슨 추억?

여자 : 은밀한 추억.....

청년 : (소리) 은밀했다는 말에 질투가 좀 나긴 하지만,
괜찮아.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지?

여자 : 내가 흥분하면, 영감님이 어떻게 해결 한지 알아?

청년 : (소리) 시든 강아지풀로 과연 가능 했을까?

여자 : 사과를 한 알 씩 처박았어.

청년 : (소리) 세상에? 사과를 은밀한 그곳에? 그래도
기분 좋았어?

여자 : 가끔은 두 개! 세 개! 다섯 개를! 차례로 넣었
지.

청년 : (소리) 그래서? 주인님이, 장남이, 차남이, 차례
로 널 떠났구나.

여자 : 그렇게 어느 날인가 부터 쾌감을 잊어 버렸어.

청년 : (소리) 저런. 몸쓸 짓을 했네. 너의 침대의 즐거
움을 빼앗아 가 버렸네.

여자 : 영감님은 날 사랑한 거지. 너무나 날 지독하게
사랑을 했었던 거야.

청년이 치마 속에서 고개를 내민다.

질투가 서린 눈빛이다.

청년 : 그래서?

여자 : 뭐가 그래서야? 날 그렇게 사랑을 한 거야. 그것도 부족해, 나와 즐겼던 사과 밭 벌레 새끼들을 망설임도 없이 물어 버렸고, 널 고향으로 떠나게 한거지.

청년 : 영감님은 너무나 날 사랑했었어.....

여자 : 영감님의 영양분을 빨아 먹은 사과나무에 향기롭고 순수한 열매가 열리면 그걸 가랑이 사이에 넣어줘.

청년 : 점점 머리가 이상해져가, 미친 거야? 왜 그래? 정말 그러고 싶어?

여자 : 이젠 사과 외엔 아무런 느낌도 없어.

청년은 뭔가 혼란이 오는지 킬킬 거린다.

청년 : 어쩐지, 네 가랑이 사이에서 울면서 흐르는 강물 소리가 들리더라.

여자 : 그랬어? 내 가랑이 사이에서?

청년 : 그리고 영감님이 너의 꽃잎을 밀치고 고개를 내밀더라.

여자 : 세상에 그래서?

청년 : 뭐가 그래서야. 아주 공손하게 인사를 했어.

여자 : 영감님이 인사를 했다고?

청년 : 그래. 자비로운 미소를 짓고 나를 보더군.

여자 : 이젠 내 가랑이 사이를 지켜 주는 수호신이 된 거네.

청년 : 내가 손가락으로 너의 거길 만지려고 하니깐 이 빨을 들어 낸 악마처럼 내 손가락을 깨물려고 하더라.

여자 : 어머니, 난 이제 볼 장 다 본 거네.

청년 : (킬킬 미친 듯이 웃으며) 네 몸은 이제 네 몸이 아니야. 영감님과 자옹동체가 되어 버렸네.

여자 : (웃는다) 세상의 저주가 내 몸에 강림 하셨네. 아, 어쩌면 좋아, 어쩌면 좋지?

청년과 여자가 미친 듯이 웃는다, 마치 환상처럼 이때 노인이 아이의 손을 잡고 등장한다. 여자와 청년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본다. 노인의 모습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신비한 느낌을 준다.

여자 : 뭐야? 영감님이 무덤에서 저주도 부족해서 부활을 하다니!

청년 : 세상에! 이런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다니. 영감님 이네. 영감님! 이런 기막힌 일이 일어나다니요?

노인 : 왜 그리 놀란 눈으로 보는 거야. 잠깐 여행 좀 다녀왔는데, 무슨 일이 일어 나기라도 한거야?

청년과 여자는 노인의 모습이 현실처럼 동화 되어 간다.

여자 : 세상에나 손을 꼭 잡고 있는 그 맑은 눈빛의 아이는 누구죠?

노인 : 누구?

여자 : 지금 옆에 손잡고 있는 애요. 뽀 같은 눈빛이 어두운 밤 별빛 같네.

노인 : 사과를 하나 뺏다.

청년 : 영감님이 손을 잡고 있는 게 아이가 아니라 사과라니요?

노인 : 우리 모두와 닮아 보이는 거 같지 않느냐. 우리의 지은 업이다.

청년 : 영감님. 요즘 왜 그러세요? 파수꾼 자리도 소홀이 하시고 여행이나 하시고, 피리도 부르시지도 않고 뭐하는 겁니까?

노인 : 사과를 따오잖니. 우리가 뿌린 악의 씨앗이 자란 죄의 열매를 매일 거두고 있잖니.

여자 : (아이가 마치 보이는 듯) 아가. 내가 누구니? 내

가 누구인거 같아?

노인의 손에 든 사과를 보며, 여자는 마치 아기를 보는
듯 말을 건다.

여자 : 어머니, 이걸 어째? 땅 속 깊은 곳에서 얼마나
답답했겠니? 목이 마른 가 봐..... 엄마가 맛있
는 사과를 따주라?

청년, 혼란한 정신을 수습하려 애를 쓴다.

청년 : 여왕님마저 왜 이러세요? 영감님 망령이 나타난
거예요, 우린 지금 헛것을 보고 있잖아요.

여자 : (아직도 환상 속에 젖은 채) 넌, 이 아름다운 사
악한 눈빛을 가진 아이가 안 보여?

청년 : 우리가 어찌다 이렇게 된 거죠?

여자 : 원두막으로 흰옷을 입고 빛이 나는 모습으로 오
르는 영감님이 안 보여?

청년 : 아이도 보여요?

여자 : 영감님 손에 빛나는 저 사과를 보고도 넌, 그런
소리를 하는 거냐?

청년 : 뭐야? 다들 미쳤어. 미친 거야.

여자 : 너는 정신이 멀쩡해? 사과밭을 지켜 줄 수호신
이 어린 동자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를 지켜주려
고 왔는데, 환영인사 치곤 너무 한 거 아냐?

청년 : (황망히 여자를 보다가 펄쩍 미소를 짓고) 하긴,
그렇죠? 제가 너무 마음이 좁았나 봐요. 그래요.
이제 영감님이 돌아 왔으니, 저 무덤은 없애 버
려야지요?

여자 : 그대로 나 뒤. 사과나무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
힐 때 까지.

노인 : (원두막에 앉아서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다)
그래 피리 소리를 듣고 싶은 거로구나.

청년과 여자가 원두막을 본다.

노인 : 잠이 오나 보구나. 이런 어찌지? 매미가 울면 이
거 큰일인데.

소나기처럼 갑자기 매미의 소리가 불협화음 소리로 변
조가 되어 악귀에 찬 비명소리가 들려온다.

여자와 청년이 몸서리가 쳐지는 지, 귀를 막고 주저앉
는다.

7 장.

원두막으로 귀의한 것처럼 노인이 무념무상으로 앉아
피리를 불고 있다.

그 피리 소리 맑고 청아하게 무대 전체를 퍼져 나간다.
여자가 단아한 한복 차림으로 홀연히 나온다.

여자 : 달이 참 밝아요. (아이가 눈에 보이듯) 어머, 넌
누구니? 왜 사과 밭에서 뛰어 놀고 있니? 뭐? 피
리 소리에 취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고? 저런,
이리 와라 아가야. 네 아빠는 누구니? 뭐라고?
너무 소리가 작잖니? 뭐? 사과나무라고?

청년이 나와서 여자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청년 : 언제나처럼 나무는 변함없이 서 있었어. 영감님
은 나무야. 죽어서 나무로 돌아간 거야. 그래서
영원한 거지. 우리의 쓰레기 더미 탑처럼 쌓인
에고를 가져 간 거야. 먼저 가서 구원의 문을 노
크하러 간 거지.

여자 : (청년을 본다) 누구? 나? 너?

청년 : 우리 들 모두 다.

노인이 피리를 불고 있다가 멈춘다.

노인 : 별이 맑구나. 잠이 오지 않느냐?

여자 : 아이랑 놀아주고 싶어요.

노인 : 그래, 하나처럼 보여서 참 좋구나.

청년 : 보기에 좋다니, 너무나 감사해요.

노인 : 날이 밝아오고 아침이 오면 햇살에 잘 익은 사과
하나 따서 그 아이에게 먹이렴.

청년 : (눈물이 흐른다) 영감님. 네 그렇게 할게요. 세상
에서 제일 비싼 사과를 먹일 거예요.

여자가 아이의 볼에 자신의 볼을 부비며 행복해 한다.

여자 : 아, 이런 느낌이었어. 이런 행복, 아, 정말 이런
거였구나.

청년이 다가와 여자를 안아 준다.

청년 : 이 모든 게, 꿈 일거야.

여자 : 아냐, 꿈이 아니야.

청년 : 우리가 그토록 꾸고 싶었던 꿈을 꾸고 있는 건
가?

여자 :아냐, 꿈이 아냐. 이 아이의 눈빛을 봐.

청년 :사과를 닮았네.....

여자 :그래 사과.....

청년 :영감님이 주고 싶었던 게 이런 걸까?

여자 :그랬을 거야.....

청년 :그래, 아마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과를 우리에게 준 거야. 우리의 모든 욕망과 고통을 아
프게 껴안아 준 거야.....

노인, 홀연히 원두막에서 내려와 아이의 손을 잡고 꿈
결처럼 사라진다.

청년과 여자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이내 울음이 왈
각 쏟아지고 애써 감내한다.

에필로그

화사하게 햇살이 비쳐드는 사과 밭.

흰옷을 입고 머리가 길어진 노인이 꿈꾸다 일어난 것처
럼 멀리 사과 밭을
바라본다.

자신의 무덤위에 심은 사과나무에 꽃이 활짝 피었다.

사과나무는 휘어진 게 아니고 하늘을 그리워하듯 손을

뻗친 듯 바르게 서있다.

그 사과 꽃에 흰 나비가 와서 앉는다.

매미 소리가 파도가 밀려오듯 무대를 휘감아 돈다.

노인이 조용히 눈을 감는다.

매미 소리가 일순 사라지고

긴 침묵에 이어서

환청처럼 가쁜 호흡 소리가 묘한 하모니를 이루며 아름다운 소리로 변형을 이룬다.

노인이 일순, 눈을 번쩍 뜬다.

붉은 사과를 집어 들고, 문득 한 입 베어 문다.

노인 : (입가에 육즙이 흐른다) 오늘 따라 사과 맛이 너
무나 좋구나.

땀처럼 구불구불하게 자란 사과나무 사이로 노인의 무덤 위엔 사과나무가 곧게 등을 펴고 서 있다.

그 나무아래 단 잠에 빠져 있던 청년과 여자가 일어나 손을 잡고 명상의 자세를 취한다.

사과나무에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사과 꽃이 피어올랐다.

어디선가 바람이 불어오고, 오랜 가뭄 끝에 비가 후드

득 떨어진다.

바람 소리

비 소리 만.

이어서 청아하고 맑은 가슴을 시리는 피리 소리 구원처럼 들려온다.

〈幕〉

제6회 **독도문학상** 수상 작품집

• 본상 부문

| 수필 부문 |

익어간다는 것



조 윤 수
(전라북도 완주군)

2003년 『수필과비평』으로 등단
2007년 제4회 KBS〈아름다운 통일〉 작품공모전 동상 수상
2010년 제3회 행촌수필문학상
2010년 제7회 국제환경페스티벌 글짓기 장려상
2011년 제1회 대한민국 독도문예대전 입상저서
저서『바람의 커튼』, 『나도 샤갈처럼 미친(ㅈ) 글을 쓰고 싶다』
『명창정계(明窓淨几)를 위하여』

익어간다는 것

조윤수

온 집안이 차향으로 가득하다. 때마침 재스민 꽃이 피고 있을 때, 꽃 향이 얼굴을 어루만지듯 스치며, 푹푹한 차향을 피워낸다. 오늘 한나절 따온 찻잎을 마루에 한가득 깔아놓았다. 싱그러운 생잎을 재스민 꽃바람으로 우려마시는 기분이다. 고요히 차향에 마음을 담그면 다신(茶神)에 대한 은혜가 새록새록 피어난다.

차유진향(茶有眞香), 유난향(有蘭香), 유청향(有清香), 유순향(有純香), 이렇게 차에는 네 가지 향이 있다고 했다. 겉과 속이 한결같으면 순향, 설익거나 과숙(過熟)하지 않으면 청향, 불기가 고루 머물면 난향, 곡우 전 신기를 갖추면 진향이라 한다. 해마다 서툴게 차를 빚으면서 느끼는 것은, 차와 하나 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찻잎은 뜨거운 가마솥에서 온전히 자신을 죽여 도통 다른 몸으로 거듭나는가 하면, 자신의 모습을 일그러트리며 발효 과정을 거쳐 신비한 풍미를 지닌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

사람은 아이일 적에는 성의 구분 없다가 성장하면서 남아는 남자다워지고, 여아는 여성스러워지는 것 같다. 잘 우려진 녹차를 마실 때 첫 잔의 맛을 아리팝고 여리고 부

드러운 열세 살이요, 둘째 잔은 벽옥 같은 십 오륙 세요, 셋째 잔은 익은 맛이라고 옛 다인들은 말했다. 익은 맛이란 서른 살 이후 여인의 맛일까. 그 뒤의 잔은 늙은 맛이고 목마름을 달래기도 하고 다른 용도로 쓴다.

오늘 부려놓은 찻잎은 아직 차의 역할에 미치지 못하는 것만, 가능성이 충분한 아이들이다. 하룻밤 시들면 발효하기 시작한다. 발효차는 발효가 진행되는 농도에 따라 다양한 풍미를 지닌다. 기호에 알맞은 향이 풍겨 나올 때쯤 발효를 멈추면 된다. 전문 시설이 있다면 더욱 좋은 차를 만들 수도 있겠지만, 형편대로 소박하게 할 뿐이다. 차가 발효하는 동안 찻잎은 형태가 여러 차례 변하면서도, 고유한 자신의 향은 간직한 채, 때마다 다른 묘미로 승화되어 간다. 여리게만 되던 찻잎이, 자신의 형체를 변화시켜 그토록 그윽한 향을 낼 수 있음이 신비스럽다.

젊었을 때는 스승에게 차를 배우고 같이 차(茶) 일을 하였다. 다른 생각을 할 여유도 없이 그 일에 파묻혀 지내던 시절이 있었다. 내 인생에 영향을 주었던 사람이 몇 분 있는데, 스승이자 도반이었던 차(茶) 스님도 그중 한 분이었다. 차를 배우면서부터 한 단계 더 높은 삶을 살고자 했던가. 차의 길이 본래면목을 찾기 위한 수행의 도구였을까. 중년에 들어서자 다도의 길을 주위의 벗들과 전하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낙원의 환경을 만들자는 모임에서 활동

하기도 했다. 네 가지 향이 고루 벤 녹차는 완성해보지도 못한 채, 이제는 발효된 차 맛이 내 마음과 몸에 달갑게 어울리는 것 같다.

저 풋풋한 생잎을 보니 내게도 저렇듯 싱그러운 시절이 있었던가 싶다. 생기발랄했을 아이 때에 전쟁의 소용돌이를 겪었다. 혼란스러운 현대사를 관통하면서 안개 자욱한 길도 지나왔고, 희미한 한 줄기 빛에 희망을 걸고 어두운 터널도 걸어 나왔다. 힘겨운 세월을 건너고 삭히는 동안, 나에게는 어떤 결 맛이 쌓였을까. 분명히 내게도 꽃다운 시절이 있었겠지만, 과연 제 맛을 품어왔는지 모르겠다. 뒤돌아보니, 십삼 세까지는 아이였다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여성으로 성장해간 것 같다. 대학 시절은 청춘을 꽃피운 시기였는데, 청년 시기에 익히고 배워야 할 덕목을 다하지 못하였기에 늙도록 철없는 배움을 멈추지 못하는 것 같다. 결혼하여 아이를 낳고 기르면서는 온전히 어머니로 살았다. 어느 정도 아이가 큰 뒤부터 세상에 눈 뜨기 시작했다. 부모로서 살아야 하는 일은 사회적 일원의 책임도 따른다는 인식이 새롭게 다가왔다. 여자도 이제는 남자와 함께 인간으로 성숙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여성스러운 인간 말이다. 이렇게 내 삶의 단계는 배우고 익으며 변모를 거듭해오지 않았나 싶다. 청년기는 여자아이로, 성숙의 시기는 어머니의 삶으로, 그리고 인

간의 삶으로…….

사람의 얼굴과 표정이 다양하듯, 속에 지닌 인격과 정서도 각양으로 나타난다. 차를 뒤을 때 한 잎이라도 타면 온 술을 못 쓰게 된다. 모처럼 좋은 녹차도 간수를 잘못하면, 해가 되기도 한다. 차의 발효 과정을 두고 보더라도, 잘못 발효된 차는 원하지 않은 냄새로 비위에 거슬린다. 과정이 중요한 만큼 차는 내버려두지만 않으면 배반하지는 않는 것 같다. 가끔 내 인생의 발효는 어느 정도일까? 스스로 물어본다. 뒤 익기(後熟)가 잘된 좋은 보이차를 만나면 마실 때는 별 향미가 느껴지지 않지만, 마신 뒤 은근한 향이 입안에 머문다. 인생도 그렇게 깊이 발효된다면, 무미(無味)하나 여운이 오래 남는 향긋한 맛을 낼 수 있을까.

생각해보니, 차를 경영하는 일이 인생을 경영하는 일이었다. 차 만드는 일은 정성스럽게, 갈무리할 때는 건조하게, 끓일 때에는 청결하게 해야 한다. 정성스럽고, 잘 말려 습하지 않게, 청결하게 하면 다도(茶道)는 다한 것이다. 삶의 경영이 녹록하지 않을지라도 담담히 나아가는 것이, 인생을 살아내는 맛이 아닐까. 이제야 겨우 다도에 입문하는 것 같은데, 가야 할 길이 먼 것 같다. 비록 육체의 맛은 넉 잔째 우려낸 뒤의 노(老)한 녹차 맛이지만, 정신은 끊임없이 발효하여 성숙의 경지에 이르기를 소망한

다.

사이후이(死而後已), 있는 힘을 다하여 여생에 힘쓸 일이다. 찻잎이 익어가는 달금한 향이 집안에 가득하니, 이런 절후 같으면 더 바랄 게 없다. 이제 조용히 차가 지닌 성품대로 차 생활을 즐기는 일만 남지 않았는가. 목마르면 차 한 잔, 졸리면 잠 한숨, 그것으로 모자람이 없으련만…….

제6회 **광주문학상** 수상 작품집

• 본상 부문

| 동시 부문 |

가 을



조 영 일
(광주광역시)

광주출생. 서라벌예술대학교 문예창작과. 조선대학교대학원 국어
국문학과 졸업.

1983년 <월간문학> 동시 등단. 「광주학생의 노래」가사 공모당선
동시집 / <짜꿍의 편지>외 6권 시집/ <생일에 쓴 편지> <그리운
추억>

동시 '짜꿍' 초등학교(3-2) 국어 교과서 수록.

광주문학상. 한국이동문학작가상. 한국이동문학창작상. 문학춘추
시인상

가을

조영일

고추밭의 고추들
빨간 고추 내놓고

울타리 밑의 호박들
오목 배꼽 내놓고

지붕위의 박 덩이들
허연 배통 내놓고

햇볕 즐기며
잠자는 길 보았는지

잠자리
고추잠자리
얼굴 빨개졌다네. 그저 시큰둥하다.

제6회 **문학평론상** 수상 작품집

• 본상 부문

| 문학평론 부문 |

송재학 시에 나타난 죽음 이미지 고찰



이 병 철
(서울시 관악구)

1984년 서울 출생.

2006년 강원일보 신춘문에 가작

2014년 시인수첩 신인상으로 등단

명지전문대, 서울과기대 문예창작과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 문예창작학과 석사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 재학 중

「송재학 시에 나타난 죽음 이미지 고찰」

이병철

—『내간체를 얻다』¹⁾에서 죽음을 그리는 송재학의 수사
법과 장례의식에 대하여

I. 현실의 검은 심연을 껴안다

송재학은 현란한 수사를 통해 낯설고 새로운 이미지들을 선명하게 그려냄으로써 탄탄한 미적 완결성의 시 세계를 성취해온 시인이다. 동사와 형용사들을 부리며 집요하게 시어를 조탁하는 그의 시 작법은 마치 사제의 제의(祭儀)나 세공 장인의 작업을 연상시킨다. 김양현은 송재학의 시 세계를 “격렬한 수사와 격렬함이 거느리는 이미지의 중층 구조가 툭툭이 쌓인 스스로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폭발하고 무너져 내면세계로 끌려드는 언어의 회오리”라고 진단한 바 있다.²⁾ 화려하고 단단하지만, 자칫 수사에 대한 강박과 이미지적 완결성에 대한 집착으로 비춰질 수 있는 송재학의 시 세계는 의미의 모호성 즉, 수사와 이미지라는 외피의 화려함으로 내부의 혼란과 무질서 또

1) 송재학, 『내간체를 얻다』, 문학동네, 2011.

2) 김양현, 「비선형적 나비 무늬를 따라가다」, 『그가 내 얼굴을 만지네』해설, 믿음사, 1997, 62쪽.

는 공백을 감추고 있다는 혐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왔다. 송재학 시가 지닌 이미지의 율창함을 우려하는 견해들의 근거는 시인은 시를 통해 명료한 의미를 전달해야한다는 것인데, 옥타비오 파스의 이미지론(論)이 송재학을 위한 변으로 적합할 듯하다. “이미지는 진정성을 갖는다. 이미지는 시인이 본 것이며 들은 것이고, 세계에 대한 시인의 비전과 경험에 대한 진솔한 표현이다. 이미지는 심리학적 차원의 진리를 다루는 것이며, 논리적인 문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이미지들은 그 자체로 유효한 객관적 실재를 구성한다. 즉, 시적 이미지들은 스스로의 논리를 가지며, 이미지들은 작품이다.”³⁾

『내간체를 얻다』에서 송재학은 앞서 언급된 혐의를 벗고자 한다. 아니, 그 혐의를 씌운 이들에게 그것을 제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내 시의 안팎이 풍경만이 아니고 상처의 안팎이기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시인의 말」부분

송재학은 자신의 시 세계가 ‘풍경’으로 함의되는 수사
와 이미지만이 아니고 ‘상처’라는 실존적 경험, 거기 내

3) 옥타비오 파스, 『활과 리라』, 김홍근·김은중 역, 숲, 1998, 141~142쪽.

재되어 있는 다양한 의미들이었으면 좋겠다고 고백한다. 그것은 자신의 시적 스타일의 변모나 전향에 대한 예고 또는 지향 의지가 아니라 자신의 시가 늘 풍경만을 그려 온 것 같지만 실은 그 풍경 속에 상처들을 품고 있었다는 항변, 이제 그 상처들을 읽어달라는 주문으로 들린다. ‘상처’에 대한 시인의 시선은 이 시집에서 실존적 고통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죽음’에 가닿아 있다. “송재학은 현실의 검은 심연을 꺼안는다. 그 심연을 응시하는 눈을 통해 현실의 육체성을 해부해가면서 육체의 슬픔을 넘어선 죽음의 세계를 본다. 그는 죽음의 응시를 통해 새롭고 치열한 인식의 눈이 열릴 수 있기를 갈망하는 시인이다.”⁴⁾ 라는 우찬제의 말처럼, 송재학은 이 시집을 통해 ‘죽음’이라는 하나의 관념이자 고루한 풍경이 새로운 시적 오브제(object)로 인식될 수 있도록 ‘아름다움’이라는 가능성을 부여하고 있다. 그것은 죽음에다 수사로 이미지를 입혀 죽음의 모습을 전혀 새롭게 재창조해내는 것인데, 죽음을 치장한다는 점에서 송재학의 수사는 일종의 장례의식(葬禮儀式)이나 마찬가지로, 역으로 다양한 형태의 장례의식들은 죽음에 대한 수사이자 이미지가 되는 것이다. 송재학은 죽음을 주제로 한 시편들에서 죽음에 여러 이미지를 씌움으로써 장례의식을 행하는 장의사 또는 사제의

4) 우찬제, 「절망의 검은 심연, 노래의 푸른 이랑」, 『푸른빛과 싸우다』해설, 문학과지성사, 1994, 84쪽.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시인의 말』에서 시인이 요청한 ‘상처에의 주목’, 즉 ‘죽음 읽기’를 수용하여, 본고는 ‘장(葬)’ 연작 시편들을 비롯해 ‘뺨’, ‘적석목관분’, ‘로드킬’, ‘주검’ 등 죽음에 대한 환유와 상징의 시어들이 가득한 이 시집에서 시인이 죽음에 어떻게 아름다움을 부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거기 드러난 적잖은 형태의 장례의식들이 또한 죽음을 수식하는 모습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수사의 방식과 시에 전개된 이미지들의 특징을 주로 분석, 시인의 장기인 화려한 수사와 이미지가 죽음을 얼마나 새로운 풍경으로 바꾸고 있는지, 죽음을 그리는 송재학의 수사법에 대해 논하는 한편, 시편들에 나타난 장례의식들의 양상을 짚어 볼 것이다.

Ⅱ. 죽음을 그리는 수사법

1. 시각·청각 이미지

사막의 모래 파도는 연필 스케치 풍이다 모래 파도는 자주 정지하여 제 흐느낌의 상(像)을 바라본다 모래 파도는 빗살무늬 종종걸음으로 죽은 낙타를 매장한다 모래장(葬)을 건디지 못하여 모래가 토해낸 주검은 모래 파도와 함께 떠다닌다 모래 파도는 음악은 아니지만 한

옥타브의 음역 전체를 빌려 사막의 목관을 채운다 (중략) 모래가 건조시키는 포르말린 뼈들은 작은 노(櫓)처럼 길고 넓적하다 그 뼈들은 모래 속에서도 반음 높이 노를 저어 갔다 뼈들이 닿으려는 곳은 모래나 사람이 무릎으로 닿으려는 곳이다 고요조차 움직이지 못하면 뼈와 노는 증발한다 물기 없는 뼈들은 기화되면 이미 내 것이 아니다 너무 가벼워 사라지는 뼈들은.

—「모래장(葬)」 부분

사막의 모래 파도는 죽음의 수행주체이다. 모래는 유동한다. 시간도 그렇다. 인간의 삶이란 모래 파도를 건너는 일과 닮았다. 기쁨과 슬픔, 만남과 헤어짐 모두 모래 위에 새겨졌던 한때의 문양, 꽃도 새도 인간도 결국은 모래로 되돌아간다. 실존의 한계를 품고 있기에 모래 파도는 삭막하고 황폐한 죽음의 환유이다. 시인은 그런 모래 파도에 시각·청각 이미지를 입히며 아름다움을 부여한다. 송재학은 시에 종종 다른 예술의 양식을 끌어오곤 하는데, 「모래장(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모래 파도를 미술 기법인 연필 스케치로 묘사하며 모래 파도의 시각적 질감인 거칠음을 전달하고, “모래 파도는 음악은 아니지만 한 옥타브의 음역 전체를 빌려 사막의 목관을 채운다”고 하며 관악 연주의 모습을 차용해 청각 이미지를 입히는 식이다. 이처럼 송재학은 미술·음악적 이미지를 모래

파도에 씌워 죽음이라는 관념을 하나의 예술적 정경으로 형상화시킨다.

또 다른 시편들에서도 송재학은 죽음이라는 관념, 또 죽음이라는 실재적 현상에 수사를 통해 시각·청각 이미지를 입히면서 죽음을 새롭게 그려내고 있다. 「소리족(族)」과 「소금장(葬)」을 보자.

너무 먼 곳까지 온 일몰에 잠기는 생각은 현악이지만
거푸집이 낡았다고 불평하는 건 어린 소리족들이다 꽃
잎의 낙하를 읽어,라고 내 귀와 꽃의 귀에 동시에 속삭
이는 늙은 소리들 덕분에 생의 느린 장면, 생의 정지 화
면과 함께할 수 있다 씻어내려고 게워내려고 하지만 소
리는 이미 내 귀를 나팔꽃 닮은 공명통으로 바꾸는 중
이다

—「소리족(族)」부분

바람의 늑간에는 라디오 채널이 여럿이다

—「소금장(葬)」부분

「소리족(族)」에서 “너무 먼 곳까지 온 일몰”은 노화와 죽음, ‘거푸집’은 육체, “어린 소리”는 젊음과 생명력에 대한 소망이자 노화와 죽음을 거부하는 미숙한 세계관으로 읽힌다. 반면 “꽃잎의 낙하를 읽”는 행위는 실존 한계

에 대한 순응적 태도며 “늙은 소리”는 죽음을 수용하는 성숙한 세계관, “생의 느린 장면, 생의 정지 화면”은 ‘일몰’과 마찬가지로 노화와 죽음에 대한 은유다. 송재학은 이처럼 다양한 은유들을 통해 삶에서 죽음을 향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중년의 자기 내면 변화를 재미있게 그려내고 있다. 노화와 죽음이라는 현상에다 ‘일몰’, ‘꽃잎의 낙하’, ‘느린 화면’, ‘정지 화면’이라는 시각 이미지를 입히고, 그에 대한 인식적 사유를 ‘현악’, ‘나팔꽃 닮은 공명통’ 등의 음악적 요소, 청각 이미지로 표현하고 있다. 「소금장(葬)」에서도 ‘바람’이라는 죽음의 풍경에 ‘늑간’이라는 시각 이미지와 ‘라디오 채널’이라는 청각적 은유를 덧입힘으로써 악취와 부패로 상징되는 황폐한 ‘바람’을 아름답게 변모시키는 것을 볼 수 있다.

2. 동물적 이미지

이건 짐승의 숨결이네,
 나무가 토해내는 모래있들이 까칠까칠하다
 전기톱날이 간당간당한 목이 아니라
 웅이 이빨에 박히면서
 밀도살꾼 형제의 후회가 시작되었다
 단단한 수피 속의 짐승은 음전했지만
 톱밥이 순교의 피처럼 허영게 튀면서

빗줄기 먼저 우왕좌왕이다
 겨우 몸통을 넘기니까 쿵! 하는 소리가 아니다
 이상하네, 아우가 심상해했다
 40년 묵은 짐승의 괴로움이 발은기침을 멈추지 못한
 다
 겨우 가지를 치고 무덤 주위가 정리되니까
 소나무가 제 몽리 면적을 포기했는지 우중인데도 흰
 해졌다
 하지만 어딘가 깜깜해진 것도 알겠다
 육신을 뺏긴 놈이 여기저기 똥을 눈 듯 송진 냄새가
 진하다
 사람의 안에만 짐승이 도사린 것이 아니라는 하루!
 —「소나무라는 짐승」전문

‘죽임’은 그 객체가 식물보다 동물일 때 더 처연하고
 잔혹하며 생생해진다. 낭자하는 피, 고통으로 가득 찬 울
 음소리, 처절한 몸부림…… 송재학은 별목되는 소나무에
 도살당하는 짐승의 이미지를 대입시키면서 정적인 ‘식물
 성 죽음’을 동적인 ‘동물성 죽음’으로 바꾸어버린다. “이
 건 짐승의 숨결이네, / 나무가 토해내는 모래잎들이 까칠
 까칠하다” 라던가 “툼밥이 순교의 피처럼 허영게 튀면
 서”, “40년 묵은 짐승의 괴로움이 발은기침을 멈추지 못
 한다”와 같은 문장에서 송재학은 은유와 직유의 비유법

으로 대상을 묘사하며 ‘소나무 벌목’이라는 단조로운 죽음의 장면을 역동적이고 살벌한 풍경으로 재창조하는 것이다. 송재학의 수사가 지닌 힘이 잘 드러나는 대목이다.

버려둔 시골집의 안채가 결국 무너졌다 개망초가 기어
어이 웃자랐다 하지만 시멘트 기와는 한 장도 부서지지
않고 고스란히 폴삭 주저앉았다 고스란히라는 말을 펼
치니 조용하고 커다랗다 새가 날개를 접은 품새이다 알
을 품고 있다 서까래며 구들이며 삭신이 다치지 않게
새는 날개를 천천히 단았겠다 상하진 앉았겠다 먼지조
차 조금 들썩거렸다 일몰이 깨금발로 지나갔다 새집에
올라갈 아이처럼 다시 수줍어하는 기왓장들이다 저를
떠받쳤던 것들을 품고 있는 그 지붕 아래 곧 깨어날 새
끼들의 수다 때문이 아니라도 눈이 시리다 금방 날개깃
터는 소리가 들리고 새집은 두런거리겠다

—「지붕」전문

「지붕」에서 시인은 무너진 시골집, 즉 폐허가 환유하는 죽음의 풍경을 ‘새’로 함의되는 ‘생명’으로 변화시킨다. 「소나무라는 짐승」에서처럼 죽음에다 동물적 이미지를 입힌 것인데, 그 시에서 죽음에 ‘동물성 죽음’을 덧입혔다면, 「지붕」에서는 ‘동물성 생명’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시에 나타난 동물적 이미지는 전혀 다르다. “새

가 날개를 접은 품새이다 알을 품고 있다 서까래며 구들이며 삭신이 다치지 않게 새는 날개를 천천히 닫았겠다.”는 무너진 지붕 더미를 알을 품은 새로 되살아나게 한 송재학의 절묘한 묘사가 돋보이는 문장이다. 여기서 송재학이 그리는 죽음은 완전한 소멸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을 품고 있는 부활과 재생의 선행단계로서의 죽음이다.

이처럼 송재학은 죽음을 더 선명한 실존적 고통으로 형상화시키거나 반대로 생명을 예고하는 유예로서의 소멸로 그려냄에 있어 동물적 이미지를 부여하는 방법을 능수능란하게 사용하고 있다.

3. 자연 · 일상적 이미지

죽음은 일상 속에 늘 존재하며, 모든 생명체가 수용해야 하는 자연 이치다. 그걸 잘 아는 송재학은 죽음을 일상적이고 자연적인 이미지로 그리며 죽음에 대한 생경함과 두려움을 친근함으로 바꾸고 있다.

혹 내가 다시 허공에 띄기위져서 문득 목성을 스친다면 모든 물고기의 아가미 여닫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겠다 그때 내 목소리를 느리게 하여 분홍돌고래의 목청과 비슷해진다면 분홍 목성과 대화가 되리라 목성의 오랜 안부는 그때 묻겠다

—「목성과의 대화」부분

송재학은 죽음을 “허공에 씻기워져서 목성을 스쳐 모든 물고기의 아가미 여닫는 소리를 듣”는 초현실적 행위로 그리고 있다. 우주적 상상력이 바탕이 된 자연적 이미지를 죽음에 입힘으로써 죽음을 ‘별’과 대화하는 어릴 적 꿈의 실현, 물고기의 아가미 여닫는 소리를 듣고 분홍돌 고래의 목청을 흉내 낼 수 있게 되는 자연과의 합일이자 깨달음의 여정으로 친근하게 바꾸어 놓는 것이다. 「늪의 내간체(內簡體)를 연다」에서도 시인은 겨울 늪이라는 죽음의 환유를 자연의 아름다움으로 읽어내고 거기에 언니가 여동생에게 보내는 편지글—내간체—의 형식을 빌어 늪을 구성하는 유무형 존재들의 유한한 실존성을 정겹고 다정한 풍경으로 그려내고 있다.

한편 「울란바토르 산동네, 성숙(星宿)지구」에서는 죽음에 일상적 이미지를 부여해 삶과 죽음이 사실은 하나임을, 늘 붙어있는 짝임을 이야기한다.

사람의 파편을 안고 가는 묘지와 맨살투성이 집은 서로 간지럼 태우며 정답다 집과 묘지는 모처럼 폭설에 묻혀 한 이불을 덮었다

—「울란바토르 산동네, 성숙(星宿)지구」부분

인간의 정직한 역사는 땅이라는 책에 무덤이라는 글자

로 쓰여진다.⁵⁾ ‘죽음’의 상징인 ‘묘지’와 ‘삶’의 상징인 ‘집’이 “서로 간지럼 태우며 정답다”는 시인의 묘사는 삶과 죽음이 “한 이불을 덮”은 부부와 마찬가지로, 즉 생사일여(生死一如)라는 인식에서 비롯된다. 묘지와 집을 의인화한 뒤 ‘간지럼 태우기’, ‘한 이불 덮기’라는 일상적 행위를 이미지로 입혀 죽음의 풍경을 친근하게 바꿔내는 송재학의 수사법은 「적석목관분」에서도 볼 수 있는데, 육조에 몸을 누인 채 잠이 드는 일상적 행위를 ‘죽음’의 은유로 묘사하며 수면과 죽음의 유사성, 즉 죽음의 일상성에 대해 그리고 있는 것이다.

그밖에 「죽은 사람도 늙어간다」, 「미안하구나」, 「눈물」, 「갈대」, 「머린호르(馬頭琴)와 낙타가 우는 밤」, 「로드킬」등은 ‘스토리’로 죽음을 그리는 시편들이다. 등장인물들의 개인적 사건과 경험들이 하나의 이미지가 되어 각각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지금까지 송재학이 죽음에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다양한 방식, 수사를 통해 시각과 청각, 동물적, 자연적이고 일상적인 이미지들을 입히는 방법에 대해 분석했다. 이제 몇몇의 시편들에서 시적 이미지로 형상화된 장례의식들을 살펴봄으로써 ‘죽음’이 또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5)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보르헤스의 불교강의』, 김홍근 역, 여시아문, 1998, 13쪽.

Ⅲ. 죽음을 치장하는 장례의식들

내가 가진 검은색 버리고
신발도 가지런히 나무 가랑이 아래 벗어놓고
나무 속 발광체라는 생각으로
나무 속에 들어가보았으면
(중략)
시작도 끝도 없이
앞보다 더 많은 빗방울이 천천히 내 목울대 너머 가
득 채우는 느낌
나무보다 내가 먼저 젖을 때까지
일몰이 겹쳐질 때까지
—「나무장(葬)」부분

수목장은 유해를 나무 아래 묻는 장례의식이다. 작고한 오규원 시인의 장례가 수목장으로 행해졌다. 수목장은 자연과의 합치사상을 바탕으로 한 자연장이라는 점에서 풍장과 유사한 면이 있으나 화장이라는 인위적 과정이 선행된다는 점, 그리고 ‘바람’이라는 불특정?무정형 대상과 달리 ‘나무’라는 구체적 대상을 통해 죽음을 처리한다는 점에서 풍장과 구별된다. 풍장이 ‘소멸’의 이미지라면 수목장은 ‘부활’과 ‘환생’의 이미지를 지녔다. 흙과 뿌리, 벌레의 자양분이 되어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겠다는 소

망이 깃들어있기 때문이다. 제목부터「나무장(葬)」인 위의 인용시는 물론이고, “한 번 젖어버린 레인스틱처럼 나도 젖어버린 기억을 흉곽에 채우는 중이다 내가 빗방울로 생각될 때까지”(「비의 악기」)에서도 수목장의 이미지 흔적을 발견할 수 있다. 레인스틱이라는 악기는 이미 선인장의 주검이다. 비를 그리워하던 선인장의 유전인자는 죽어서도 죽지 못하고 기우제 악기로 사용된다. 시인 역시 제목의 흉곽을 죽은 선인장, 즉 레인스틱으로 삼아 지난 생의 간절했던 그리움들을 “채우는 중”이다. 시인의 행위가 바로 수목장의 은유다.

곧 관 뚜껑이 만년설보다 더 두텁게 닫히고
 돌이 쌓여진다 해도
 아래가 편편한 덧널무덤의 편안함은 외면하기 싫다
 깜빡 잠이 들었는지
 부식이 진행되었는지 손발 마디마디가 저리다
 —「적석목관분」부분

매장은 가장 흔하고 일반적인 장례의식으로 인류가 집단생활을 하기 시작한 먼 과거시대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세계가 엄연히 따로 존재한다는 사후세계에 대한 내세관에서 비롯된 장례법으로 우리나라에서는 망자에 수의를 입힌 후 관에 안치해 땅

속에 묻는 것이 전통적 방식이다.

적석목관분(積石木槨墳)은 땅 속에 나무덧널을 넣은 뒤 사방을 돌로 덮은 다음 다시 그 위에다 봉토를 씌운 형태의 신라 시대 귀족 무덤이다. 먼 과거에 잠시 유행했던 매장의 한 형태가 현재를 사는 시인의 일상에 대입되며 범상한 풍경이 일순 죽음의 적요에 잠겨드는 걸 볼 수 있다. 매장 이미지가 그려진 또 다른 시편으로는 「울란바토르 산동네, 성숙(星宿)지구」가 있다.

풍장은 말 그대로 ‘바람의 장례법’이다. 사체를 땅에 묻거나 불로 태우지 않고 공기 중에 두어 바람에 의해 풍화되도록 하는 장례의식인데, 아메리카 인디언들과 인도네시아, 호주의 섬 원주민들, 북아시아의 고지대 주민들에게서 볼 수 있는 풍습이다. 우리나라 전라북도 고군산도와 전라남도 청산도에서도 과거 풍장이 행해졌던 흔적들을 발견할 수 있다. 바람은 지속성, 즉 ‘흐름’으로 상징되며, ‘비어있음’에 대한 은유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풍장은 영속성을 지닌 자연의 시간 속에 인간이 텅 빈 無의 상태, 즉 죽음으로 귀속되는 과정에 대한 은유적 이미지다. 또한 ‘숨’의 환유인 바람은 ‘증발’의 가해자로서 ‘흡수’와 ‘수거’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호흡과 바람의 유사성—흡수·수거자로서의 동질성—을 바슐라르 『공기와 꿈』에 인용된 『찬도기야 우파니샤드La Chandoya-

Upanishad』의 한 대목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불이 꺼지면 그것도 바람 속으로 사라진다. 태양이 지면 그것도 바람 속으로 진다. 달이 사라지면 그것도 바람 속으로 사라진다. 이처럼 바람은 만물을 흡수해 들인다……. 인간이 잠을 잘 때 그의 음성은 호흡 속에 사라지니, 그의 시각, 청각, 사고 또한 그러하다. 이처럼 호흡은 모든 것을 빨아들인다.”⁶⁾ 송재학은 「모래장(葬)」, 「소금장(葬)」 「로드킬」등 에서 풍장 이미지로 죽음을 치장하고 있다. 풍장은 모든 인위가 제거된 가장 자연적인 장례의식이라는 점에서 물아일체(物我一體) 사상과 노장적 세계관에 맞닿아있다. “내가 죽으면, 유해는 산야에 그대로 버려서 천지를 관 뚜껑으로 하고, 일월성신을 영전의 공물로 하라”던 장자의 유언은 풍장에 대한 모범적 방법론이 아닐까.

한편, 화장은 사체를 불태워 분골로 만드는 장례법으로 오늘날 거주 지역의 확장에 따른 묘지 면적의 부족으로 크게 보편화되고 있다. 불교에서 입적한 승려의 사체를 불로 태우는 다비식 역시 화장의 한 형태이다. ‘불’이 지닌 파괴, 소멸, 심판의 이미지는 화장에다 속세에서 번민과 죄악으로 더럽혀진 육신에 가해지는 형벌 그리고 속죄의 의미를 부여한다. 육신(肉身)은 거추장스럽고 덧없는 것이며 거기 갇혔던 영혼이 자유로움과 편안함을 얻게 되

6) 가스통 바슐라르, 『공기와 꿈』, 정영란 역, 이학사, 2000, 420쪽.

리라는 소망이 깃들어있는 장례의식이 화장이다. 사체를 불태울 때 하늘을 향해 솟아오르는 연기는 영혼과 내세의 상징이고, 하얀 분골은 껍데기에 불과한 육체 그리고 속세의 상징이다. 결국은 용광로에 들어가 쇳물로 녹아버릴 장의 죽음을 그린 「징」과「누선」에서 화장 이미지를 읽을 수 있다.

이 시집에서 발견되고 있는 장례의식들 외에도 수장(水葬), 조장(鳥葬), 방부(防腐)처리(미라) 등의 장례법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전통적 풍습으로 인류에 전해 내려오고 있다.

지금까지 시집 곳곳에 드러난 다양한 장례의식들이 하나의 이미지로서 죽음을 수식하고 치장하는 모습을 살펴 보았다. 장례의식의 차용 역시 송재학이 죽음에 아름다움을 부여하는 한 방식으로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화려함을 옹호한다

송재학은 이 시집에서 죽음을 다양한 색채와 형상을 지닌 여러 풍경, 즉 이미지로 그려내고 있다. 삶이 빛과 상(狀), 즉 풍경들로 이뤄진 시각적 세계인 것처럼 송재학은 죽음 역시 모방하고 묘사할 수 있는 차원의 이미지 세계

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티벳 사자의 서』에 따르면, 우리가 사후에 보게 되는 모든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투영된 환영에 불과하다. 죽음이라고 하면 육체적인 몰락, 호흡의 정지를 대뜸 떠올리지만, 사실 죽음이란 영혼이 급박하게 변화된 어떤 경지다. 이런 상징적 죽음의 중간상태를 바르도Bardo라 부르는데, 이것은 마치 빙의 상태처럼 은유와 상징, 그리고 환상이 지배하는 차원이다.”⁷⁾ 송재학이 그리는 죽음은 미술이었다가 음악이 되기도 하는 예술적 정경이고, 또 식물적 이미지와 동물적 이미지를 오가는 실존적 고통의 장면이며, 삭막한 줄 알았지만 실은 자연의 아름답고도 다정한 풍경, 또 생경하고 두려운 줄 알았지만 다시 보니 친근한 일상의 한 자락이다. 또한 완전한 소멸인 동시에 새로운 생명을 예고하는 유예로서의 소멸, 자연과의 합일이자 깨달음을 얻는 정신의 여정, 육신에 가해지는 형벌이자 영혼에 부여된 속죄와 자유이기도 하다. 이처럼 죽음을 다양하게 형상화시키는 힘은 역시 송재학의 장기인 현란한 수사와 중층적 이미지 구사다.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송재학의 시는 수사와 이미지의 화려함만 있을 뿐, 구체적이고 명료한 의미가 부재하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본고는 송재학이 수사와 이미지를 통해 죽음을 새롭게 해석해내고, 그 의미망

7) 이경교, 『푸르른 정원』, 두남, 2004, 7쪽.

을 확장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송재학의 화려한 수사와 이미지는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닐 뿐 아니라 관념적인 시편들보다 오히려 명쾌하게 또 다양하게 읽힐 수 있다는 점에서 본고는 송재학 시의 특징을 ‘아포리즘적 이미지’라고 명명하는 바다. 시는 이미지로 사고(思考)하고 이미지로 세계를 전유(專有)하는 하나의 방식이다.⁸⁾ 송재학은 그 방식에 가장 충실한 수행자, 즉 이미지를 통해 말하는 시인이다. 영성하고 거친 것은 결코 화려할 수 없다. 화려함은 곧 섬세함이다. 송재학은 일찍이 “섬세함을 옹호한다”⁹⁾고 했다. 이제는 그의 화려함이 옹호 받을 차례다.

그동안 송재학은 대상이 지닌 모순과 복잡성을 읽어내는 다면체적 사유를 통해 단선적인 형태나 구조가 아닌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구조의 시를 써 왔으나 그러한 시 세계는 앞에서 언급했듯 의미의 불명료성과 모호함에 대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 시집은 이전 시집들에 비해 쉽게 읽힌다. 여전히 이미지가 압도적이지만, 이전에 비해 복잡함을 걷어내고 구조와 형태를 단순화하고 있다. 이것을 송재학의 자기갱신, 변모양상으로 읽어도 무방한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 이뤄져야할 것이다.

8) 장석주, 『풍경의 탄생』, 인디북, 2005, 19쪽.

9) 송재학, 「섬세함을 옹호하다」, 『푸른빛과 싸우다』, 문학과지성사, 1994, 12~13쪽.



제6회 **목포문학상** 수상 작품집

신인상 부문

• 신인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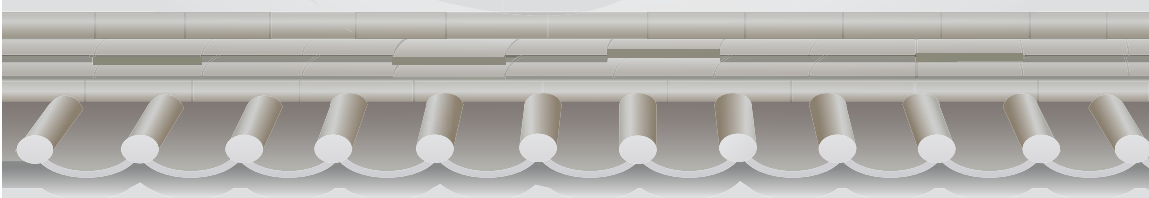
나동하
스키드마크

이은미
복원

유수현
살고지고

김동수
너와집

박혜자
세상에서 제일



제6회 **목포문학상** 수상 작품집

• 신인상 부문

| 시 부문 |

스키드 마크



나 동 하
(경기도 김포시)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과 졸업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원 문예창작과정 수료

현재 영미소설 번역가

스키드 마크

나동하

타이어의 진한 울음이 길바닥에 찍혀 있다.
한껏 입 벌린 타이어의 순한 눈망울이 얼비치는 울음은
작정이라도 한 듯
중앙분리대를 향해 길고 곧게 뻗어 있다.
울음의 끝자락이 살짝 비틀린 걸로 보아 타이어는
속도의 고삐에 숨통이 막혀
한참을 킁킁거렸을 것이다.
짧은 반향을 감행하기까지
지문이 닳도록 달린 타이어는
자질한 살점이 묻은 울음 한 바가지
길바닥에 엎지르고
뒤이어 쏟아지는 눈물을 질끈
삼켰을 것이다.
폭죽 같은 비명소리
하늘로 치솟는 순간
밤하늘이 잠시 환해지며
고요히 떨어지던 별빛들도
덩달아 비틀거렸을 것이다.

몸속 가득한 울음소리
길바닥에 모조리 토해낸 타이어는
또 어디로 고분고분 끌려갔을까?
위로하듯 지나가는 타이어들이
뒤늦게 한 번씩 상처를 어루만져보지만
한번 터진 울음은 조금도 다물어지지 않는다.

제6회 **독도문학상** 수상 작품집

• 신인상 부문

| 단편소설 부문 |

복원



이 은 미
(경기도 용인시)

2009년 월간문학 동화부문 신인상
2010년 강원일보 신춘문예 동화당선

복원

이은미

여자의 뺨을 따라 미끄러지듯 선을 내리 긋는다. 가름한 얼굴형이 드러난다. 턱선은 조금 진한 농먹을 사용한다. 너무 손목에 힘을 준 탓일까. 여자의 턱선이 흐트러진다. 붓을 바로 세우고 박꽃같이 환한 이마와 날렵한 눈썹을 담묵으로 가볍게 그린다. 잘못 놓은 수처럼 미세한 선들이 뒤엉켜 있는 여자의 얼굴. 오래 전 여자를 동굴 벽에서 떼어낼 때,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톱을 사용했다. 이마에서 눈썹을 지나 코끝과 입술을 헤집고 내려간 톱날의 흔적은 여자의 손과 발과 옷자락으로 길게 뻗어 있다.

여자의 눈을 그릴 차례다. 처음 벽화의 원본 사진을 트레이싱지에 모사할 때 여자의 눈빛은 매순간 달라보였다. 그윽하기도 했고 가늘게 흔들리기도 했다. 연필로 그렸다가 지우기를 수없이 반복했다. 하지만 모사된 밑그림에 먹선을 뜨기 시작할 때부터, 가필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손끝이 떨렸다. 한 번 내려 그은 선이 여자의 실체를 드러내는 순간마다 심장이 터질 듯 조여 왔다. 여자의 눈에 내 시선을 고정시킨다. 여자의 눈빛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다.

“나, 귀국했어. 십 년 만이지? 이번에 문화재 복원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 대대적인 복원과 모사작업이야. 모사가 복원의 또 다른 방법이라는 걸 당신도 알 테니까, 별다른 거부감은 없으리라고 믿어. 당신이 꼭 모사해야 할 벽화가 있어서 말이야.”

말없이 자취를 감출 때처럼 정섭은 홀연히 내게 전화를 걸어왔다. 미술학원의 전화번호를 알아내기는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신문 문화면에 정섭의 귀국 소식이 앞 다투어 실렸던 것이 두세 달 전이었다. 귀국 후 한 달이 훨씬 지나서 걸려온 전화였다. 그가 일본과 중국에서 고미술 복원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기사는 더러 읽은 적이 있었다. 그가 바람 같이 사라져 버린 후, 나는 그에 대한 기억을 하나씩 지워 나갔다. 붓을 쥐고 선을 내리 그을 때마다 미세하게 떨리던 그의 손만을 어렴풋이 기억했을 뿐이다. 일본 교토박물관 문화재 보존수리소에서 도제 형식으로 미술 복원을 배우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된 것도 한참이 지난 후였다.

여자의 눈빛을 종잡을 수가 없다. 어둠과 빛을 넘나드는 듯 혼란스럽다. 어둠 속에 감춰있던 시선이 아니라, 세상 밖에서 헤매고 다니던 눈빛이다. 그 눈빛의 추이를 가늠하기가 점점 힘들다. 나는 우선 밑그림대로 눈의 형태만 먹선을 뜬다. 약간 치켜 올라간 눈초리를 담묵으로

가늘게 그리다가 잠시 손을 내려놓는다.

여자의 옷자락으로 시선을 돌린다. 나도 모르게 긴 한숨이 새어나온다. 한 올 한 올 배어 있는 세월을 건져 올리기가 쉽지 않다. 현상모사는 원래의 모습을 되살리는 것이 아니다. 훼손된 그대로의 상태를 모사하는 일이다.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박리된 곳까지, 티끌 한 점이라도 놓칠 수 없다.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갈라진 틈새를 비집고 나온 지푸라기다. 여자의 얼굴부터 옷자락까지 무수히 비집고 나온 지푸라기들. 오래 전 화공은 동굴 벽에 지푸라기와 흙을 섞어 토벽을 만들었다. 그리고 무수히 많은 벽화를 그렸다. 그 중에 여자의 모습도 있었다. 그 위를 야만적인 도굴의 톱날이 수없이 지나갔다.

의자를 벽화 앞으로 바짝 당긴다. 천 년 동안 부식되고 훼손된 몸체를 가르는 지푸라기들이 일제히 수 만 마리의 벌레가 되어 꿈틀거리는 것 같다. 내 몸의 기운도 일순 썰물처럼 쏘아 빠져나간다. 아직 빈혈 수치가 정상으로 회복이 안 된 징후다. 서둘러 붓을 접시 위에 올려놓고 창가로 간다. 창가에 놓인 플라스틱 바구니에서 빈혈 약 한 알을 꺼내 입 속에 넣는다. 아이들은 선생님 입술이 시체같이 푸른빛이 돈다고 놀렷다. 아기 대신 근종을 키우고 있던 내 자궁 때문이었다. 자기 몸체를 압박하는 근종을 견디지 못하고 자궁은 결국 피를 토해냈다. 자궁이 빠져

나간 자리에 이제는 성근 바람만 가득 들어찬 느낌이다.

“아이는 영영 낳을 수 없는 건가.”

수술 전, 남편은 입술을 달싹거리며 들릴 듯 말듯 말했다. 마음이 아려왔다. 남편과의 결혼은 몸에 잘 맞는 옷처럼 편안했다. 아이가 없어도 그럭저럭 순조로웠다. 남편은 십년동안 운영했던 회사를 정리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갑작스런 내 수술을 힘겨워했다. 자궁이 없으면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당연한 이치조차 남편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았다. 입원기간 내내 굴착기가 산허리를 파헤치고 있었다. 병원을 리모델링하는 공사였다. 수렁이 오래된 나무가 흙더미 속에서 그 뿌리를 단단히 얹어매고 있는 모습이 노쇠한 여인의 음부처럼 스산해 보였다.

현기증이 조금 가시는 듯하다. 수술 후에도 자궁이 있던 자리는 늘 시리다. 화실 안쪽 깊숙이 들어온 햇살 바라기를 하고 있으면 아랫도리가 묵지근해지면서 따스한 기운이 몸에 감긴다. 벽면에 잠시 기대어 놓은 여자에게도 햇살이 다가간다. 햇살을 받은 여자의 옷자락 주름이 지천으로 뿔뿔히 풀리고 춤을 추면서 여자의 몸을 감싸 안고 있다. 사위가 따스해진다. 의자를 나무판 앞쪽으로 바짝 끌어당긴다. 넓은 양미간과 가늘고 긴 눈. 치켜 올라간 눈썹. 종잡을 수 없는 눈매. 그 눈이 바라보는 곳이 어둠인지 빛인지 알 수 없다.

박물관에서 열리는 복원 프로젝트 상견례에서 정섭을 만났다. 보수공사중인 박물관 옆 건물의 푸른 천막이 펼쳐졌다.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 건 당장 돈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남편은 전화로 이혼을 통고했을 뿐 한 달째 얼굴을 비치지 않고 있다. 사업 동업자가 자재 값을 모두 회수해 가지고 잠적해 버렸고, 남편은 동업자를 찾아다니고 있을 터였다.

정섭은 먼저 와 앉아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모습을 바라보며 입 꼬리를 치켜 올렸다. 그가 웃는지 우는지 알 수 없는 표정을 짓는 것은 십 년 전이나 똑같았다. 예전에 그의 어중간한 웃음은 사람들을 그에게서 멀어지게 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그런 웃음은 오히려 여유로워 보였다. 나는 손짓으로 알은 체를 한 뒤 의자에 앉았다. 사람들은 타원형의 오동나무 탁자를 중심으로 둘러 앉아 있었다. 낮익은 동창과 신문에 오르내리는 미술계 인사가 눈에 띄었다. 남자 동창은 내가 여기 웬일이냐, 하는 표정으로 미간을 조금 찌푸렸다. 나 역시 동창들과의 만남은 반갑지가 않았다. 변두리 미술학원에서 조무래기들을 가르치는 내가 그들에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뒤늦게 회의실에 들어온 학예관은 인사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정섭을 소개했다.

“우리나라 고미술계 복원의 일인자인 선생님은 칠년 동

안 도제 형식으로 교토 국립박물관 문화재 보존 수리소에서 복원을 공부했습니다. 도제는 그야말로 맹렬한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전적으로 이정섭 교수님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기한은 앞으로 육 개월 정도이고, 내년에 완공 예정인 박물관의 서아시아 관으로 옮겨질 겁니다.”

학예관이 설명을 하는 동안 그는 내내 손을 깍지 낀 채 탁자에 올려놓고 있었다. 그의 날카롭던 하관에는 두덕두덕 살이 올랐다. 두서없이 헝클어졌던 머리는 관료냄새가 배인 이대팔 가르마로 변해 있었다. 그가 좌중을 둘러보며 천천히 일어나 말문을 열었다. 그의 음성은 육중한 몸체만큼이나 묵직하고 오랜 여음을 남겼다.

“세상에는 가짜가 많습니다. 진짜 같은 가짜와 가짜 같은 진짜. 모사는 진짜 같은 진짜를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수장고에 있는 벽화는 이미 훼손되고 마모되어 우리가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될 귀중한 생명체와도 같습니다. 계속 빛을 보게 한다면 작품의 생명에 우리가 갈 것입니다. 어떤 예술작품도 온전히 순수한 작품은 없습니다. 그 뿌리나 근원은 작가의 손끝에서 오묘하게 윤색되는 것이지요. 모사는 그런 면에서 벽화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반들거리는 오동나무 탁자에서 잘려나간 햇빛이 그의

얼굴에 이르러 그림자를 드리웠다. 창 너머에는 흐드러진 벚꽃이 꽃비를 뿌리며 연분홍으로 사위를 물들이고 있었다. 그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오른 손을 내밀어 물 컵을 쥐었다. 꿀꺽꿀꺽 물이 넘어가는 그의 목을대를 쳐다보며, 나는 그를 사랑할 때도 매순간 낯설었다는 것을 기억했다. 컵을 감싸 쥐는 그의 다섯 손가락은 달라진 외모와는 다르게 예전과 똑같았다. 지나치게 섬세하고 고왔던 그의 손가락이 떨리듯 획을 내리 긋는 모습이 떠올랐다. 획을 내리그을 때 그의 운필은 매우 활달했다. 매의 부리처럼 날카롭고 힘이 있었다. 그의 눈과 내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는 물 컵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말을 이어갔다. 컵 속의 물이 출렁거렸다.

“복원할 작품에 어떤 예술적인 것을 기대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훼손된 채 수장고에서 신음하는 저 작품들을, 여러분들은 복사기에서 찍어내듯 사실적인 모사만 하면 됩니다. 만약 그런 행위들이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예술성과 어긋난다면 지금 포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가 말을 끝내자 두 세 명이 박수를 쳤다. 박수를 치는 사람들의 얼굴이 붉게 상기됐다. 그의 말은 신생 교주의 말처럼 힘 있고 단호했다. 사람들은 복원 프로젝트라는 작업보다는 거물과의 연결고리가 더 자랑스럽게 느껴지는 듯했다. 그는 무슨 말이든 애매모호하게 말끝을 흐리

는 버릇이 있었다. 정섭의 완벽한 탈바꿈은 십년의 세월 만으로는 설명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일이었다.

회의가 끝나자 그가 내게 눈짓을 보냈다. 잠깐 기다리라는 신호 같았다. 나는 엉거주춤 자리에 일어서지도 앉지도 못한 자세로 그를 기다렸다. 정섭은 나를 아랑곳하지 않았다. 학예관을 비롯해 미술 평론가, 잡지사 기자와 어깨를 치는 격의 없는 동작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분분히 흩날리던 꽃잎이 창틈으로 흘러 들어왔다. 언제까지 기다리고 있어야할지 알 수 없었다. 정섭의 너털거리는 웃음소리가 귓전에서 버석거렸다. 나는 슬그머니 자리를 빠져나왔다. 건물 앞 광장에는 사람들이 한가롭게 거닐고 있었다. 고만고만한 아이들이 분수대 옆에서 물받이 장난을 치고 있었고, 오랜 수령의 후박나무가 바람에 가볍게 몸을 흔들었다. 나는 건물 외벽에 길게 늘어선 그림자를 따라 천천히 걸었다. 얼비친 그림자 사이사이에 빛들이 생선비늘처럼 박혀 있었다.

박물관 회의를 다녀 온 지 한 달 정도가 지났다.

정섭은 아무 연락이 없다. 벽화의 원본 사진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전화를 건 것은 학예관이다. 트레이싱지를 사서 벽화의 사진을 본뜨라는 말도 덧붙였다. 원본 사진을 펼쳤을 때 가장 눈에 들어온 것은 사진 속 여자의 눈이었다. 감은 듯 뜬 듯, 웃는 듯 우는 듯, 종잡을 수 없는 여

자의 눈이 온종일 내 뒤를 따라다녔다. 화실 건물 일층의 인테리어 업자에게 나무판을 구했다. 화실 한 코너를 패널로 막아 공간을 만들었다. 나무판을 벽에 기대놓고 그 위에 벽화 사진을 붙였다. 사각사각 흘러듯 선을 내리긋다보면 마음이 편안해졌다.

화실을 한 번 둘러본다. 탁자위에 아이들이 던져 놓은 간 동판이 쌓여 있다. 벽화를 화실 복판에 끌어내 작업을 하다가도 아이들이 오기 시작하면 구석으로 밀어 놓는다. 아이들 과제물을 완성시켜주는 일이 우선이다. 내게 남은 것은 보증금 오백 만원에 한 달 월세 오십 만원을 주고 임대한 미술학원이 전부다. 학원은 그럭저럭 운영된다. 중학생 이상의 아이들은 학교 미술 시간에 받는 평가 작품을 모두 내게 부탁했다. 수업시간에 작품의 아우트라인만 설정하고 제출한 작품을 다시 몰래 빼내오는 것이다. 나는 시험 직전 실기 평가 때 아이들이 몰래 빼내온 수 십점의 작품을 밤새워 완성시켰다. 내 손을 거친 미술작품은 거의 에이플러스이므로 학원은 입소문을 탔다.

누군가 계단을 자박거리며 올라오는 소리가 들린다. 화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진다. 발짝 소리가 웬지 귀에 익숙하다. 들성들성 쌓아놓은 4절지 스케치북이 한쪽으로 밀려 넘어간다. 나는 나무판을 벽에 기대어 놓은 채 화실 중앙으로 나온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낯선

얼굴 같다.

“지난 번에 왜 그냥 갔지? 얼굴 한 번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벽에 붙여 놓은 아이들의 데생 앞에 서 있던 정섭이 묻는다. 나는 대답 대신 헛기침을 한다. 벽에 기대어 놓은 벽화 나무판 앞으로 그가 다가간다. 벽화 속 여자는 이제 얼굴부터 옷자락까지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눈과 머리 위 장식과 여백처리를 끝내면 배접처리를 할 수 있다. 그런 후에 나무틀로 판을 짜 고정시키고 채색에 들어가는 것이다.

“기본 밑그림은 거의 다 됐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낫네. 당신 실력이 어디 가는 건 아니니까. 그림이 너무 생생해서 만지고 싶을 정도야.”

정섭은 손가락을 내밀어 지푸라기 부분을 문지른다. 지푸라기가 묻어나는 듯 ‘후’ 하고 부는 시늉까지 내면서 나를 바라본다. 간혹 한 번씩 객쩍은 유머를 날리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다. 나는 그의 시선을 외면한다. 전기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커피 믹스 두 개를 뜬어 종이컵에 담는다. 그가 나를 보러 온 것이 아니라, 벽화의 진척을 보기 위해서 왔다는 건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다.

“하나도 안 변했군.”

커피를 한 모금 삼키던 그가 말한다. 그가 윗입술을 치

켜 올리며 웃는다. 나는 탁자 위에 새겨진 얼룩을 손톱으로 긁는다. 손톱 끝에 검붉은 물감이 배어든다. 배어든 물감을 다른 손톱으로 벗겨낸다. 손 전체에 먹을 묻히고 도, 얼굴이 물감으로 범벅이 되었어도 손에서 붓을 놓지 않았던 시절이 있었다. 서로의 얼굴에 잔뜩 묻은 물감을 바라보며 웃었던 시절을 기억한다.

“일본은 대단한 곳이었지. 내게 아무 것도 원하지 않았어. 다만 스스로 모든 것을 찾아내길 바랐지.”

찾잔을 왼 손에 힘을 주며 그가 말한다. 갑작스런 그의 말에 나는 어떤 의미를 달고 싶진 않다. 나는 입술을 달짝 거린다. 나는 이미 그가 고용한 고용인이다. 벽화는 그의 바람대로 복원되는 중이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마무리 먹 선을 뜨는 일 뿐이다.

“당신이 꼭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 같이 가줄 수 있겠어?”

탁자 위에 놓인 아이들 작품을 하나씩 들춰보며 뜬금없이 그가 말한다.

“갑자기, 어디를?”

“벽화의 진본을 한 번 봐야 예술적 느낌을 더 강하게 받을 거 아니야. 지금 바로 나가자.”

그의 말투는 명령을 내리는 상사의 말투다. 싫고 좋고를 따질 겨를이 없다. 나는 당황스럽지만 벽화의 진본을

볼 수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설렘다. 대충 흐트러진 머리에 물을 묻혀 정리한다. 정섭은 기다리지 않는다. 타박타박 계단을 내려가는 그의 발자국 소리가 들린다. 스킨을 짚어 바르는 내 손이 바르르 떨린다.

박물관을 가로지르는 광장은 활기로 가득하다. 분수대에서는 음악이 흘러나온다. 분수광장을 지나 다다른 곳은 아치형으로 이루어진 석조문 앞이다. 돌문을 통과하여 서너 개의 돌계단을 내려간다. 계단 아래에는 나무로 만든 문이 있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니 터널같이 이어진 긴 복도가 한 눈에 들어온다. 복도는 더할 나위 없이 적요하다. 간간이 얼굴을 내민 빛이 부영게 탈색된 얼굴로 복도를 떠돈다. 외부인 출입금지 팻말이 붙어 있는 철문 앞에선 그가 디지털잠금장치의 번호를 꺾꺾 누른다. 철문이 열린다. 안쪽으로 들어서니 또 복도가 나타난다.

“얼마 전 학예관이 내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보안카드를 주더군. 언제든지 진품을 보고 싶을 때 보라는 거야.”

앞서 가는 그는 보폭까지도 당당하다. 복도 양 옆에는 제1, 제2, 제3, 제4수장고라고 팻말이 붙은 나무문이 있다. 제2수장고라 팻말이 붙은 문 앞에 발걸음을 멈춘다. 그가 보안카드를 기계에 대자 뽁뽁 소리가 난다. 동시에 이중잠금열쇠를 구멍에 꽂는다. 쓰윽 문이 열린다. 그는 내게 따라 들어오라는 눈짓을 한다. 나는 호흡을 고르고

마른 침을 삼킨다. 수십 개의 수장대가 군대처럼 도열해 있다. 칸칸이 뻥뻥한 유물들. 놀랄만한 규모다. 수장대 안에 잠자고 있던 벽화들이 들숨날숨을 토해내는 듯 주위가 서늘해진다. 뚝뚝 부러진 살과 뼈들이 밖으로 튀어나 오며 일제히 아우성을 내지르는 것 같다. 나는 발은 숨을 내쉴다. 내 뼈들과 살들이 소리를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는 입구에 놓인 서랍에서 흰 면장갑을 꺼내 내게 건네주고 이내 사라진다.

수장대 곳곳을 헤집고 다니는 그의 모습이 나타났다 사라지기를 반복한다. 나는 정지된 채 꼼짝하지 않고 서서 숨고르기를 한다. 향기롭고도 아련한 기운이 온 몸에 퍼진다. 이윽고 그가 벽화를 들고 나타난다. 그의 손에 들려진 벽화는 1평방미터 남짓의 그리 크지 않은 낡은 테두리의 벽화다.

“바로 이거야. 당신이 복원하는 벽화의 진품. 아마 천여 점의 벽화 중에 가장 아름다울 거야. 모사본은 교토 국립박물관에도 전시되어 있는데, 시간 날 때마다 다리품 팔며 수없이 보고 또 봤지만 어쩐지 낯설고 부자연스럽더군. 귀국해서 이 진품을 본 순간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어. 일본에서 봤던 그 모사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 이 진품을 진품답게 모사할 사람은 당신 밖에 없다는 생각이 그때부터 들었어.”

얼굴 전면을 가로지르는 톱자국과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앉은 지푸라기. 톱날이 관통한 여자의 얼굴을 지푸라기가 감싸 안고 있다. 벽화 사진과 똑같았다. 상처투성이의 몸은 가로 세로 1미터 남짓의 액자에 갇혀 있고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다. 바위에서 뜯겨 나갈 때, 여자는 혼자가 아니었을 것이다. 벽화의 군데군데 훼손된 자국에는 누군가의 손이며 발의 흔적도 발견할 수 있다. 여자의 실체를 정확히 짐작하기는 힘들다. 다만 낱낱이 해체되어 만신창이로 훼손된 여자가 세월을 거슬러 비로소 내게 이르렀다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여자의 얼굴을 가로지르는 지푸라기를 가만히 쓰다듬는다. 까슬까슬한 느낌이 손끝에 닿자 온몸이 저릿해진다. 벽화 속 여자의 모습은 남성과 여성을 초월한 것 같다. 세월 속에 갇혀 있던 여자를 하루빨리 되살리고 싶다. 자궁이 없다는 것은 여자의 경계가 허물어진 거잖아. 너는 진짜 인간이 된 거야. 수술 후, 친구가 애써 웃으며 했던 말이 떠오른다. 진짜 인간이 되는 과정치고는 너무 무모한 거 아니니? 하며 농담처럼 되받았던 일이 생각난다.

“이번 모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싶어서 당신을 이리로 데려온 거야. 조무래기들한테 계속 시달리기만 한다면 당신 재능은 그대로 묻혀버리고 말겠지. 이 벽화를

제대로 복원할 사람은 당신 밖에 없다는 걸 나는 진작 알았다니까. 하하.”

조도가 낮은 불빛 아래 그가 흰 이를 드러내며 웃는다. 그가 십년 만에 내게 전화를 걸었던 이유가 이 벽화를 재현해내고 싶은 욕망 때문이라는 것을 일깨워주는 웃음이다. 수술 자국에 아릿한 통증이 있다.

“채색은 천연 석채로 할 건데, 직접 중국에서 공수해 올 거니까, 그걸 사용하도록 해. 밑그림이 완성되면 배접을 여러 겹하고 나무틀을 짜야 되겠군. 내가 솜씨 좋은 사람을 알아볼게. 우리나라에는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 일본이나 중국 쪽에 수소문해야지. 그리고 당신, 석채 혼합하는 솜씨는 여전하겠지?”

그의 이마가 번들거린다. 머리카락 한 올이 그의 이마를 가르고 있다. 석채를 사용하는 것은 여간 까다로운 일이 아니었다. 값도 비쌌을 뿐더러 석채에 섞는 아교의 비율을 제대로 맞추기가 힘들었다. 두세 번 정도 나는 석채를 이용해 그림을 그릴 기회가 있었다. 교수님의 부탁을 받고 보조 일을 하기도 했다. 루비분말이나 공작석분말을 사용하는 석채도 있었다. 옅은 오렌지 빛을 내는 진사색, 황토 빛을 내는 등황색, 푸르고 깊은 비취색 같은 것 모두 혼합을 잘 해야만 제대로 색이 나왔다.

“석채를 사용하는 것은 미처 생각을 못했어. 석채를 다

뤄 본 적도 까마득해서 힘들 거 같은데.”

“내가 도와 줄 수 있어. 당신이 세세한 먹선은 거의 다 떴으니까.”

여기까지 말하고 그는 나를 한번 힐끔 바라본다.

“기대한 것 보다 훨씬 밑그림이 사실적으로 잘 나왔잖아. 나 솔직히 많이 놀랐어. 당신 솜씨가 아직도 그대로 인 것 같아서 기뻐다구. 채색을 할 때 공동으로 작업하는 방법도 한번 생각해 봐. 석채는 벽화에 가장 많이 사용해 왔잖아. 석채 이외에 다른 재료로는 질감이 되살아나지 않아.”

그는 어린애처럼 들떠 있다. 원하는 조립식 장난감을 선물 받고 어떻게 조립할까를 스스로 묻고 대답하는 어린 아이. 하지만 자기 혼자서 조립하기가 힘들어지자 누군가를 끌어들여 완성시키려고 애쓰는 아이.

나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는다. 이 일을 시작한 것이 후회스럽지는 않다. 하지만 정섭을 바라보는 일은 힘들다. 사람의 감정은 경계가 없다. 그에 대한 감정이 이제는 옹오로 차츰 바뀌고 있다는 것만 진실이다. 불현듯 석채의 그 오묘한 질감만을 이용해서 온전히 내 작품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든다. 다 죽어 버린 줄 알았던 욕망 같은 것이 슬며시 고개를 치켜드는 느낌이다. 자궁을 드러낸 후 내게 남은 욕망은 없다고 생각했다. 수장고 안의 벽과 천

정 바닥 모두 숨을 내쉬는 듯 코끝이 아릿하면서도 상쾌하다. 그가 벽화를 제 자리에 갖다놓는 사이에 나는 수장고 안을 다시 한 번 둘러본다.

“이제 나가자. 혹 더 보고 싶은 거 있어?”

“아니. 그냥 나가.”

그가 문을 닫고 보안카드를 대고, 이중잠금열쇠를 다시 사용한다. 그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질투심이 생긴다. 그가 얻고자 했던 것이 이런 것이었을까. 국가의 문화재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는 권력을 가진 남자. 하지만 그가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그는 예나 지금이나 늘 몸에 안 맞는 옷을 입고 몸을 그것에 맞추려 했던 것 같다. 하지만 나도 그와 다르지 않다. 그를 사랑했던 것도, 그를 잊으려고 했던 십 년도 모두 내 욕망을 되새김질하며 지낸 시간이었다. 분명히 삼켜버렸는데 그것은 항상 스멀대며 내 뱃속에 남아 있었다. 옛날 그의 아이가 내 뱃속에 뿌리를 내렸던 것처럼.

그와 복도를 빠져 나온다. 복도 중간에 이르러 그가 내 어깨를 감싸 안는다. 나는 움찔하며 어깨를 흔들었다. 그가 단번에 손을 떼어 낸다. 나는 걸음을 빨리 걷는다. 텅 빈 복도에 내 구두굽 소리만 또각또각 정적을 깨트린다. 복도 양옆에는 수장고가 두 개씩 네 개가 있다. 그중 제3 수장고의 문이 열린다. 낮이 익은 얼굴이다. 학예관은 무

의식적으로 그와 나를 번갈아 훑어본다. 정섭은 당황스러운 느낌을 감추지 못한다.

“어 선생님! 기별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아, 예. 벽화 진품을 보려구요. 도와주는 분이랑 같이 왔습니다.”

학예관이 나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다. 나도 엉거주춤 허리를 구부린다.

“혹시 저번 최초 미팅 때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얼굴이 익어서요.”

“저에게 전화도 주시고 벽화 사진도 보내 주셨잖아요.”

“아, 맞아요. 제가 바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학예관은 다시 한 번 자연스럽게 눈인사를 한다. 정섭은 이를 말없이 지켜본다.

“벽화는 어디까지 진척이 되었습니까?”

학예관이 내게 등을 돌린 채 정섭에게 묻는다. 정섭은 학예관의 손을 잡고 내 쪽에서 멀찍이 떨어진 곳으로 간다. 학예관의 등에 가려 그의 얼굴은 보이지 않는다. 다만 부유하는 먼지가 그의 머리 위에서 춤추는 모습만 보인다. 그의 목소리도 잘 들리지 않는다.

“그 벽화의 감수는 내가 할 예정이야. 학예관이 내 복원 작품만 따로 모아 기획전을 열자고 하더군. 당신은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면 돼. 앞으로 미팅이 두 세 차례 더

있을 예정인데, 벽화의 진행사항을 누군가 물어보면 당신은 모른다고 대답해. 내가 다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학예관이 떠난 후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말한다. 수장고를 나온 후 나는 줄곧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화실 앞 계단에 이르러 그를 바라본다. 계단에 드리운 어둠이 그의 얼굴을 반쯤 가리고 있다. 그가 다시 한 번 내 어깨를 감싸 안으려고 팔을 뻗는다. 나는 뒷걸음질을 친다. 그의 얼굴이 어둠 속에서도 붉게 변하는 게 느껴진다.

“당신 너무 한 거 아니야? 내가 무슨 큰 잘못이라도 했나?”

“.....”

“어차피 이제 우린 프로 아닌가? 옛날에 연연하지 말자고.”

“무슨 소리야?”

내 일갈이 칼날처럼 어둠을 뚫고 새어나간다.?

“내가 당신에게 아직 미련이 남았다고 생각해? 당신은 날 이용해서 벽화를 복원하려고 하는 거잖아. 어차피 모든 결과물은 당신의 이름으로 남을 거고.”

마음속에 맴돌던 말이 연이어 튀어나온다.

“당신 위치가 그렇게 확고한데 왜 그리 조바심을 치는 거야?”

정섭의 번들거리던 이마에 땀이 맺힌다. 정섭은 당황하듯 이리저리 눈을 굴린다. 당황하면 나오는 예전 버릇이었다.

“조바심? 당신이야말로 드러내고 싶지 않은 척하면서도 자기의 재능을 은근히 과시하려고 했잖아. 내가 당신을 떠난 이유도 바로 그런 거야. 당신은 항상 마음속으로 나를 무시해왔어.”

땀이 풀린다. 나는 길게 숨을 내쉬고 말을 이어간다. 그동안 붙잡고 있었던 정섭의 잔영을 진심으로 털어버리고 싶었다.

“이제…… 이 벽화를 내 스스로 완성시켜야겠어. 완성되지 않아도 할 수 없어. 당신은 더 이상 내 고용주가 아니야. 만약 당신이 진심으로 이 벽화가 복원되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욕심내지 마. 내 이름으로 세상에 내 놓을 거니까.”

정섭의 눈빛이 극도로 불안하게 흔들렸다. 저런 눈빛을 아주 오래 전에도 본 적이 있다. 극장 간판을 그리다가 죽은 사람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 학교 앞 후미진 삼류극장에서 동시상영을 보고 나올 때 정섭이 물었다. 그 사람도 원래는 화가였지. 가족을 버린 후 술 먹고 폐인이 됐지만, 결국에는 지방 소도시 극장 간판을 그리다가 떨어져 죽었어. 눈이 휘둥그레진 나를 보고 정섭이 말을 이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아직도 나를 무시하고 있지? ……당신이름으로 세상에 내놓는다고? 변두리 미술학원 원장을 누가 알아줄까?”

말을 잘근잘근 씹듯 내뱉고 난 후, 정섭은 뒷걸음질 치듯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 그 빛바랜 욕망에 구토가 나올 지경이었다. 한때 연인이었던 남자가 사랑했던 여자에게 느끼는 감정이 고작 이런 복수심이라니. 정섭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제는 정말 그를 보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화실로 오르는 계단 입구에 서자, 어지럼증이 다시인다. 한 계단씩 오르는 것조차 힘에 부치다. 남편은 떠나기 전까지 매번 나를 업은 채 화실까지 올려다 주었다. 수술을 마친 후 집에 돌아왔을 때 정확히 삼칠일 동안 남편은 조석으로 밥을 지어 내 앞에 차려 놓았다. 요리책을 보고 미역을 찬물에 담가 미역국을 끓여냈다. 어떤 때는 국에 홍합을 넣었고 어떤 때는 고기를 다져 넣기도 했다. 남편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내가 아이를 꼭 한번 가진 적이 있었다는 것을. 그 후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는 것을.

아랫배가 얼음같이 차갑다. 화실 구석에 있는 조리대에 가서 가스 불을 켜고 냄비에 물을 넣는다. 서랍에 넣어둔 즉석 미역국을 끓는 물에 털어 넣는다. 남편은 미역국을

곰 솔에 가득 끓여놓고 종적을 감추었다. 나는 그 미역국을 조금씩 먹어가며 남편을 기다렸다. 냄비가 자글거리더니 금세 국물이 넘친다. 나는 서둘러 가스 불을 끄고 조미료 냄새가 물씬 풍기는 국을 입에 훌훌 넣어 마신다. 차갑던 아랫배가 따스해지는 것 같다.

소파베드에 길게 드러눕는다. 집이 처분되고 남편이 떠난 후 화실 안쪽에 소파베드를 들여놓았다. 낮에는 접어 놓고 밤에만 폈다. 잠자리가 크게 불편하진 않았다. 벽면에 기대 놓은 여자가 보인다. 수장고에서 보았던 여자와는 사뭇 다르다. 수장고에 갇혀 있던 여자는 상처가 너무 아파 나무판에서 움썅달썅도 못하는 듯 보였다. 하지만 내 앞에 놓인 나무판에서 여자는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나는 일어나 천천히 붓을 고른다. 나무틀을 짜기 전에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할 것이다. 붓을 든다. 붓은 손끝에서 자기 맘대로 움직인다. 집중을 하지 않으면 붓은 그만 갈 길을 잃어버린다. 여자의 눈동자를 그리느라 일만 남았다. 손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한다. 매번 흔들리던 여자의 눈빛이 이제는 고요히 가라앉은 느낌이다. 붓에 먹칠 묻히고 이면지에 농담을 조절한다. 순간 전화벨이 울린다.

수화기를 들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썩어거리는 바람소리만 들린다. 한 오 분 동안을 바람소리에

섞여 들리는 남편의 긴 한숨을 듣는다. 어서 와요. 들릴
락 말락 내 입술이 달싹거린다. 잔뜩 웅크리고 있을 남편
의 왜소한 어깨가 떠오른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른 후 전화
가 툭 끊긴다. 다시 붓을 쥐다. 여자의 눈을 바라본다. 살
짝 치켜 올라간 눈초리에 고즈넉한 빛이 감돈다. 붓에 최
대한 힘을 뻗다. 진하지도 연하지도 않은 청묵으로 눈동
자를 그린다. 청람 빛 바다가 여자의 눈동자에 잠긴다.
비로소 동굴에 갇혀 있던 여자가 긴 잠을 깨고 어둠 속에
서 걸어 나오는 것 같다. 그윽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본
다.(끝)

제6회 **부산영화평론가협회상** 수상 작품집

• 신인상 부문

| 희곡 부문 |

살고지고



유수현
(부산시 연제구)

2010년 부산공간소극장 김문홍희곡창작교실 1기 수료

살고 지고

유수현

등장인물

윤희 : 시어머니

숙자 : 며느리

무대

가정집 거실

제사 준비를 하며 극이 시작되어서 극이 끝날 때 즈음
완벽한 제사상이 차려진다.

극이 시작되면

숙자, 박스를 무겁게 들고 나와 무대 가운데 내려놓는
다.

빠근한 허리를 두드리며 자리에 퍼질러 앉아 제기를 정
성껏 닦기 시작한다.

윤희, 소복을 곱게 차려입고 사뿐히 걸어 나와 숙자 옆
에 쪼그리고 앉는다.

윤희 : 제사는 정성을 들여야 자손이 잘 되는 법이여.

숙자 : 네.

윤희 : (손가락으로 닦고 있는 제기를 가리키며) 여기.

숙자, (말없이 가리키는 곳을 쓱쓱 닦는다)

윤희 : 여기.

숙자, (말없이 쓱쓱 닦는다)

윤희 : (못마땅한 듯) 시집 온지가 언젠데 일이 늘지를
않누?

숙자 : 잘 하고 있잖아요.

윤희 : 네 눈엔 이 얼룩이 안보이냐?

숙자, (말없이 그릇을 닦는다)

윤희 : 잔소리 같다 싶어도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줄
도 모르고, 저거 봐. 눈꼬리 나 치켜뜨고.

숙자 : 눈꼬리가 원래 그렇게 생겼는걸요.

윤희 : 네가 닦은 그릇들은 반질반질 윤이 날 때가 한

변도 없더라.

숙자 : 이 정도면 깨끗하죠. 얼굴이 환히 들여다 보이구
만.

윤희 : 107호 며느리는 손끝이 어찌나 아무진지, 손가
락에 파리가 앉았다가 미끄러져 다리가 부러졌
다나.

숙자 : 아~ 그 김스 하고 다니던 파리가 그 집 파리였
구나.

윤희 : 아무지지 못하면 조심성이라도 있어야지.

숙자, (피식 웃으며 말없이 제기를 닦는다)

윤희 : 부엌에만 들어가면 여기서 와장창, 저기서 와장
창. 시집와서 일 년 지나고 찬장이 뒹해진 거 아
냐 넌?

숙자 : 그릇들이 얼마나 오래 된 건지 건드리기만 해도
깨지는 걸 어째요.

윤희 : (못 들은 척) 이거 봐. 닦았다는 게 꼬라지가 이
게 뭐냐?

숙자, (제기를 이리저리 살핀다)

윤희 : 맘에 안 들어, 모든 게.

숙자 : 어떡해요? 서비스기간이 끝나서 친절으로 반품,
교환도 안 된다는데.

윤희 : (뺨 돌아앉으며) 좌우지간 입만 살아가지고.

숙자 : 태어날 때부터 일 잘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정도는 봐주셔야죠.

윤희 : 더 잘했으면 이 집 기둥까지 내려앉혔을 거다.

숙자 : (웃으며) 그게 작전인줄 모르셨어요?

윤희 : 작전?

숙자 : 이가 빠지고 낡은 것들 골라서 빠삭빠삭 깨먹는
작전.

윤희 : 알지. 내가 아끼는 그릇들만 골라서 깨먹은 거.

숙자 : (약 올리듯) 아셨구나.

윤희 : 너는 시어미 작살내는 것처럼 속 시원했겠지만,
고것들 깨질 때마다 내속은 땀돌에 갈아놓은 콩
가루 같았어.

숙자 : 그래도 작정하고 깨먹은 건 아니에요. 워낙 오래
된 것 들이라.

윤희 : 시어미도 깨서 버리지 그랬냐?

숙자 : 에이, 새 그릇에 밥 담아 드시고 좋아하셨으면
서.

윤희 : 그럼 어찌냐, 다 깨먹고 없는데.

숙자 : ‘너도 네 살림살이로 살아보고 싶었구나.’ 하고
이해해주시면 안돼요?

윤희 : 가족끼리 네 꺼 내 꺼가 어딴누.

숙자 : 저도 꿈이란 게 있었는데, 억울하잖아요.

윤희 : 억울해?

숙자 : 남들은 신혼이라고 들어서 알콩달콩 재미있게
사는데, 저는 시부모님에 시동생, 시누이까지 그
좁은 집에서 바글바글 신혼도 모르고 살았잖아
요.

윤희 : 네가 좋다고, 괜찮다고 바들바들 우기고 왔잖
아?

숙자 : 누구 원망은 안 해요. 제 눈 제가 찌른 거니까.

윤희 : 그럼 억울할 것도 없겠네.

숙자 : 친정엄마가 그렇게 반대를 해도, 저는 잘 견뎌낼
줄 알았는데, 막상 살아 보니 하나 부터 열까지
힘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윤희 : 내가 아주 못 된 시어미라는 거냐?

숙자 : 아뇨. 생활자체가 힘이 들었어요. (사이) 좁은 집
에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머니 방이랑 저희들
신혼 방이 있었잖아요. 어머니 방문은 시도 때도
없이 열리고 닫히고, 시동생들은 밤낮 없이 주방
에 들락거리고, 맘 놓고 잠을 잘 수가 있어야죠.

윤희 : 우리가 너희들 방문을 열기라도 했냐? 잠을 왜 못자?

숙자 : 문 여닫는 소리, 물소리, 발소리, 심지어 화장실에 볼 일 보는 소리까지 다 들리는데 맘 놓고 애를 만들 수가 있어야죠.

윤희 : 다숨이는 밖에서 데려온 애냐?

숙자 : 달랑 딸내미 하나.

윤희 : 자식이 없는 사람도 있는데 딸 하나라도 감사해야지, 내가 너더러 손주 많이 낳으라고 안했다.

숙자 : 생각나세요?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죽으면 꼭 화장해라. 가스나 달랑 하나 뿐인데, 저 것이 내 산소에 풀을 뽑아주겠냐, 제사상을 차려주겠냐, 아이고 내 팔자야. 바랄 걸 바래야지.”

윤희 : 틀린 말은 아니지.

숙자 : 저러시면서.

윤희 : 그게 억울해서 내가 아끼던 살림살이를 다 깨 부셨다는 말이구나.

숙자, (웃는다)

윤희 : 못 된 것.

윤희, 트집을 잡으려는 듯 숙자가 닦아 놓은 제기를 이
것저것 들어서 꼼꼼히 살핀다.

숙자 : 직접 하실래요?

윤희 : 너를 두고 내가 왜?

숙자 : (한 숨을 쉬며) 어머니, 이 집에서 순수하게 제
것은 뭐가 있을까요?

윤희 : 그게 무슨 말이냐?

숙자 : 집, 승용차, 냉장고, 세탁기, 남편, 다숨이까지,
제 것은 뭐예요?

윤희 : 지 맘대로 다 해놓고 이제 와서 뭐 헛소리야?

숙자 : 그렇게 생각하세요?

윤희 : 그럼, 아니야?

제기 닦던 손을 잠시 멈추는 숙자, 그런 숙자의 눈치를
보는 윤희.

숙자 : 시집 온 첫날 어머니가 이 집 살림은 다 제 것이
라고 하셨어요.

윤희 : 그랬지.

숙자 : 순진하게 정말 그런 줄 알았어요.

윤희, (가만히 듣기만 한다)

숙자 : 시집 와서 일주일 쯤 되었나? 어머님은 외출하시고 집에 저 혼자 있던 날이 었어요. 여기저기 청소를 시작 했죠. 청소라는 게 하다가 보면 자꾸 범위가 넓어지잖아요. 베란다, 거실, 세탁실. 그러다 주방이 눈에 거슬리는 거예요.

윤희 : 주방이란 게 아무리 청소를 해도 지저분하고 그렇지 뭐.

숙자 : 주방이 더러웠다고 홍보는 게 아니구요.

윤희 : 그럼?

숙자 : 청소를 하다가 양념 통이랑 그릇들을 저 나름대로 보기 좋고 쓰기 좋게 정리를 했거든요.

윤희 : 그런데?

숙자 : 어머님은 집에 오시자마자 제가 정리 해 놓은 것들을 보시고는, 아무 말 없이 본래 자리로 모조리 되돌려놓으셨어요. 정말 아무 말 없이.

윤희 : 난, 또. 기억도 안 나는 일이구만.

숙자 : 어머님은 기억에도 없는 하찮은 일이었지만, 저는 그날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 이 집 살림살이는 내 것이 아니구나, 절대로 손을 대면 안 되겠구나, 생각했죠.

윤희 : 네 말에 가시가 있나, 어째 아프다?

숙자 : 아프게 헤드릴 의도는 아니었는데.

윤희 : 그깟 일에 너무 의미를 크게 둔거 아니니?

숙자 : (웃으며) 겨우 그깟 일이 있던 그날 이후로 제가
집안 살림에 손을 놓았다는 사실은 아시나 몰라.

윤희 : 핑계 한 번 좋네. 이날 이때까지 나를 부엌데기
로 부려먹고 미안하니까 그러는 것 모를줄 알
고?

숙자 : 핑계 아닌데요?

윤희, 심통이 난 듯 숙자가 닦은 제기들을 이리저리 살
피다가 닦지 않은 제기 쪽으로 옮겨 놓는다. 처음 한두 개
째는 별 신 경 안 쓰던 숙자, 윤희의 계속된 행동에 소리
를 버럭 지른다.

숙자 : 왜 그러세요? 그렇잖아도 팔이 아파 죽겠구만.

윤희, 갑작스런 숙자의 고함소리에 깜짝 놀라 벌러덩
주저앉아 버린다.

윤희 : (주저앉은 채로 하소연 하듯이) 송곳 같은 말 빨
로 시어미 가슴을 푹푹 찔러 구멍을 내더니만,

이젠 허리까지 병신으로 만들 참이냐?

숙자, 일어서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신음을 하는 윤희를 쳐다보며 약간 미안해하며

숙자 : 그러게 왜 약을 올리세요? 어련히 알아서 할까 봐.

윤희, 천천히 일어서서 허리가 이상 없이 잘 돌아가는지 확인한다.

숙자 : (윤희를 쳐다보며) 그 정도에 고장 안 나요.

윤희 : (알미운 듯 샅대질을 하며) 저, 말하는 꼬라지 좀 봐라.

숙자 : 제가 입은 험해도 틀린 말은 못하는 거 아시죠?

윤희 : 그래, 네 똥 굵다.

숙자, 제기 닙기를 끝내고 일어서서 윤희처럼 허리를 이리 저리 돌리며 운동을 한다.

숙자 : 그때부터 저는 돈 버는 일에만 열심히 했잖아요.

윤희 : (콧방귀를 꺾며) 번 답 시고 낮짜에 쳐 바르고 옷

사 입고, 몇 폰이나 벌어 보겠다고 생색은.

숙자 : (주방으로 들어가며) 제가 밤낮으로 미친 듯이
설쳐대서 그나마 내 집이라고 살아보는 거지, 애
비 혼자 벌었으면 아직도 남의 집 살이 하고 있
었을 거예요.

윤희, (못 들은 척 한다)

숙자, 무대 밖으로 사라진다. 간접할 상대가 없어진 윤희, 괜히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서성거린다. 잠시 후 숙자는 제상을 무겁게 들고 들어와서 무대 가운데 편다.

다시 무대 뒤로 가서 행주를 들고 나와 상을 정성스레 닦는다. 그 모습을 뒷짐을 지고 꼼꼼히 살피던 윤희, 손가락으로 상위의 여기저기를 가리키며 숙자에게 지시를 한다. 한동안 말없이 윤희가 시키는 대로 여기저기 닦던 숙자, 갑자기 행주를 상위에 던진다. 윤희, 흠칫 놀란다.

숙자 : 제가 알아서 해요.

윤희 : 누가 뭐래?

숙자 : 뭐든지 어머니가 다 해야 직성이 풀리시죠? (행주를 주워 들고) 자요, 어머니가 하세요.

윤희 : 싫다. 평생을 부엌데기로 살아온 것도 억울한데,
또 이걸 하라고?

숙자 : 원하신 일이잖아요. 뭐든 제가 하는 건 다 맘에
안 들고.

윤희 : 그런 소리 마라. 부엌일 하는 게 좋아서 하는 사
람이 어디 있겠냐? 내 맘대로 살림 쥐고 흔들어
서 살림에 손을 뻗었다고 했냐? 내가 그렇게 안했
어봐. 네가 어떻게 직장을 다녔겠냐? (울먹이며)
저 불쌍한 다솜이는 누가 키웠으며, 쑥떡 같이
착하기만 한 내 아들은 누가 밥을 챙겨 먹였겠냐
말이다.

숙자 :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다 살아지는 거예요. 주위
에 맞벌이 하는 집들이 다 시어머니가 계시고 친
정엄마가 계시는 건 아니잖아요.

윤희 : (한숨을 쉬며) 쉼 없이 해 준 공도 없이, 다 저
절로 돌아가는 줄 알지.

숙자 : 말을 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숙자, 다시 무대 밖으로 사라졌다가 커다란 쟁반에 음
식들을 들고 들어오기를 서너 번 반복한다. 윤희, 무대
한 쪽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 그 모습을 멀뚱멀뚱 쳐다본
다. 음식을 다 나른 후에 음식 앞에 자리 잡고 앉아서 제

기에 음식들을 하나하나 정성스레 담아 상에 올린다. 윤희, 슬그머니 숙자 옆으로 다가온다.

숙자 : (혼잣말로) 이런 날은 좀 일찍 들어와서 도와주면 좀 좋아?

윤희 : 밖에 일하는 사람이 일일이 시간을 맞출 수가 있냐?

숙자 : 오늘 하루만이라도 말예요.

윤희 : 그래도 우리 애비만한 남편이 어디 있더냐?

숙자 : 세상에 널린 게 애비 같은 남편이거든요.

윤희 : 아이고, 가까이엔 옆집 남자뵈라, 마누라 몰래 바람 피다 들켜서 동네 우사 당하는 거.

숙자 : 바람을 피우려면 들키지 말고 피워야죠, 자신 없으면 피우지를 말던가.

윤희 : 영식이 처럼 노름도 안 하지.

숙자 : 밑천이 없잖아요.

윤희 : 저 혼자 즐기는 일도 없잖아.

숙자 : 도통 취미라는 게 없이 무슨 재미로 사는지.

윤희 : 주말에도 집에서 가족만 챙기는 남자가 어디 있냐.

숙자 : 어머님이 차멀미난다고 밖에 나가기 싫어하시니까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어머님 혼

자 두고 우리끼리만 밖에 나가면 즐겁겠어요?

윤희 : 내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아무튼 효자지.

숙자 : 원래 효자소리 듣는 남자는 마누라생각을 눈곱만큼도 안 해줘요.

윤희 : 그런 소리 마라. 매일 늦게 들어오는 너 대신 설거지며 청소며 다숨이 챙기고, 그 이상 얼마나 더 해야 좋은 남편이냐? 복에 겨워서는.

숙자 : 복에 겹다고요?

윤희 : 옛날이야기 하나 해주라?

숙자, 대꾸 없이 제기에 음식을 차근차근 담는다.

윤희, 전을 하나 집어 먹으면서 이야기를 이어간다.

윤희 : 다숨이가 서너 살쯤 된 겨울이었지. 얼마나 추운지, 세탁실이랑 베란다에 물이 꽝꽝 얼어붙을 정도였어. 그래도 기름 값 아끼느라 보일러도 마음대로 못 켜고, 다숨이는 집 안에서도 눈사람처럼 옷을 입혀놓고 그랬을 때지.

숙자, 그때를 생각하고 빙긋 웃는다.

윤희 : 일을 끝내고 열두 시가 넘어서 동태가 되어 퇴근

하는 너 추울까봐, 애비가 이부자리 데워 준다고 저녁마다 이불속에 누워서 너 올 때 까지 기다린 거 아냐? 너 보다 일찍 잠들면 미안하다고 죽어라 오는 잠을 쫓아가면서 말이다. 혹시 잠들면 꼭 깨워달라고 신신 당부 했지만, 또 그 놈도 내 새끼라 안스럽잖아. 그냥 자도록 내버려 두고 그랬어. 그게 네 신랑이다.

숙자 : 자던 날이 더 많았어요.

윤희 : 날 닮아서 초저녁잠이 워낙 많아야지. 그런 애비 마음도 모르고 너는 들어와서는 잔다고 짜증부리고 그랬었지.

숙자 : 계속 전셋집 전전할 수는 없고, 내 집이라도 한번 장만해보려고 죽을 동 살 동 발버둥 칠 때죠. 젊었던 만큼 속도 줍았나 봐요.

윤희 : 난 애비 같은 남편이랑 한 번 살아봤으면 소원이 없겠다 싶더라.

숙자 : 아버님이야 법 없이도 살 분이셨잖아요.

윤희 : 그러면 뭐하니, 평생 자기 좋은 것만 하고 살았던 양반인데.

숙자 : 남자들이 다 그렇죠.

윤희 : 그 애비가 낳은 자식인데 하는 짓은 영 판판이니 하는 말이지. 부자지간이 어찌 그리도 다르던지.

숙자, 제기에 음식을 담던 손을 멈추고 윤희를 바라본다.

윤희 : 시집을 와서 첫날밤 지나고 둘째 날부터 집엘 안 들어오는 거야.

숙자 : 아버님이요?

윤희 : 그땐 몰랐지. 뭘 큰일을 하는가 싶었거든. 그런데, 딱 한 달이 지나보니까 알겠더라. 이 인간이 노름을 하더라고.

숙자 : 그게 취미생활이셨잖아요.

윤희 : 취미가 아니라 주업이었어, 주업.

숙자 :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윤희 : 내가 그 인간 저세상 가는 날까지 밤에 제대로 잠을 자 본적이 없었다.

숙자 : 오거나 말거나 주무시면 됐잖아요.

윤희 : 모르는 소리. 요즘이야 세상이 좋아져서 밖에 나가도 먹을 게 천지로 널렸지만 그때는 집 아니면 밥 먹을 데가 없었지.

숙자 : 하긴. 그때는 입에 풀칠하기도 힘든 세상이었으니.

윤희 : 밤 열두시에 와도 밥, 새벽에 와도 밥, 항상 밥을 차려줘야 했으니 제대로 잠을 잘 수가 있었어야

지.

숙자 : 차려놓고 주무시지.

윤희 : 노름쟁이라도 남편인데 그럴 수가 있나.

숙자 : 하루 이틀도 아닌데, 그게 다 어머니 성격 탓인
거예요.

윤희 : 그건 그렇다고 치자. 노름해서 날린 재산이 또,
얼마나 되는 줄 아니?

숙자 : 앞산 하나, 집 두 채, 논, 밭은 수도 없다고 하신
것 같은데요.

윤희 : 그렇게 날려 먹은 재산이야 내 복이 아니구나 생
각하면 그만이지.

숙자 : 그런데 뭐가 억울하세요?

윤희 : 너도 알잖니. 내가 네 아버지 정년퇴직하기를 얼
마나 학수고대했는지. 젊을 때는 돈 버느라, 노
름하느라 밤낮으로 바쁜 위인이었지만, 정년퇴
직하면 둘이 손잡고 여행도 다니고 맛난 것도 먹
으러 다니고 그렇게 살고 싶었거든.

숙자 : (웃으면서) 그런데, 퇴직하자마자 스포츠댄스 배
우시고.

윤희 : 낮엔 콜라텍 가서 늙은 년들 끌어안고 놀아나다
가, 밤 되면 노름하러 경로당 달려가니, 난 평생
을 집 지키는 개새끼나 다름없는 팔자였어.

숙자 : 아버지께서 같이 놀러 가자고 하셔도 어머니
싫다고 하셨잖아요.

윤희 : 나는 그렇게 문란한 인간들이 노는 곳엔 더러워
서 가기 싫더라.

숙자, (웃는다)

윤희 : 니들은 아침에 나가면 밤이나 되서야 들어오지,
영감은 낮짜도 보기 어렵고, 하루 종일 집구석에
서 죽을 지경인데, 친구들은 남의 속도 모르면서
팔자가 늘어졌다고 그러더라.

숙자 : 친구도 만나고, 경로당에도 가시라 해도 어머니
이 안가셨잖아요.

윤희 : 늙은 것들이 제대로 씻지도 않고 찌린내가 나서
같이 있을 수 있어야지.

숙자 : 거기도 다 사람 사는 곳인데, 뭐 어때요.

윤희 : 그러니 내가 살도 안찌고 무말랭이처럼 배배 비
틀어지지.

숙자 : 얼마나 좋아요? 일부러 돈 들여 살 뻔다고 난리
들인데.

윤희 : 다른 년들, 나처럼 눈칫밥 먹으며 한 번 살아보
라고 그래. 아주 말라 죽어버릴 거다.

숙자 : 어머니 성격이 그러니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윤희 : 네 시아버지처럼 딱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사는 사람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봐라, 오
래도 못 살고 가버리는 거.

윤희, 허공을 응시하며 한 숨을 내쉰다.

그 사이 숙자가 제기에 생선을 담다가 떨어뜨린다.

윤희 : (버럭 하며) 그거 하나 제대로 못해서 방바닥에
먼지고물을 묻히고 그러냐.

숙자, 말없이 주워 정성스레 먼지를 털다.

윤희 : 조심성 없는 것도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숙자 : 생선 한 마리를 사더라도 정성 들여 크고 좋은
놈으로 샀으면 이렇게 돌돌 굴러다니진 않을 텐
데 정성이 부족한 거 맞네요.

윤희 : (버럭 하며) 내가 성의 없이 장을 봤다는 거냐?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싼지 알기나 하나? 이 늙
은 시어미가 장까지 봐다 날랐으면 고맙다고 해
야지.

숙자 : 누가 뭐래요?

윤희 : 네가 말이 빼박했잖아.

숙자 : (빼박하게) 아가씨는 같이 장 봐주고는 왜 그리
급히 갔대요? 제사라도 보고 가지.

윤희 : (머뭇거리며) 뭐 급한 일이 있다더라.

숙자 : 그랬군요. (갑자기 생각난 것처럼) 아! 과일.

숙자, 나갔다가 과일바구니를 들고 나온다. 누가 봐도
빈약하기 이를 데가 없다.

숙자 : 어머니!

윤희 : 왜?

숙자 : 멜론이 없네요?

윤희 : (시치미를 떼고) 내가 안 샀나?

숙자 : 아까 본 것 같은데?

윤희, 못 들은 척 무대 밖으로 나간다.

숙자 : (피식 웃으며) 하여튼 못 말려. 제사비용 받은 채
겨갔을 거야.

숙자, 과일도 정성스레 장만해서 제기에 올린다.

숙자 : 내가 멜론을 얼마나 좋아하는데. 멜론 한 통 들고 그대로 먹어봤으면 소원이 없겠구만.

숙자, 사과를 깎다가 잘 들지 않는 칼을 들여다본다.

숙자 : 칼이나 좀 갈아 둘 것이지. 장독에라도 문질러와야겠네.

숙자, 칼을 갈러 무대 밖으로 사라진다.

윤희, 눈치를 보듯 주변을 살피며 들어온다.

윤희 : (작은 목소리로) 애! 애미야! 애미야?

이쪽저쪽을 살피며 숙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윤희는 움츠렸던 허리를 쭉 펴낸다.

윤희 : 내 딸이지만 눈치가 없어도 그렇게 없을까. 하필 올케가 제일 좋아하는 멜론을 들고 갈건 뭐람. (사이) 먹는 입이 많으니 먹고 싶은 것도 실컷 못 먹어 보고, 재도 불쌍하지. 과일도 껍질이나 꺾어먹고. 그게 다 제 팔자소관이지 누굴 원망해 (한 숨을 쉬며) 내 팔자도 나올 건 없지. 남들은

알지도 못하면서 며느리하고 사는 거 부러워들 하는데, 같이 살아보지 않았으면 말을 말아야지. 시어미를 식모처럼 부러먹질 않나, 제 새끼 키워 주는 유모 취급하긴 예사고. 나를 모시고 사는 게 아니고 내가 며느님을 모시고 사는 게 맞지. 상전이야 상전.

윤희, 전을 하나 집어서 꺾꺾 씹어 먹는다.

윤희 : 같이 살면서 집안일은 내가 다 하는데, 대외적으로 생색은 지가 다 내고. 나는 며느리 끼고 사는 몸쓸 시어미고, 저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 세상에 그지없는 착한 며느리로 대우 받고 말이지. (손을 내저으며) 그게 다 모르는 소리야. 저 편하자고 같이 살았지, 절대로 착한 며느리는 아니지, 암.

그때, 숙자가 칼을 들고 들어온다.

숙자 : 제 홍보고 계셨어요?

윤희 : (칼을 보고 흠칫 놀라며) 홍보 무슨?

숙자, 갈아 온 칼이 맘에 드는지 콧노래를 부르며 과일
을 장만한다.

윤희 : 너는 칼도 잘 갈아 쓰더니만, 나는 네가 갈아 놓
은 그 칼날에 늘 손이 베었어.

숙자 : 칼이 잘 들어야 팔에 힘이 덜 들고, 음식도 깨끗
하게 썰어지고 좋잖아요.

윤희 : 그래도 난 무서워.

숙자 : 친정엄마가 그러시는데, 칼이 잘 들면 좋은 게
하나 있대요.

윤희 : 뭔데?

숙자 : 가르쳐드릴까 말까.

윤희 : (약이 올라서) 말 안 해도 된다.

숙자 : 또 빠지셨어요?

윤희 : 점점, 시어미가 네 친구냐? 놀리고 지랄이여.

숙자 : (웃으며) 말 해드릴게요.

윤희, 대답은 안 해도 몹시 궁금한 듯 귀를 쫓긋 세운
다.

숙자 : 제가 시집을 와서 처음 김밥을 싸는 날이었어요.

윤희 : 기억력도 좋다?

숙자 : (웃으며) 애비가 야유회 가는 날이라 무지 정성
들여 김밥을 싸겠지요. 그런데 김밥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윤희 : 칼이 무뎠나?

숙자 : 김밥의 미모는 칼날이 생명인데.

윤희, (피식 웃는다)

숙자 : 처음 싸주는 도시락인데, 옆구리가 터져서 너털
너털한 김밥을 넣어줬어요. 얼마나 미안하던지.

윤희 :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뱃속에 들어가면 다 섞
일 거, 미리 섞은 거라 생각하면 되지.

숙자 : 평생 아버님이 어머니를 무시하고 말도 잘 듣지
않으셨다고 했죠?

윤희 : 말해 뭐하니.

숙자 : 그게 다 부엌칼이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윤희 : 어째서?

숙자 : 친정엄마 말씀이 부엌칼이 잘 들어야 남편이 말
을 잘 듣는대요. 보세요. 저는 늘 칼을 칼같이 갈
아서 쓰니까 애비가 제 말이라면 깜빡 죽잖아요.
절대로 반항도 안하고.

윤희 : 그런 게 어딤냐.

숙자 : 사실이잖아요?

윤희 : 그럼, 오늘같이 중요한 날, 왜 일찍 들어와서 도
와주지도 않냐?

숙자 : 그건…….

윤희 : 말 못하지? 뽀뽀이다.

숙자, 윤희 모르게 돌아서서 조용히 눈물을 흘린다.
그러는 사이에 제사상은 점점 제 모습을 갖추간다.

숙자 : 그래도 어머니 저를 그렇게 대하시면 안 되죠.

윤희 : 왜, 또?

숙자 : 어머니 이름, 생각나세요?

윤희, (얼굴이 굳어진다)

숙자 : (윤희를 뻔히 쳐다보며) 고마우시죠?

윤희 : 너 아니라도 할 수 있는 거였어.

숙자 : 에이, 제가 바꾸자고 해서 바꾸신 거면서.

윤희 : 하다하다, 이제 그걸로 생색내고 싶냐?

숙자 : 어머니 이름이 젊고 예뻐서 이름만 보면, 어머니
가 며느리인 줄 알거예요.

윤희 : (웃으며) 왜? 질투 나니?

숙자 : ‘윤희’ 예쁘잖아요. 그때 어머니랑 같이 개명을
할 걸 후회가 되네요.

윤희 : 숙자는 계란보다 낫잖아.

윤희, 아차 싶은 듯 입을 가리고 숙자를 쳐다본다.

숙자, 그만 웃음이 터져버린다.

윤희 : (포기한 듯) 그래 계란, 달걀, 계란찜, 계란말이,
달구새끼 개새끼 외양간에 소새끼.

숙자 : (웃으며) 달구새끼.

윤희 : 이름 바꾸고, 달구새끼 개새끼 그런 소리 안 들
어서 좋더라.

숙자 : 제가 고맙죠?

윤희 : (혀를 쫓쫓 차며) 저렇게 생색내는 걸 좋아하지.

숙자 : 생색내기라도 해야죠. 어머니처럼 푹푹하지도
못한데.

윤희 : 내가 뭐가 푹푹하니. 너만큼 공부도 못 했는데.

숙자 : 저보다 셈도 빠르시고, 한자도 많이 아시잖아요.
전화번호도 다 외우시고. 그 많은 전화번호를 어
떻게 다 외우고 계시는지. 존경스러워요.

윤희 : 그게 왜 안 외워져?

숙자 : 제가 머리가 나빠서 숫자에 약한가 봐요.

윤희 : 전화번호 잘 외우면 뭘 해? 쓸데도 없는데.

숙자 :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인데요, 어머님은 시대 잘
타고 나서 공부 많이 하셨으면 대단한 분이 되셨
을 거예요.

윤희 : 그럴까?

숙자 : 네. 아이큐가 높으신 것 같아요.

윤희 : 내가 소학교 때 산수는 잘 했어.

숙자 : 저는 가끔, 제가 셈이 잘 안 되서 부자로 살지는
못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봤어요.

윤희 : 그렇게 따지면 셈 잘되는 나는 잘 살아야 하는
데, 왜 요 모양 요 꼴이냐?

숙자 : 그건, 어머님 칼이 잘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두 사람은 같이 크게 웃는다.

윤희 : 지금 생각해 보면 참 너에게 못할 짓을 한 것 같
구나.

숙자 : 뭐가요?

윤희 : 나도 늙었지만 나보다 더 늙은 우리엄마가 집에
살다시피 와 계시면서 널 많이 괴롭혔잖아.

숙자 : 할머니가 저를 얼마나 예뻐 하셨는데.

윤희 : 그냥 내 엄마니까 딸 보러 왔다 생각하겠지 했는

데, 지금생각해보니 네가 얼마나 부러웠을까 싶더라.

숙자, 제사상을 근사하게 차려 놓고는 촛대에 초를 켜고
는 관객과 마주보고 쪼그려 앉는다. 윤희, 어정쩡하게
숙자 옆에 서 있다.

숙자 : (넋두리 하듯) 사실은 시집살이 하면서 제일 아
쉬운 부분이에요. 이십 몇년을 곱게 키워서 결혼
이라고 털링 시켰는데, 평생 시어른들이랑 같이
살고 있으니 우리 부모님들은 속이 터지셨죠.

윤희는, 허공을 쳐다보며 한 숨을 내 쉰다.

숙자 : 한 번은 친정엄마가 전화를 하셔서 이러시더라
고요. '이것아 내 꿈이 뭐였는지 아니? 가끔 딸
네집에 가서 청소도 해주고 반찬도 만들어주고,
손자 손녀들도 커가는 거 거둬주고 그렇게 살아
보는 거였다. 그런데 너는 그런 내 꿈을 그렇게
뭉개버리니?'

숙자, 허탈하게 웃는다.

숙자 : 같이 사는 거, 서로가 포기할 부분은 포기를 해야 마음이 편해지는데, 친정 부모님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살았던 건 좀 속상해요.

윤희 : 너희 친정식구들도 나쁘지. 집 앞에서 너만 살짝 보고 가버리질 않나, 집에 오셔도 하룻밤 주무시지도 않고 들어서기 바쁘게 가셨잖아. 나도 기분 나쁘고 섭섭했어.

숙자 : 주무실 곳이나 있었나요? 거실에 주무실 수도 없고. 그리고 딸네집이라고 와도 사돈내외가 손님처럼 접대하시는데 불편해서 오래 못 계시죠. 자리를 비켜주면 몰라도.

윤희 : 그랬구나. 눈치도 없고 염치도 없는 우리가 빨리 죽었어야 하는데.

숙자 : (화제를 돌리며) 그런데, 다숨이 아빠는 왜 이렇게 늦는데요?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거나 한대요?

윤희 : 이 중요한 날을 모를 턱이 있나.

숙자 : (제사상을 만족한 얼굴로 쳐다보고) 이만하면 상다리 휘어지겠죠?

윤희 : 그렇구나. 애썼다.

숙자 : (혼자 중얼거리며) 멜론만 딱 있었으면 금상첨화인데.

윤희 : 너는 잘 하다가 항상 사람 마음을 박박 긁어대지.

숙자 : 제가 뭐라 했다고.

윤희 : 너 그 말버릇 때문에 나는 아주 힘들었어.

숙자 : 멜론이 없으니 없다고 한 것뿐인데, 뭘 그러세요?

윤희 :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거 아니잖아?

숙자 : 멜론 말씀이세요?

윤희 : (버럭 화를 내며) 그래. 내 딸년이 제 새끼들 먹고 싶다고 해서 줬다. 됐냐?

숙자 : 누가 뭐래요?

윤희 : 망할 것. 시어미를 들었다 났다, 지 맘대로야.

숙자, 고개를 돌려서 킁킁 웃으며 시계를 힐끗 쳐다본다.

숙자 : 정말 이양반이 왜 이렇게 늦지? (일어나서 제사상을 이리저리 손을 보며) 어머니, 검사해주세요. 제사상.

윤희 : 나 보다 네가 더 잘 알면서, 뭘 그래?

숙자 : 제가 일하는 게 엉성해서 항상 어머니님 검사가 있어야 끝이 나잖아요.

윤희 : 내가 언제?

윤희, 제사상을 살피다가 고기와 생선 자리를 바꾸며

윤희 : 이것 보라. 아직도 제자리를 모르냐? 어동육서,
바뀌었잖니.

숙자 : 이러니까 어머님 안계시면 제가 못 살아요.

윤희 : (기세등등하며) 잘난 척 해도 다 허풍선이야.

숙자 : (웃으며) 촛불을 켜까요?

윤희, 갑자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는다.

암전

윤희, 초에 불을 붙이면서 무대가 서서히 밝아진다.

위패가 있을 자리에 숙자가 처연하게 앉아있다.

윤희, 낮이 나간 듯 멍하니 앉아서 숙자를 쳐다본다.

숙자, 그런 윤희를 웃으며 쳐다본다.

윤희 :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윤희, 술잔을 따라 제사상에 올린다.

윤희 : 올케가 멜론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걸 들고 날
러? 에이, 나쁜 년. 그러니까 시집살이가 서럽다

는 거야. 시어미, 시누이, 시동생, ‘시’자 달고
있는 것들 치고 누구 하나 만만한 사람이 없거
든.

윤희, 제수들을 요모조모 손을 본다.

윤희 : (숙자를 쳐다보고) 너도 나쁜 년이야, 시어미 가
슴에 대못을 박아 놓고, 너만 편하면 다야? 불쌍
한 다숨이, 우리 석이는 어떻게 살라고. 아무리
없는 집에 시집와서 먹고 사느라 발버둥 쳤다 해
도 제 몸이 썩는 걸 그렇게도 몰랐더냐? 이 미련
한 것아.

윤희, 한 숨을 쉬며 손가락으로 뒤통을 꺾어 찢어 가운데 세
운다.

윤희 : 싸워도 좋았는데, 네가 없으니 이 세상이 사는
재미가 없다.

숙자, 웃으며 윤희를 쳐다보고 있다.
서서히 막

제6회 **목포문학상** 수상 작품집

• 신인상 부문

| 수필 부문 |

너와집



김 동 수
(대구시)

1960년 태백에서 출생해 정선에서 성장
영남대 법대 중퇴

너와집

김동수

죄라도 지었을까. 유배라도 떠난 듯 너와집은 두메에 있다. 산촌박물관에 전시된 집은 박제일 뿐, 그 영혼을 찾으려면 숨 가쁘게 오르내리는 주가곡선株價曲線에서 뛰어내리고 쿵쾅거리는 세상일랑 하루쯤 버려야 한다. 도시를 벗어나 산 넘고 물 건너는 길에 유랑민의 노래 몇 소절 뿌리면 좋다.

저만치 누가 온들 돌아오는 사람이겠냐는 듯 너와집은 무덤덤하다. 화려한 삶을 꿈꾸지 않았으니 허름해도 좋고, 빈틈없는 삶을 바라지 않았으니 허술해도 괜찮다며 매무시를 여미지도 않는다. 버선발로 뛰어나오는 이 없으면 어땡고 물 한 그릇 건네는 이 없으면 또 어땡가. 먹어보고 입어보라는 새빨간 장삿속에 낚을 빼앗기지 않아도 되니 알팍한 지갑 걱정이나 마음의 무장일랑 내려놓고 자적自適에 들어본다.

새끼 짚어지고 고개를 넘어 닿은 두메, 햇살 맑은 언덕에 터를 다진다. 나무를 잘라 뼈대를 세우고 흙을 이겨 벽을 쌓고 여기저기 널브러진 돌을 모아 나지막한 담을 두른다. 가지 닳은 나무 둘 맞대 지계를 만들고 기다란 나무

를 낮으로 툭툭 잘라 바지랑대를 세운다. 싸리나무 한 줌 묶어 어지럽게 훑날리는 생각을 쓸어내고, 수수대궁 두엇 꺾어 내면에서 재채기를 일으키는 먼지를 털어낸다. 땡땡 이덩굴로 멍석을 짠 다음 그 위에 앉아 말린 옥수수자루로 삶의 뒷면에서 자분거리는 가려움을 긁어도 본다.

화전火田을 일구면 땀 흘린 만큼 소출이 돌아온다. 지주의 횡포를 견뎌야 하는 머슴살이에 비하면 산골살이는 마음이라도 덜 고단했을 것이다. 없으면 만들어 쓰는 일도 산골에서는 재미일 터, 투박한 손맛대로 살림이 되고 소박한 마음대로 일상이 되니, 해가 뜨면 밭을 매고 달이 뜨면 길쌈 매며 자연으로 수렴되는 삶은 그런대로 살만하지 않았을까. 불 지른 산비탈에 감자 심고 수수 심던 어미 아버지는 평생 너와집 한 채만 이루고 밭 한 뿌다귀에 뼈까지 심었으리라.

사람은 가도 살림은 남아 산골살이를 말없이 전설한다. 망태·삿갓·파비·삼술·도롱이가 세월의 더께를 쓴 채 벽에 걸려있고, 지게·씨레·쇠스랑·고무래는 고단한 노동을 내려놓고 생각하는 조각인 양 깊은 침묵에 들었다. 빼적거리는 정짓문을 열자 스르릉 가마솥 소리, 토닥 토닥 도마 소리, 달그락 달그락 설거지 소리가 봉인된 부뚜막에는 아궁이가 커다란 입을 벌리고 있다. 지금이라도 마른 솔가지를 넣고 성냥만 그으면, 모든 것이 화르르 깨

어나 무성영화처럼 차르르 돌아가고 발 갈러 나간 화전민
내외가 먼지를 툭툭 털며 나타나 밥상을 차려 내게 수저
를 건넬 것 같다.

너와집에서 압권은 지붕이다. 도톰한 널판을 너스레 위
에 얹고 군데군데 지지름돌로 눌러놓았다. 마음이 가벼우
면 숨은 그림도 보이는지, 지붕에 마치 용의 비늘 같은 음
영이 어른거린다. 그래, 이 땅에 태어난 사내라면 누군들
천하를 호령하는 용이 되고 싶지 않으랴. 권문세가의 자
손도 아닌, 돌담 아래 납작한 민들레처럼 낮은 운명을 타
고난 사내는 감옷처럼 무거운 욕망의 비늘을 떼어 너스레
위에 한 장 한 장 이었을 것이다. 얹고 얹힌, 저 묵직함이
위압으로 느껴지지 않음은 지붕에 무욕이 서려있기 때문
이리.

암녹색 기와지붕이 영화를 전설하고 우람한 기둥이 권
세를 떠받치는 고택에 비하면 너와집은 보잘것없다. 본디
내 것이 아니기에 돌 한 덩이 나무 한 쪼가리도 잠시 빌려
쓰다가 자연에게 돌려준 집, 너와집에는 아무개가 산자락
에 들어 자적인 흔적들이 풍화에 들었을 뿐, 뼈대를 내세
우거나 업적을 자랑할 증거는 어느 곳에도 없다. 만약 액
자에서 가훈이 내려다보며 훈계하거나 문패가 주인의 이
름을 각인하라고 한다면, 내 생각도 네모난 틀에 갇히고
말 것이다.

너와집에 들면 모난 대로 둥근 대로 나 또한 자연이다. 자연의 눈으로 보면 칸칸이 번호가 붙은 콘크리트 육면체는 감옥이다. 반듯하게 재단된 도시에서 규격에 묶이고 위층에 눌러 살다보면 가슴이 답답해진다. 소음과 공해에 시달려 아토피에 걸린 일상은 굵고 굵어도 가렵기만 하다. ‘빨리빨리’에 쫓겨 정신없이 뛰다보면 어느새 빌딩 그림자 길게 눕고, 회식이다 뭐다 해서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오면 시계바늘은 한 치 오차 없이 남은 삶에서 하루를 차감한다. 가끔 차 한 잔 들고 베란다에 나가면 영혼마저 적출 당하고 박제된 사슴처럼 켄한 눈으로 먼 산을 바라보는 내가 있다.

한 스님이 무소유 바람을 일으킨 적이 있다. 그 바람에 집집마다 무소유라는 책을 소유하고 있으나 세상에는 여전히 욕심이 넘친다. 돈 맛을 본 사람은 돈을 중심으로 돌고, 힘의 원리를 즐기는 사람은 권력 주위를 맴돈다. 가질수록 텅어리는 커지고 또 그것을 지키려 한 시도 곁을 떠나지 못하니, 욕망포화의 법칙은 경제학에서 배운 원론일 뿐, 어찌면 우리는 포화된 욕망에게 영혼까지 구속당한 채 사는지도 모른다. 그렇지 않아도 가볍지만은 않은 삶, 욕심이 지나치면 더욱 무거워지니 무소유는 쓸 만큼만 가지되 영혼까지 소유에 갇히지 말라는 은유가 아니겠는가.

고래 등 같은 기와집, 하늘을 찌르는 빌딩, 살면서 마음 속으로 집을 몇 채나 지었더라. 하지만 세상 일이 다 내 마음과 같지 않아서 또 얼마나 허물었더라. 그렇다고 인격을 허문 자리에 양심을 팔아 대궐을 짓는다 한들 꿈자리까지 행복하겠는가. 물질을 추구하다가 외려 더 귀한 것을 놓치지 않았는지. 더 많이 더 빨리 더 높이만 지향하다가 지명知命의 고갯마루에서 돌아보니 알겠다, 고급차·넓은 집·비단 옷, 누구나 목표로 삼는 그것들은 몸을 편안하게 하는 도구가 될지 모르나 영혼까지 행복하게 하는 삶의 제재題材는 아님을.

산골에서는 무소유가 나를 이롭게 한다. 가질 수 없기에 다툼이 없고 늘 거기 있기에 고단한 노동이 필요치 않은 것, 공간에 쌓아둘 수 없지만 아무리 써도 동이 나지 않는 그것들은 삶을 향기롭게 하는 제재다. 새소리, 물소리가 흐르고 순서를 잊지 않고 들꽃향기 불어오는 마음의 본향에 들면, 봄비 토닥이는 삼진날 밤 도랑물 구르는 소리는 얼마나 간지러울 것이며 칠석날 별들의 동화는 얼마나 순수할 것이며, 시월 저녁 단풍의 탄성은 또 얼마나 붉을 것이냐. 눈 내린 설날 아침 그 눈부심은 눈을 감지 않고서야...

한동안 나를 묵직하게 옥죄던 상념을 풀어놓으니 저기 날아가는 새가 내 마음인 양 싶다. 장판지 살 빼고도 모자

라 뼈까지 깎아 하늘을 날 자격을 얻은 새처럼 이제는 물질문명의 중력에서 벗어나 바람 같은 자유를 갈망하나, 스스로 욕망이라는 유배지로 떠난 죄, 아직 형기(刑期)가 남은 자유혼은 다시 도시로 돌아가야 한다. 문짝 삐걱거리는 소리에 화들짝 놀란 노루가 줄행랑치다가 문득 멈춰 뒤돌아보고 피식 웃거나,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바람만 쉬어갈 뿐, 내가 떠나면 너와집에는 새 떠난 둥지처럼 그리고 아무 일 없을 것이다.

짓다 만 기와집을 헐어내고 그 자리에 너와집 한 채 지어보련다. 타인을 경계하는 담장을 헐면 마음이 열리고, 남을 겨누는 창이며 위압을 주는 감투며, 몸을 무겁게 하는 무장까지 내려놓으면 삶도 가벼워지지 않겠나. 산골에서 태어나 흙·돌·나무와 살을 부대끼며 자랐기에 자연으로 삶을 짓는 법을 서툴게라도 알고 있으니, 쓸데없는 욕심만 버린다면 너와집 하나만으로도 모자람이 없지 않겠나.

도시에서는 자족(自足)을 무능이라고 하지만 산골에서는 자적(自適)이다. 스스로 그런 자연으로 회귀를 꿈꾸며 다시 유배지로 돌아갈 때 나도 모르게 아라리 한 소절 읊는다. 집이야 많지만 기왕이면 너와집이로세.

제6회 **목포문학상** 수상 작품집

• 신인상 부문

| 동시 부문 |

세상에서 제일



박 혜 자
(부산시 강서구)

경남 양산의 시골마을에서 태어났다.

대학에서 경영학을 공부하였다.

(사)한국편지가족 부울경 지회장을 지냈다.

설거지를 깨끗하고 빨리하는 재능이 있어 무료급식소에서 20년
째 설거지 재능기부를 하고 있다.

아름다운 동시교실에서 공부하고 있다.

세상에서 제일

박혜자 (부산시)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건
“지구, 우주, 에베레스트산.”
다 틀렸어. 그건 눈꺼풀이야.
잠이 올 때
아무리 들래도 들 수가 없어.

세상에서 제일 힘이 센 건
“토네이도, 지진, 천하장사.”
아니야. 우리 엄마야.
눈 흘김 한 방으로
내 눈꺼풀 번쩍 들거든.



제6회 **목포문학상** 수상 작품집

심사평

예심위원 >>

시 - 신덕륜, 이대흠

단편소설 - 송은일, 이 진

희곡 - 김창일

수필 - 임인택, 유 현

동시 - 양희성

본심위원 >>

시 - 김명인

단편소설 - 김원우

희곡 - 윤조병

수필 - 오창익

동시 - 김철수

문학평론 - 김경수

제6회 목포문학상 심사위원

부 문	구 분	성 명	비 고
시	예심	신덕룡	• 김달진 문학상, 발견문학상 수상 • 저서 『생명시학의 전제』, 『아름다운 도둑』 등 • 현) 광주대 문창과 교수
		이대흠	• 1994년 『창작과 비평』으로 작품 활동 시작 • 《육사시문학상》, 《애지문학상》 등 수상 • 시집 『귀가 서럽다』, 『물 속의 불』 등
	본심	김명인	• 1973년 <중앙일보> 신춘문에 당선 • 『동두천』 등 9권의 시집, 『소월시문학상』 등 다수 수상 • 전) 고려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단편 소설	예심	송은일	• 1995년 《광주일보》 신춘문에 당선 • 2000년 《여성동아》 당선 • 창작집 『딸꾹질』, 장편소설 『불꽃섬』 등
		이 진	• 2001년 무등일보 신춘문에 당선 • 소설집 『창』, 『알레그로 마에스토소』 등 • 현) 광주문학연구소 연구원
	본심	김원우	• 동인문학상(1991년), 대산문학상(2002년) 등 수상 • 저서 『돌풍전후』, 『부부의 초상』 등 • 전) 계명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수필	예심	임인택	• 월간 「문학21」, 계간 「문학춘추」 수필로 등단 • 「CJ 문학상」, 「타고르 문학상」 수필부문수상 • 수필집 『삶의 여백』 등, 전)전남수필문학회장 등
		유 현	• 2011년 『월간문학』 시조 신인상 • 2012년 국제신문 신춘문에 시조 당선 • 현) 전남수필부회장
	본심	오창익	• 조선일보 신춘문에 소설 입선 • 한국일보 신춘문에 수필 당선 • 저서 『한국수필 연구』 등, 전) 인천시립대 교수
동시	예심	양희성	• 1985년 월간문학 및 아동문에 동시 당선 • 광주전남아동문학상, 한국아동문학 작가상 등 수상 • 저서 『엄마의 무릎』 외 4권, 찬송시집 『하나님의 계단』
	본심	김철수	• 1984년 월간문학 신인작품상 동화 당선 • 현) 한국아동문학회 수석부회장 • 현) 월간 <아동문학> 발행인
희곡	예심	김창일	• 전) 극단 선창 대표, 전) 목포시립극단 상임연출 • <갯바람>, <역마살> 등 다수 작/ 연출 • 1994년 한국연극예술상, 2011년 전국연극제 희곡상 등 수상
	본심	윤조병	• 국립극단 장막희곡공모 당선 데뷔 • 전)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 교수 • 현) 극작 및 연출, 극단 하마세 예술 감독.
문학 평론	본심	김경수	• 저서 『염상섭과 현대소설의 형성』 등 • 현) 서강대 국문과 교수, 문학평론가

제4회 목포문학상 시부문 예심평

예심위원 신덕룡 (시인, 광주대 교수)

이대홍 (시인)

새로우면서도 완벽한 시를 찾아서

목포문학상의 권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는 게, 투고된 작품의 편수(151명의 1057편)도 편수이지만, 투고된 작품의 수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데서 확인된다. 기성과 신인을 구분해서 말하자면, 기성 문인 투고 작품들은 시를 빚는 솜씨가 대개 안정되어 있었고, 신선함마저 느낄 수 있어서 심사자들을 즐겁게 하였다. 어느 작품에 상을 주어도 좋을 만큼 고른 작품 수준과 저력이 돋보이는 투고자들이 눈에 띄었다. 「달콤한 잠」, 「순천만」, 「삭스핀」 등은 시를 빚는 솜씨가 안정되어 있어서 오랜 시력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또한 「이상의 방」 등을 투고한 시인의 작품은 자칫 모호해질 수 있는 소재를 탄탄하게 끌어간 점이 높이 살만 했고, 「마갈씨의 생애」 등을 투고한 시인의 작품은 자기만의 목소리를 가진 점이 돋보였다. 기성문인 작품의 예심을 마친 후 예심위원들은 낭중지추라는 말을 실감했다. 두 사람의 입을 모은 듯 짙은 작품이 있었던 것이다.

신인 투고 작들도 만만하지 않았다. 재미있는 발상도 있었고, 문득 문득 반짝이는 행간이 눈을 크게 뜨게 하였다. 하지만 제대로 날이 선

작품은 찾기 어려웠다. 시작은 그럴 듯하지만 마무리가 덜 된 작품, 시상 전개는 안정되어 있으나 신선함이 떨어지는 작품, 행갈이는 되어 있으나 굳이 ‘시’라고 말하기에는 함축미나 언어의 정밀함이 보이지 않는 작품, 새로운 인식이 없고 세계에 대한 해석이 진부한 작품, 발랄해 보이지만 앞뒤가 연결되지 않는 말을 나열한 작품들이 많았다. 그 중 「포장마차 왕국」등은 세상을 보는 파스한 시선이 감동적이었고, 「시지푸스 계단」등은 ‘계단’과 ‘유모차’라는 소재로 생의 본질을 끌어내는 솜씨가 돋보였다. 「보이저 1호」등은 ‘우주 공간을 유영’하는 ‘할메별’의 반짝임이 신선했고, 「아날로그 대화」등은 ‘시간’을 소재로 시상을 전개하는 힘이 만만해 보이지 않았다. 「스키드 마크」등은 대상에 대한 새로운 시각보다는 그 대상 속에 숨어 있는 서정을 끌어낸 점을 장점으로 볼만 했다. 하지만 신인 투고자들의 공통점은 끝까지 언어의 치밀함을 유지하고 있는 작품이 드물었다는 점이다. 예나 지금이나 시 예술에 대한 요구 조건은 변함이 없다. -새로우면 서도 완벽할 것.- 그것이 끝내 불가능할지라도 예술가는 그 가능성을 지향해야 한다.

제6회 목포문학상 시부문 본심평

본심위원 김명인 (시인)

예심을 거쳐 본심으로 넘어온 응모자는 기성 문인이 다섯 분, 신인이 다섯 분이었다. 응모작으로 여러 편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대개의 경우, 한 두 작품만 읽히는 게 고작이었다.

오랜 숙고 끝에 「보이저 1호」를 본상 수상작으로, 「스키드 마크」를 신인상으로 추천한다. 올해의 결과는 예년과 다르게 본상, 신인상 모두 신인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다. 기성 문인의 투고 작품 중에는 「순천만」등이 이채롭게 읽혀졌으나, 전체적으로 한 세계를 아우를 만한 완성도가 아쉬웠다. 본상에는 들지 못했으나, 시어의 자원으로 방언을 활용하려는 노력은 평가할 만하였다. 한 두 작품만 읽혀져 시작의 수준을 가늠할 수 없었던 것은 「스키드 마크」의 응모자도 마찬가지였다. 이 시는 도로 위에 선명한 바퀴자국의 유비(類比)로 삶의 향방을 추적해보여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갖추었지만, 다른 시편들에서는 성공한 비유가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보이저 1호」등의 응모자는 나름대로 설득력을 갖춘 시적 공간을 확보해 낸다. 「보이저 1호」만 하더라도 임무를 마친 뒤에까지 아득한 우주를 헤매는 인공

위성의 유비에, 맥락을 놓아버린 할머니의 치매를 겹쳐 보인다. 이 작품 외에도 눈여겨 볼만한 시편들이 다수였다는 것이 특별히 이 신인을 본상에 천거한 이유라 하겠다.

심사를 하면서 목포문학상의 의미 있는 전개를 위해서, 지금처럼 장르별 공모를 지속해 갈 것이 아니라, ‘목포’다운 특징을 살리는 선택과 집중으로 요청되지 않을까, 잠깐 생각해 보았다.

제6회 목포문학상 단편소설부문 예심평

예심위원 송은일 (소설가)

이진 (소설가)

어떤 문학상이든 분야별로 최종심에서는 단 한 편의 작품만 뽑힌다. 백 대 일, 수백 대 일의 경쟁이 보통이다. 예심에서는 그 한편을 위한 후보작을 주최 측이 원하는 만큼 고른다. 이번 <제 6회 목포문학상> 예심에서 주최 측이 요청한 후보 작품은 기성문인과 신인 각 부문에서 5편 이상씩이었다.

따라서 예심은 기성 작가와 신인 두 부문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많은 작품들이 응모되었는데 두 부문 모두 큰 틀에서 몇 개의 주제로 수렴되는 독특한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유년의 공핍과 전쟁 경험, 실직 등에 의한 박탈감, 노년의 고독과 그에 대한 두려움 등. 공동체가 파괴된 현대사회의 소외되고 파편화된 우울한 개인을 유년의 경험과 결부시키는 서사 방식도 상당부분 공통점을 보였다.

예심위원으로서 약간 아쉬운 느낌이 들었다. 소설이 한 풀이나 뉘두리로서의 성격을 갖는 면이 있긴 하지만, 그 걸 뛰어넘는 패기 있고 도전적인 작품을 발견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기성문인 응모작 중에는 기성문인의 작품

이 맞나 의심스러울 만큼 소설적 완성도가 떨어지는 작품들이 적지 않았다. 상상력은 물론 현장감이나 현실감도 느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그런 작품들을 일차적으로 내려놓으면서 본격적인 예심을 진행하였다. 신인의 경우도 많이 다르지 않았다. 신인이란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상투적이고 낡은 소설기법을 동원한 경우가 많았고, 주제 역시 깊이 있게 다루어진 작품이 많지 않았다.

물론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은 없다고 한다. 소설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단지 일상의 이야기에 머물지 않고 예술로서 남고자 한다면 새로워져야 한다. 이 때 새로움이란 무엇을 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쓰느냐는 방법적인 문제일 터이다. 늘 있던 것, 어디서나 보고 들었던 것을 어떤 각도에서 조명하고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거기서 발견한 새로움을 나만의 개성으로 어떻게 창조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것 말이다.

처음부터 끝까지 눈길을 끈 작품들도 물론 있었다. 생태와 환경, 예술과 인간 그리고 현대적 의미의 노인 및 젊은이문제 등 인간의 존엄성과 삶의 숭엄함을 다양한 방식으로 다루고 있었다. 내면의 독백과 외면의 인간관계를 격자무늬로 잘 직조해낸 작품도 있었고, 인간의 고통을 우의적 깊이로 해석한 작품도 눈에 띄었다. 주요 사건과 에피소드들이 논리적 연결성을 가지고 차분하고 깔끔하

게 조직된 작품도 있었다. 내려놓아야 했던 상당수 작품들에게서 느꼈던 아쉬움을 상쇄해주는 단비 같은 작품들이었다.

단 한편을 골라내야 하는 최종심이 아닌 걸 다행으로 여기며 기성문인 응모작 중에서는 7편을, 신인 응모작 중에서는 6편을 본심에 올릴 작품으로 결정했다. 본심에 올리지 못하는 게 아까운 나름의 장점을 가진 작품들도 있었으나, 내용전개가 느슨하거나 소설 창작의 기본인 문장 및 문단 구성에서 철저하지 못한 작품들은 내려놓았다. 지나치게 자기의식 안에 갇혀 타인과 세상을 충분히 살피지 못하는 작품들도 배제하였다.

예심장을 떠난 작품들은 치열한 본심과정을 거쳐 부문별로 단 한 편만 당선작으로 뽑히게 될 것이다. 많은 이가 동의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 뽑혀 <제 6회 목포문학상>이 이 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인 의미로 확산될 것을 기대한다.

본심위원 김원우 (소설가)

예심을 거쳐 본심에 올라온 작품은 기성문인의 것이 7편, 신인의 것이 6편이었다. 그 중에서 다음의 작품들은 선자의 판단을 여러 잣대로 저울질하게 만들었다. 그 소감을 짧게나마 토로함으로써 다소의 참고가 되었으면 한다.

〈오션 파라다이스〉는 한때 세칭 ‘바다 이야기’로 알려졌던 전자오락기기 도박판에 얹힌 잡다한 이야기다. 노름꾼이자 술주정뱅이인 아비의 매질에 시달리다 섬을 탈출한 ‘여자’의 파란 많은 삶을 그리고 있는데, 해녀의 딸로서 그 탄생 비화도 그렇지만 사채업자의 협박, 알바생 윤의 갑작스러운 도움, 일식집 종업원으로써의 인연 맺기 등등 수많은 ‘서사’가 종횡무진하고 있다. 하드 보일드한 현재형 문장에 박력이 실려 있기도 하지만 그만큼 과장스러운 것도 사실이다.

〈성실한 모텔리어〉는 용도폐기 직전의 모텔에서 임시 종업원으로 일하는 ‘나’의 생활세계를 현장감 좋게 펼쳐 놓고 있다. 콘돔 비치 소동이나 건달을 방불케 하는 모텔 사장의 성격 창조에도 이 작품의 모티브가 곧이곧대로 읽

히긴 한다. 그러나 장기투숙 중인 손님의 죽음도 뜬금없는데다 그 변사체를 유기하는 과정은 혐기성의 일상화를 겨냥하는 요즘 ‘젊은’ 소설의 ‘작의 부각력’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무리가 지나치다.

〈독백하는 밤〉은 경찰지구대에서 의경으로 근무하는 화자 ‘나’의 세태고발소설이다. 역시 경험세계를 착실히 기록한 소재답게 음주단속에 ‘성과’를 올리라는 상부의 종용이 급기야 뇌물 수수로까지 비화하는 현장감각은 대단히 사실적이다. 이야기의 순도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결국 뇌물 수수가 탄로나고 음주자의 돈을 나눠가졌던 동료경관은 승진한 후라 내뺄버린다는 결말은 너무나 도식적이다. 소설은 다큐멘터리와 달리 어떤 ‘교훈’을 이끌어내는 장르가 아닌데도 자꾸만 ‘이야기의 결말’을 보려는 통속취향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권선징악이 나쁜 게 아니라 그런 결말을 강요하는 문학적 ‘관습’과는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

〈복원〉은 벽화의 훼손을 다시 살려내는 박물관의 ‘프로젝트’에 얽힌 사연이 치렁치렁하다. 이런 예술애호벽을 다루는 소재는 내로라하는 기성작가도 워낙 자주 또 많이 다루는 장르이지만 대개 다 무슨 공식 같은 상투성이 현저하다. 화가로서 실패한 여자, 그녀와 한때 사랑을 나눠가졌던 남자의 뛰어난 재능과 신체적 조건, 허무한 이별

과 이미 예비된 재회, 한때 그의 아이를 낙태시킨 쓰라린 추억, 남편과의 멀거 내지 이혼 등이 그것이다. 실로 수 상한 소설적 ‘시대착오 증후군’인데 그 밑바닥에는 딜레 탕트들의 멋부리기가 깔려 있을 것이란 느껴움은 선자만 의 유별난 편견은 아닐 것이다. 이 작품도 너무나 빠른 그 런 회로에 빠져서 하등에 부질없는 고민을 일부러 사서하 고 있다. 소설은 사소한 감상(感傷)을 뿌리치고 치열한 자 기대면에서 우러나온 이성적 글쓰기 자세를 우선적으로 요구하는데 이 쉬운 기본기를 안 지키는 작품이 혼함은 팔목할만한 현상이다. 그렇긴해도 이 작품에는 미술작품 의 태동과 그것의 재생에 따르는 여러 고충과 진지한 소 재 천착력, 곧 디테일을 돋을새기려는 고심의 흔적이 위 낙 뚜렷이 드러나 있다. 그런 노력은 보상을 받아야 할 터 이므로 신인상 당선작으로 택일했다.

〈한 남자가 겨울밤을 걷다〉는 화자 ‘나’가 어느 눈 내 리는 한겨울의 서울 중심부를 터벅터벅 걸어 관통하면서 영화감독으로 실패한 삶을 회상하는 이야기이다. 정확한 문장에 산뜻한 비유를 끌어오는 묘사력도 수준급이라 할 만하다. 영화에 대한 자잘한 토막상식의 나열에는 사실판 단이 배어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가치판단은 한 올도 비 치지 않아서 작품에 맥이 떨어져 있기도 하다. 또한 이 작 품에도 역시나 소설을 쓰면서 공모전에 투고만 하며 세월

을 죽여내는 아내, 아이 없이 17년을 살아온 내력, 소리
 끈으로 실패한 아버지의 한 많은 삶, 영화감독 수업기 때 치
 룬 혹독한 고생담 같은 술한 이야깃거리들이 속속 이어지
 지만 그것들이 하나같이 어디서 자주 듣던 그런 에피소드
 차원에 머물러 있다. ‘자기 것’을 생동감있게 풀어내려는
 소신의 부족은 결국 ‘남의 것’을 참조하는 고질의 진부성
 과 상투성을 불러오게 마련이다. 소설은 어차피 조작력을
 과시하는 언어제도에 불과하지만, 그 조작미 부각에 작가
 자신의 ‘육성’이 없다면 선행의 여러 잡문에서 따온 짜깁
 기 수준에 머물고 말 것은 너무나 뻔하다. 부연하건대 이
 작품에 드리운 ‘삶에 대한 진지성’ 만큼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나 흡사 한편의 밋밋한 로드 무비를 보고 난 듯한, 플
 롯조차 무시한 그 단조로운 구색이 작의를 살리기에,도,
 캐릭터를 만들어내기에,도 역불급으로 비침은 어쩔 수 없
 었다. 또한 영화 만들기에 따르는 여러 독창적 시각에,
 한국영화의 제작상에 드리운 고질의 부실한 제도적 장벽
 에, 여러 뛰어난 재능의 사장화 따위에 태무심한 흔적도
 두드러져 있다. 아마도 선자의 이 작품에 대한 욕심이 지
 나쳐서 무리한 주문을 내놓고 있는지 모른다. 흥행에만
 눈이 멀어 좋은 영화 만들기에 무능한 한국영화계의 병폐
 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한둘일까.

〈자유시간〉은 한 중년여성의 안온한 일상에 불쑥 나타

난 이복동생과의 상봉기이자 파탄 모면기이다. 한때 아버지의 시앗이었으나 이제는 죽음과 맞닥뜨린 노파의 화해 요청, 고물상을 꾸러가면서 감쪽같이 이중생활을 영위했던 남편의 위선에 대한 어미의 분노, 유산 시비에 휘말릴까봐 잔뜩 긴장하는 화자 ‘나’의 이기주의적 본색, 이복동생과 나눈 아릿한 회상담 같은 이야깃거리들도 분명히 진부해빠진 예의 그 ‘상투성’에 갇힌다. 그러나 이 작품에는 적절한 비유 능력, 찬찬한 설명력에 따르는 취사분별, 세상을 중립적으로 바라보려는 시각 등이 그 평범한 소재감각을 상쇄하고도 남는다. 더욱이나 뜨개질 같은 범상하기 짝이 없는 소도구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디테일 감각도 여간 구덥지 않다. 다만 역시 소도구로 활용한 초콜릿 바 ‘자유시간’의 돌출이 옥에 티인데, 그것이 특정상품이라서가 아니라 ‘시대착오’로 다가와서이다.(하도 의심쩍어서 선자가 인터넷에 조회해봤더니 초콜릿 바 ‘자유시간’의 첫 출시 연도는 1991년도였다.) 보기에 따라서는 결정적 흠일 수도 있겠으나 ‘자유시간’에 따르는 의미의 함의를 새길 여지도 있을 듯해서 감점 요인으로만 처리하기로 했다. 평범한 일상중에서 비범하고 더러 낯설게 다가오기도 하는 그 이야깃거리들을 버려서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정직한 자세도 돋보였고, 이제부터 훨씬 진지한 ‘소설 습작’에 전심전력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

는 바람도 있어서 본상 당선작으로 과감히 밀었다.

기성문인이든 신인이든 ‘우리 소설’은 이상하게도 ‘큰’ 이야기를 억지로라도 만들어내려는 강박증이 심하다. 그러니 주제의식의 ‘강제’로부터 자유롭지도 못하고, 남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하다가 막상 ‘제 목소리’를 터뜨리는데는 여간 등한하지 않다. 그런 저런 기초적인 소설 공부에 반드시 따라야 할 세상살이와 인생살이에의 주목을 ‘남의 시각’으로 하겠다면 서로가 민망해지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선행의 여러 작품들이야 부지런히 읽어야 될 테지만 비판적인 눈으로 ‘죽어도 나는 이렇게는 안 쓰고 말란다’는 오기도 없이 무슨 ‘창의력’이 나오겠는가. 독창성의 반대말인 진부성 내지는 상투성이란 잣대 하나만을 갖다대더라도, 기성문인의 작품이든 신인의 작품이든 그 우열은 명명백백한 것이었다.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한 신천지를 다문 그 입구라도 보여주지 못하는 작가에게서 한국소설의 발전에 어떤 이바지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일 듯싶다. 당선자 두 분의 수상을 축하하며 배전의 노력과 쉬임없는 정진을 거듭하여 훌륭한 작품을 많이 쓰기를 바랄 따름이다.

제6회 목포문학상 희곡부문 예심평

예심위원 김창일 (극작가·연출가)

희곡은 문학이지만 어디 까지도 무대 위에 공연되기를 바라는 전제하에 쓰여 지는 문학이란 점을 강조하고 싶다. 그러기에 활자로 보는 작품과 작품 공연시의 두 입장을 감안하여 심사를 하였다.

기성작가의 작품 14편과 신인작가 작품 23편을 심사하면서 기성작가와 신인 작가의 수준이 별 크지 않다는 점과 특별한 소재의 작품은 몇 작품에 불과 했고 구성력과 의미가 함축된 대사로 문학성을 높인 작품 몇 편을 선정하였다.

많은 작품들이 인물 성격이 확실치 못해 작품 완성도가 미비해지거나 군더더기 대사의 나열로 작품의 질을 떨어트리는 경우도 많았다.

심사를 하면서 희곡은 대사로 이루는 문학이어서 소설처럼 모두 설명해 낼 수가 없기에 희곡 작가라면 전문적이지 않더라도 조명과 음향을 적절히 구성 하므로 그 상황 분위기를 표현 할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다.

모든 작품이 모방됨 없이 신선함을 주는 작품들 이었다고 평하고 싶다.

제6회 목포문학상 희곡부문 본심평

본심위원 윤조병 (극작가·연출가)

〈본 상〉

영원한 생명력 성(sex)을 시와 철학 연극으로 신선하게 도전했다.

본심에 오른 작품은 신인부문이 7편, 기성부문이 6편이다. 13편에서 당선작 후보로 3편을 선택했다. 모두 기성문인의 작품으로 인물, 상황, 대사, 소재 활용, 주제가 독특하다.

〈사과(邪果)나무 꽃346〉은 사과농장 파수꾼 노인, 일꾼 청년, 몸을 파는 여인 즉 꽃뱀이 등장한다. 한여름 뜨거운 땀별에서 매미울음이 치열하게 들려와 상징이 강한 사과밭에 세 인물을 던져놓는다. 여자의 빠꾸기소리, 사과를 먹어대는 모습, 인물의 온몸을 통해 새콤달콤을 넘어서는 맛, 여인과 청년의 성희는 또 어떤가! 그 광경을 지켜보는 노인의 모습은 안구가 튀어나오는 형상이다. 청년과 노인은 그들의 역할에 혼신을 다해 시적 이미지 혹은 철학적 사유에 이르게 한다. 물론 시기질투와 동정협조, 정과 눈물이 적당하게 스며서 맛을 더 낸다. 여인의 폭넓은 치마폭이 상징하는 세상, 노인과 청년이 그 치마

로 들어가서 자신들의 삶을 살고, 행위를 한다. 사과를 먹고, 씨를 뱉고, 씨앗이 사과나무로 자라 사과를 주렁주렁 단다. 전반부의 확신이 후반으로 가면서 조금씩 산만해지기도 하지만, 그들은 아름답고 혹독한 성희에서 상대의 눈에서 천둥과 번개를 보고, 욕망과 맑음을 본다.

마지막에 반전을 노렸다. 노인이 무덤에서 나와 꿈을 꾸고, 청년과 여인은 노인의 무덤가 나무 아래서 잠을 자면서 꿈을 꾸다. 노인과 젊은이, 남성과 여성이 각자 꿈의 화학적 반응이 이 작품이다. 반전은 반전인데, 사과를 사과(邪果)로 한 것처럼 상식의 끈을 잡은 듯해서 재고해야 하지 않을까. 훌륭한 작품이다.

〈꼬레아(korea) 드림377〉은 베트남 청년 꿈과 절반이 모자라는 한국 처녀 심지의 만남에서 결혼에 이르는 어려운 환경과 과정을 짚어가는 구성이다. 겉보기로는 계략과 사기라는 거짓의 옷을 입고 있다. 그것을 다급하게 벗으려 하지 않는 구성이다. 다문화가 인간의 참과 신뢰성으로 이뤄진다는 것을 과거와 미래를 현실화시키는 등직한 구조로 해결한다. 강원도의 인성과 언어 특성을 살려서 인물과 상황을 진전시키는 묘미에 베트남 청년 꿈조차 그 인성을 받아들이고, 언어를 쓰는 진전을 이뤄낸다.

에필로그에서 보여주는 미래예측은 충격이지만, 진전 상황이 안이해서 충격을 완화시키는 티가 되는데, 좋은

작품이다. 쟁기 등 농기구의 정서, 아이들의 장난감, 고무줄놀이 등 이미 위치가 바뀐 토속의 활용, 고추 말리기 등 농촌의 모습이 극구성과 더불어 한몫을 한다. 모자란 딸의 결혼을 위하고, 자금을 마련해서 현지로 가고, 고향 가족들은 결과를 기다리는 과정들을 아주 느릿느릿 느긋하게 정성으로 그려서 정이 간다.

〈극작가 박영호455〉는 친일작가, 월북 작가라는 평가 때문에 연극현장에서 소외된 극작가 박영호를 동시대의 연극사조와 예술가 임선규 홍해성 등등을 등장시켜 다큐 형식으로 구성한 희곡이다. 인물들은 신극형식에 대한 반성, 일본식 표현의 신극에 대한 갈등, 신파극에 대한 고민을 한다. 인물들은 우리 연극이니 백성의 정서, 풍속, 사물의 성격 그리고 정조에 이르기까지 우리 정신을 따라야 한다고 한다. 인물들은 신극의 리얼리즘과 신파극의 대중성을 조화시켜 우리 연극의 정체성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다. 예술에 대한 창의를 내보인 것이다. 무엇보다도 친일과 월북의 문제 특히 지금으로는 동족의 문제보다 친일의 문제 즉 작가로서 시대의 국민주권의 문제를 본영으로 다루었다. 역사는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이다. 역사는 지워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로 가는 비상구가 필요하다. 이 비상구는 해방직후부터 만들어져서, 필요한 여과를 거쳐 정상 통로로 만들어야 옳다.

그러나 정치 경제 군부 사회인 등의 친일의 힘 때문에 불가능하였으며 지금도 그 여력이 나라를 좌지우지 누르고 있다.

작가가 그린 주인공 박영호는 처절한 반성으로 그것을 알고 있는 인물이다. 그 인물을 사랑, 당시의 연극, 대중가요와 동요, 당시의 의미 있는 예술인을 끌어내서 재미와 대중성 그리고 일차원 정서와 고차원 모색을 동원해서 박영호를 조사하고 변호한다. 작가는 판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원칙을 지키면서 박영호의 방황, 아픔, 과오 그리고 반성을 탐구했다.

이 3작품은 어느 것을 선택하더라도 당선작으로 가치가 있다. 많은 고심을 해야 했다. 생물의 영원한 생명력이 되는 성 문제를 젊은 남녀와 노인을 등장시켜 정면으로 다루면서 희곡 요소의 신선도와 시적 철학적 묘사에 성공한 <사과나무꽃>을 당선작으로 결정했다.

〈신 인 상〉

〈어디로 모실까요?〉는 택시 기사 봉달이와 여러 승객과의 관계를 구성했다. 코미디로 재미가 있어 대중성을 가졌다. 승객 사정에 본의 아니게 깊이 개입하는 봉달의 성격, 여러 승객이 처한 상황, 짧은 대사, 빠른 전개 등도 좋다. 흐름 혹은 톤이 기존의 상식에 가깝다.

〈살고 지고〉는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다툼이 재미있다. 서로 감정을 폭발할듯한데 흐름을 유지하는 두 사람이 인상적이다. 극적행동이 미흡해서 지루할듯한데 아슬아슬하게 유지해가는 긴장이 숨씨 즉 맛을 느끼게 한다. 암전이 엄청난 반전을 일으키는데, 전개가 갑작스럽다.

위 2 작품 역시 장단점을 비교하면 비슷한데, 고부의 긴장 유지와 반전이 엉뚱하지만 아이디어를 평가해서 〈살고 지고〉를 선정했다.

선에 들지 못한 응모자 분에게 미래의 가능성 격려를 드리면서, 수상자에게 축하를 드린다.

제6회 목포문학상 수필부문 예심평

예심위원 임인택 (수필가)

유 헌 (수필가)

〈신 인 상〉

예년에 비해 응모자가 늘어났다. 응모작들을 읽다보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보내온 걸로 추정되는 내용의 작품들도 자주 눈에 띄어 6회째를 맞는 목포문학상이 확실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 작품의 3분의 1정도는 당장 문예지에 실어도 손색없을 정도로 수준도 높았다. 주제도 다양해졌다.

그러나 아직도 신세한탄이나 여행담, 지나간 시절의 가족 이야기 등을 평면적으로 나열한 작품들이 많았으며 심지어 수기手記공모 응모작으로 착각할 정도의 글들도 있어 아쉬움으로 남는다. 또 띄어쓰기나, 단어의 중복, 정해진 글의 분량을 크게 벗어났거나 부족한 경우도 더러 있어 기본을 지키려는 자세가 요구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물을 세밀하게 관찰하고 특별하게 읽어내 훌륭한 작품으로 풀어낸 글들도 여럿 눈에 띄었다. 특히 장르의 특성과 장점을 제대로 살려 문장이 물흐르듯 자연스럽고 잔잔한 감동을 안겨주는 수작秀作들이 글재주를 겨루고 있어 수필의 건강한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었다.

문학상의 신인상에 도전하는 문청文靑이라면 주제나 글감 선택에서부터 더 고민을 해야 할 것이다. 참신성과 독창성은 기본이고 본인만의 철학이 깃든 재미와 감동을 주는 작품을 창작해야 할 것이다.

〈본 상〉

작가의 진솔한 삶이 묻어난 아름다운 언어로 웃을 입힌 좋은 작품들, 펍 감동적이었다.

130여편의 응모작 중에서 15편, 10편, 5편 이렇게 뽑는 다기 보다는 떨쳐내는데 몹시 힘이 들었다. 어떤 작품에 행운이 돌아갈지 모르지만 예심을 통과한 모든 분께 경의를 표한다.

글을 읽으면 글쓴이의 면모가 보인다. 좋은 작품을 읽다보면 금방 달려가 만나고 싶어진다.

그러나 문학성이 결여된 신변잡기에 대한 얘기나, 좋은 내용임에도 맞춤법이나 규격에 맞질 않은 작품이 많아 아쉬움을 남겼다. 적어도 문학상에 응모한 작품이라면 최소한의 예의와 꼼꼼함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심위원 오창익 (수필가)

〈본 상〉

예심을 거쳐 종심에 온 작품은 모두 12편이었다. 이 중 최종심에 오른 작품은 191 님의 『익어간다는 것』 269 님의 『바다의 편지』 그리고 288 님의 『작은 새 오카리나』 등 3편 이었다. 이들 3편 모두는 기성 문인의 역작들이라 본격수필이 요구하는 구성적 요소나 기능적 요건들을 고루 갖춘 수준작들이었다. 문장의 개성화나 제재의 자기화도 돋보여 모두 당선권에 진입한 우수작들이었다. 하지만, ‘당선작은 각 1편’ 이라는 문학상 규정이 전제되었기에 부득이 ‘공감과 미적(美的) 감동’ 이라는 문예화의 잣대로 가름 할 수밖에 없었다. 하여, 191 님의 『익어간다는 것』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택했다.

이 작품은 차(茶)를 제재로 하여 ‘차를 경영하는 일이 곧 인생경영이다’ 란 의식을 주제화 한 창작수필이다. 관조(觀照)나 의미부여의 수법(手法) 또한 매우 돋보였다. 특히나 말미(末尾)에서 보인 “목마르면 차 한 잔, 졸리면 잠 한숨, 그것으로 모자람이 없으련만...”이라고, 주제의식을 압축, 상상 처리한 문장이 백미였다.

〈신 인 상〉

예심을 거쳐 종심에 넘어온 신인 작품은 모두 14편이었다. 이 중에서 최종심에 오른 작품은 285 님의 『너와집』과 102 님의 『삼대(三代)의 공덕』 등 2편이었다. 이들 작품도 제재에의 동화나 관조가 돋보였을 뿐만 아니라 의식의 형상화 작업도 매우 정연(整然)하여 2편 모두 당선권에 들고도 남을만한 수작들이었다.

하지만, 본상처럼 ‘1편의 당선작’이라는 규정에 따라 부득이 ‘공감과 감동’이라는 문예회의 잣대로 가름할 수밖에 없었다. 하여, 미적(美的) 감동이 보다 진한 285 님의 『너와집』을 최종 당선작으로 선택했다.

『너와집』은 ‘자연 친화(親和)와 자족(自足), 그리고 자적(自適)’이라는 의식을 주제로 굳힌 창작수필이다. 특히 작품말미에서 보인 “도시에서는 자족(自足)을 무능이라 하지만, 시골에서는 자적(自適)이다. 머지않아 스스로 그런 자연으로 회귀하기를 꿈꾸며 다시 유배지로 돌아 갈 때 나도 모르게 아라리 한 소절을 읊는다.”라고, 운치있게 주제의식을 갈무리한 문장이 돋보였다.

제6회 목포문학상 동시부문 예심평

예심위원 양희성 (아동문학가)

제6회 목포문학상에 아동문학 동시부분이 신설된 점에 대해 동시를 쓰는 아동문학가로서 먼저 목포문학상 운영 위원회에 감사를 드린다.

특히 그동안 동시를 써온 문학 지망생들에게 발표의 기회가 많지 않는 현실에서 더없이 고마운 단비와도 같은 것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를 반영하듯 올해 처음 시도한 이번 공모에 기성 신인 포함하여 75명 375편의 동시가 접수된 점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번 심사를 통해 느낀 점은 기성 신인을 불문하고 어느 문학상에 뒤떨어지지 않은 좋은 작품들이 많이 응모되었다고 본다.

이는 전국의 작가들이 응모한 이유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처음 시도한 것인 만큼 신중을 기해 쓴 흔적이 역력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번 공모전에 참신하고 진솔한 작품이 많이 눈에 띄어 심사하는데 즐거움을 선사해줬다고 자평한다.

작품 중에 ‘빚살무늬토기’를 비롯하여 ‘봄바람’ ‘어떻게 될까’ ‘가을 여행’ ‘즐거운 꽃밭’ ‘이순신 장군’ ‘아기 발가락’ ‘컴퓨터는 억울해’ ‘이불’ ‘나도 임금님’ ‘가을 산’ ‘뒤편에 있었어’ ‘들릴거야’ ‘필통’ ‘감자 캐는 날’ ‘누가 더 사랑할까’ ‘낙타’ ‘햇살 국수’ ‘수평선’ 등은 어느 작품을 선택해도 무리가 없는 좋은 작품들이었다.

다만 동시는 쉽게 쓰는 것이라는 경향인지 모르지만 동시를 너무 가볍게 다룬 작품들이 가끔 눈에 들어왔다. 강조하거니와 동시라고 무작정 쉽게 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동시 역시 깊이 생각하고 어렵게 써야 한다’는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더욱이 몇 분은 맞춤법도 틀리게 써서 보낸 공모자도 있었다. 진정한 작가라면 어느 정도 기본은 갖춘 다음에 응모하였으면 한다. 하지만 이번 공모전에 동시를 사랑하는 작가들이 좋은 작품들을 많이 출품하여 심사 내내 행복한 고민을 하게 해 준데 대해 감사를 드린다.

예심을 담당한 나로서는 최종 결정을 할 수 없어 아쉽지만, 본심에서 명실상부한 목포문학상을 빛낼 좋은 작품을 선택하여 줄 것으로 기대한다.

제6회 목포문학상 동시부문 본심평

본심위원 김철수 (아동문학가)

동심은 천심(天心)입니다.

동시란 어린이의 생각과 느낌을 시의 형식을 빌어서 써 낸 자유시를 말합니다.

동요와 동시는 넓은 의미로 시의 범주에 속하지만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시 분야의 동요에는 전래동요와 창작동요가 있고 전래동요에는 다시 구전동요와 정착동요가 있습니다.

동시에는 자유시 형과 산문시 형 동시가 있으나 동요와 동시를 엄격하게 구분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동요와 동시가 어떻게 다르나하면 동요라는 것은 곡조를 부쳐 부르는 노래이며 동시란 어린이의 생각과 느낌을 시의 형식을 빌어 자유롭게 쓴 것입니다. 동요와 동시는 다같이 노래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동요가 그 아름다움을 표출하고 일정한 양식아래 노래 부르는 것을 전제로 한 음악적·시적 미를 지향하는데 반하여 동시는 그 아름다움을 안으로 모아들여 자유분방하게 표현하면서 작가의 내재적 리듬을 중요시하여 회화적인 미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동요에서는 노래한 것 이라면 동시에서는 속삭인 것이고 동요에서는 가락을 고르게 뽑아 노래하기를 주로 한 것 이라면 동시에서는 그윽한 감정의 물결을 속삭이듯 나타낸 것입니다. 또한 동요에서는 느낌이나 생각이 밖으로 나타나며 박자가 아름답지만 동요에서는 느낌이나 생각이 안에 깊이 담겨있으며 생각의 흐름이 깊습니다.

『제6회 목포문학상』 동시부문은 예심을 거쳐 본선 심사에 넘겨온 작품은 기성문인의 작품 〈가을〉외 8인의 작품 40편과 신인작품 〈세상에서 제일〉등 11인의 작품 55편 등 총 95편 등이었다. 대체적으로 작품의 수준이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우수했지만 본상 부문 당선작 1편과 신인부문 당선작 1편만 선정해야하는 규정 때문에 아쉬움을 갖고 최종적으로 본상부문에서는 〈가을〉외 5편과 신인부문에서는 〈세상에서 제일〉외 4편을 각각 당선작으로 뽑았다.

본상 당선작으로 뽑은〈가을〉은 서정 동시로 시의 가장 본질적 성격을 가진 가장 일반적인 동시로 인간이 지닌 가장 따뜻하고 아름다운 마음 그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만물을 보고 노래하는 시로 아동들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작품으로 돋보였다.

시어도 간결하면서도 이미지를 선명하게 나타내 문학

성이 우수했다. 아동들이 향유하려는 생활성이란 첫째, 밝고 아름다운 삶과 둘째, 즐겁고 흥미로운 삶, 그리고 셋째, 미래 지향적인 삶과 넷째, 어려움 속에서 반드시 욕구를 성취하는 삶. 다섯째, 우의와 협동, 관용, 평화를 사랑하는 삶이다.

신인부문의 당선작으로 뽑은 〈세상에서 제일〉 역시 형태상으로는 자유시에 속하고 내용상으로는 서정시에 해당하는 시로서 시의 주제나 소재나 창작하는 형식 등에서 아무런 제약 없이 쓰여져 읽는 이에게도 부담감 없이 쉽게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두 당선작가에게 축하를 보내며 문학의 꽃인 아동문학을 더욱 발전시켜 이 땅의 동심들을 위해 더 좋은 작품창작에 몰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6회 목포문학상 문학평론부문 본심평

본심위원 김경수 (문학평론가 · 서강대 교수)

평론「송재학 시에 나타난 죽음 이미지 고찰」은 중견시인 송재학의 시집 『내간체를 얻다』를 대상으로, 송재학 시의 수사법과 그것이 의미하는바 세계관을 고찰하고 있다. 해석의 의미망은 죽음의 이미지인데, 이 글은 분석과정에서 시인이 죽음이라는 사건-대상을 어떤 이미지의 변용을 통해 형상화하고 조율하는가를 꼼꼼히, 그리고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죽음을 조율하는 시인의 세계관의 추이까지를 명료하게 분석하고 있다. 해당 주제와 관련된 인접한 분야의 에세이적 인식 또한 적절히 참조되었다.

분석의 대상이 된 시작품이 적절히 선정되었고, 선정된 작품을 통해 평자가 하고 있는 해석 또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 적절하다. 이 적정성은 평자가 운용하는 비평적 문장의 엄밀함에서 얻어진 것인데, 투고된 다른 작품들이 문학비평 용어에 대한 온당한 이해없이 마구 쓰이고 있는 것을 볼 때, 비평적 언어에 대한 확실한 지식에서 비평적 문장을 잘 운용한 하나의 예로서도 손색이 없다고 판단된다.

2장의 2절 마지막 단락과 3장의 마지막 단락은 체언이라고 생각되는데, 이는 빼거나 뒷단락에 이어 축약해도 상관이 없어 보인다. 한 가지 제안이 있다면 제목을, 본문에 부응하는 선에서 손보아 논문이 아니라는 것을 명료히 드러냈으면 한다.

참고로 다른 작품에 대한 심사평을 적는다.

「역설적 허무주의와 우로보로스적 아이러니」- 용어의 엄밀한 사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파상적 해석에 시인의 자전적 사실을 꿰어맞춘, 기계적인 글이다.

「생태환경 동시와 시각적 이미지의 형상화 양상」- 동시라는 한계가 있겠지만, 해석의 수준은 평이한 해설에 불과하다. 굳이 비평적 대상이 될 필요성이 부각되지 않고 있다.

「작은 것들의 존재와 존재 방식」- 대상작품의 의미를 몇 개의 원-텍스트와 비교를 통해 드러내고자 했으나, 그 결과는 오히려 대상작품의 왜소함과 시적 상투성이다.

「창작문예수필론」- 특정인의 작품을 두둔하는 자화자찬의 글로서 애초에 비평적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을 건강부회한 글이다. 문학사에 대한 이해도 편협하다. 평론이 아니다.



제6회 **목포문학상** 수상 작품집

수상 소감

• 본상

시	단편소설	희곡	수필	동시	문학평론
					
양진영 보이지1호	정순희 자유시간	황석연 사과나무꽃	조윤수 익어간다는 것	조영일 가을	이병철 송재학 시에 나타난 죽음이미지고찰

• 신인상

시	단편소설	희곡	수필	동시
				
나동하 스키드마크	이은미 복원	유수현 살고지고	김동수 너와집	박혜자 세상에서 제일

제6회 **문학당** 수상 작품집

• 수상 소감

| 본상 부문 |

시	양진영 〈보이저1호〉
단편소설	정순희 〈자유시간〉
희곡	황석연 〈사과나무꽃〉
수필	조윤수 〈익어간다는 것〉
동시	조영일 〈가을〉
문학평론	이병철 〈송재학 시에 나타난 죽음이미지고찰〉

양진영

이 상은 질타의 회초리다! 나태한 내 시심詩心을 일깨우는.

생각지 못한 당선 통보를 받고 한참 멍했다. 이 상을, 초심으로 돌아가라는 매서운 꾸짖음으로 알고 받겠다. 설익은 글에 낙점해 주신 김명인, 신덕룡 교수님, 이대흠 시인에게 감사드린다.

응모하고 나서 내 습작 시를 되돌아보면서 참, 한심하다고 느꼈다. 체험과 성찰은 없고 치기와 수다만 가득했다. 어느 시인의 말따라나 생명의 경이를 투시하지도, 다른 세계를 현현시키지도 못하는 시들. 아이들 참회록도 이보다 진솔하지 않을까, 하는 자괴감에 시달렸다.

어쩌면 나는 지금 당선될 필요가 없을지 모른다. 사유의 도약과 아름다운 아픔으로 차고 넘치는 먼 훗날 시인의 길로 들어서야 더 옹골진 시를 쓰지 않을까.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던 나에게 목포문화관이 덜컥 문을 열어 준 셈이다.

고백하건대 나는 시를 잘 모른다. 강의실, 동호회, 모임

에서 배우지 못한 탓이다. 신춘문예에 당선된 시를 보면 열에서 일곱이 무엇을 읊는지 모르겠다. 혹자는 쉬운,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시를 써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시 세계를 들여다보지 못한, 나 같은 청맹과니의 푸념이 아닐까. 그렇다면 맨손으로 때 묻은 바닥을 닦고 또 닦아야겠다. 판자의 거스러미가 내 살을 파고들고 목재가 본디 결을 드러낼 때까지.

여러 차례 상을 타면서도 아직 고맙다는 말을 못 전한 노모와 기다림의 미덕을 아는 아내에게 감사의 입맞춤을 해야겠다. 마침내, 구름에 올라탔으니까. ㅎㅎ.

< 단편소설부문 본상 >

정순희

본상 수상 소식을 듣고서 베란다로 나가 담쟁이 화분에 물을 주었습니다. 그건 내가 마음을 다스릴 때 하는 행동입니다. 한동안 천천히 물을 뿌리고 있었어요. 담쟁이는 화분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지지대의 기둥을 꼭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담쟁이가 마치 내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소설의 ‘마음’을 얻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 바람이 너무 간절해서 어리석게도 소설의 마음을 억지로, 한순간에 잡으려다가 수시로 외면당했습니다. 담쟁이는 순식간에 나무 끝까지 오르지 않습니다. 방향을 잡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확인하면서 한발 한발 올라갑니다. 함부로 들뜨지 않고 무례하지도 않습니다. 길이 정해지면 체념을 거부하고 희망이라는 촛불을 켜고 올라갑니다. 나는 허둥대다가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을 헤매며 글을 쓴다는 것은 대책 없는 어리석음입니다. 그 깨달음은 담쟁이를 통하여 내 몸으로 올라왔습니다.

심사위원님이 제 손에 귀한 보석을 쥐어 주셨습니다. 문학 앞에서 항상 겸손하고, 더욱더 성실히 매진하라는

뜻으로 여기겠습니다. 세상에 내놓기가 부끄러운 소설을
눈여겨봐 주시고, 수상의 선물까지 안겨준 심사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도
록 제 손을 단단히 잡아준 김설원 선생님께 뜨거운 마음
을 전합니다. 책에서 눈을 떼지 않고, 끝까지 펜을 쥐고
있으면 소설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는 당신의 말은 옳았
습니다. 강의 시간에 들려준,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던 말
들이 이제야 귀에 들어옵니다. 마지막으로 한결같이 나를
지켜주는 남편과 사랑하는 아들 용순이, 며느리, 딸, 사
위, 그리고 언제나 내 곁에서 힘을 보태준 미더운 벗 현주
와 이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 희곡부문 본상 >

황석연

연극은 언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늘 불편하고 가난하지만, 희곡을 쓰는 삶이 행복하다면 그 가난과 불편을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나와의 끊임없는 自問自答을 통해 삶의 다양한 얼굴로 표현되는 희곡을 쓰는 행위가 저에겐 삶에 대한 質問입니다.

붓다의 최후의 유언인 ‘방일하지 마라!’ 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소중한 지금 이 순간을 注視하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수상의 영광을 허락해 주신 심사위원님과 목포문학상에 감사드립니다.

당선의 기쁨을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나의 가족들과 연극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 수필부문 본상 >

조윤수

뜻밖의 소식이 어리둥절하여, 이어지는 다음 말이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상 소식과 함께 수상작을 메일로 보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응모한 사실도 잊고 있었던 터라, 어떤 작품이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내 작품이 맞나 하고요. 우선, 찻상 앞에서 차 한 잔을 마련하며 들뜬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이 가을, 아침저녁으로 제법 삼상한 바람이 이니 웬지 쓸쓸해졌습니다. 뜨거운 열정이 사라진 가을에는, 마치 사랑을 잃은 사람처럼 그 특유의 ‘사라짐’에 대한 명상에 젖게 됩니다. 인적이 드문 가을 숲에는 물봉선화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지요. 어떤 일인지 물봉선화들은 가을을 울고 있는 듯, 눈물방울이 모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외락 끌어안고 싶은 꽃들이었어요. 쓸쓸하고 허전한 이 계절에 속울음을 울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러나 그 뜨겁던 열기가 숲에서는 가을꽃으로 피어나고, 들녘에서는 열매로 익고 있었습니다. 지난가을에 사라졌던 것들이 겨울을 딛고 환생하여, 올봄부터 지금껏 익어온 결실이었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린 농부들의 노고가, 충분한 보답이 되는 가을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의 문장의 발에는 농부들과 같은, 그만한 노력이 있었는가 싶습니다. 부끄러운 저의 글발에는 어떤 열매들이 익어가고 있었을까요? 내놓을만한 열매 같은 것이 있을지 걱정이 이네요. 뒤늦은 등단과 모자란 글 솜씨를 알기에, 늘 공부의 끈은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지역의 여러 문학상 중,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고 인연이 없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공모전에 응모해볼 용기조차 내지 못했지요. 그러나 이 계절에! 나이 먹어가는 쓸쓸한 글발에도 수상 소식이 날아들다니요. 오! 이런 감사한 일이! 이 가을을 잘 건너도록 거문고 같은 바람 줄이, 실한 열매 하나를 날라다 주었습니다. ‘사라짐’의 쓸쓸함이, 선물 받은 열매 하나로 생기를 되찾습니다. 부족한 글을 뽑아주신 심사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탈대로 다 타도록 끝까지 문장의 불씨를 잘 보존하겠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그저 늙어만 가지 않고 잘 익어가는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연습니다. 항상 힘이 되어준 가족에게 이 영광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울러 행촌수필문학회 지도교수님과 문우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가을입니다! 드넓은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춤추는 코스모스와 더불어 모든 생명에게 찬미를 보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동시부문 본상 >

조영일

나는 한 마리 마음새

우리의 삶이 복잡하듯 나의 문학도 그러했다. 소설, 동시, 동화, 시조, 시, 산문과 운문의 세계를 오가며 문학의 갈등을(공부)여러 번 겪었다.

그럴 때마다 나는 고향의 소년이었다.

그 소년의 몸은 바뀌어도 눈과 마음은 고향 사람들과 파란 하늘, 강, 사철 변하는 산과 내, 들, 바다를 날아다니는 마음새이다.

뽑아주신 심사위원 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습니다.

한국문학 속의 목포문학은 역사와 전통의 자리매김이 유달산과 함께 든든하게 영원하길 바랍니다.

생전에 나의 동시집 <꽃구슬>에 머리말을 써 주시며 내게 부탁한 말씀을 되새김하며 당선소감에 같이 하고 싶습니다.

시인의 목소리 -박화목-

우선, 그는 그의 시작품 속에 자기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그는 자연 사물의 신비, 곧 생명의 약동을 동시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속삭이려 하고 있다. 이제는 자꾸만 사

라져가는 개구리소리를 들려주고 싶어 하고 꽃잎 속에 감추어져 있는 아침 이슬의 영롱한 가치를 어린이 마음 밭에 심어주고 싶어 한다.

시인의 목소리..... 이는 시인의 괴로움이면서도 영광인 것이기에, 조영일 시인은 자신의 목소리에 더 한층 역사의식의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란다. (1986년 11월 11일)

이병철

시는 대상과 존재, 이 세계의 심연을 탐사하는 여행이다. 나는 시를 쓰는 사람이다. 심연을 향해 떠나는 내 여행가방 속에는 언제나 이미지와 해석, 투사 그리고 세계에 대한 감동과 대상과의 교감으로 반죽한 몇 덩어리의 빵이 있다. 그런데 이처럼 야심차게 꾸린 짐은 늘 심연에 도달하기도 전에, 아름다움에 닿기도 전에 소진되어 버리고 만다. 사실은 초라한 괴나리봇짐이나 마찬가지인 것이다. 그래서 쓸쓸히 되돌아오는 일이 많다. 길 잃고 몸을 웅크린 채 추위와 굶주림을 견디는 날이 많다. 다른 사람들의 가방이 궁금해졌다. 뛰어난 시인들의 가방 속엔 대체 무엇이 들었기에 지치지도 않고 대상의 본질과 세계의 심연, 낯선 아름다움에 늘 도달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어졌다.

그저 시를 잘 쓰고 싶어서, 다른 시인들의 가방을 훑쳐보는 심정으로 쓰기 시작한 평론이다. 시가 심연으로의 여행이라면, 평론은 그 여행을 추적하는 작업이다. 가방을 훑쳐보는 것으로 시작해서, 길에 찍힌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그가 묵었던 방의 불빛과 만나고, 또 그가 두고 간 지도의 동그라미 쳐진 장소를 찾아가면 그가 사랑했던

이름들, 그의 지문을 나이트로 삼킨 나무들을 만난다. 한편으로는 고된 노동이고 또 한편으로는 즐거운 유희다. 이 고통스러운 유희, 즐거운 노동이 내 가방에 넉넉한 식량과 정확한 지도, 뒤통이 닳지 않는 신발을 넣어줄 것을 믿는다. 그때, 이 세계의 극점과 극점을 횡단하며, 아무도 닿지 못한 심연의 입국 도장을 내 시에다 찍어올 것이다.

우선 가방을 훑쳐볼 수 있게 해주신 송재학 시인에게 감사드린다. 내가 만약 평론을 쓴다면 그 첫 글은 송재학論이 될 거라고 늘 생각해왔다. 내 졸고가 동경하는 시인에게 누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목포시와 목포문학상 운영위원회, 목포문학관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 전설적인 문인들의 혼과 난영의 음성이 해안의 파도 끝마다 핏방울로 맺힌 목포가 주는 상을 받는다. 감격스러운 일이다. 햇빛은 글에 옷을 입혀주시고 따뜻한 눈빛 베풀어주신 김경수 선생님께 절을 올린다. 열심히 정진해서 눈 밝은 시인, 성실한 연구자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 지금껏 지도해주신 명지전문대와 서울과기대, 중앙대 대학원, 한양대 대학원 선생님들께도 바닷바람처럼 상쾌한 소식을 감사한 마음과 함께 전해드린다.

제6회 **박혜자문학상** 수상 작품집

• 수상 소감

| 신인상 부문 |

시	나동하 <스키드마크>
단편소설	이은미 <복원>
희곡	유수현 <살고지고>
수필	김동수 <너와집>
동시	박혜자 <세상에서 제일>

< 시부문 신인상 >

나동하

차를 타고 가다보면 갈가리 찢겨 길가에 나뒹구는 타이어
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한때는 뜨거운 속도였던 녀석들
작은 구덩이에도 심하게 털썩거렸던,
과속방지턱 앞에선 죄인처럼 한없이 고개를 숙여야 했던,
이제 한줄기 바람에도 심하게 떨리는,
부지런히 삼킨 풍경들 모두 어디가고
쫓정어로 남은,
아니, 갈가리 찢겨 쫓정어도 되지 못하는,
속도의 세계 밖으로 영원히 튕겨나간,
흑표범보다 날렵하게
바람과 햇살을 가르던 짧은 시절
기억에서 모두 사라진,
주인의 변덕을 고분고분 잘도 섬기던
한없이 착하고 순종적이고 겁 많던 녀석들

저는 스키드마크를 자유를 꿈꾸는 녀석들의
짧은 시도, 부질없는 반항이라고 보았습니다.
길가의 타이어 쪼가리들처럼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형제자매, 친구들에게 당선 소식을
날려 보내고

깜짝 놀란 그들의 진심어린 축하의 말을 모두 거둬들이고
나서야

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싶었습니다.

발신자 지역번호 061을 보고도 너무나 태연하게 전화를
받았던 무례를 저질렀다는 걸 뒤늦게 깨달은 거지요.

신인상 당선 소식을 전해준 그 여자 분이 얼마나 머쓱했
을까요?

‘이 사람, 왜 이렇게 무덤덤하게 전화를 받지? 수상 소식
이 하나도 기쁘지 않나봐.’

분명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적당히 호들갑을 떨어줘야 예의인데

아니, 최대한 호들갑을 떨어줘야 마땅한 도리인데

그래도 절대 무례가 아니었을 텐데

다시 전화를 걸어

정말 기쁘고 고맙다고, 이렇게 크고 귀한 상을 처음 받아
봐서

무덤덤하게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시를 쓰면서 그동안 너무나 많은 좌절과 절망에 길들여져
서,

항상 주눅이 들어 있어서, 실감이 나지 않아서 그랬다고

뒤늦게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저의 작품을 두고 분명 많이 망설였을 심사위원님들께 감
사드립니다.

아, 목포! 멀고도 낯선 이 도시를 앞으로 사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은미

오랜 친구를 떠나보내는 느낌이다.

소설 ‘복원’은 내 곁에 오래 머물러 있었다. 때로는 나를 위로해주고 때로는 나를 채근했다. 또 떠나고 싶어 하기도 했다. 이제 보내줄 때가 된 것이다.

리어왕은 광야에서 ‘인간은 별거벗은 동물’ 일뿐이라고 울부짖었다.

별거벗은 동물에 불과한 내가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순전히 욕망 때문이다. 숨 쉬고 밥 먹고 일하고 배설하는 그 틈입에서 난 글을 써야했다. 글은 내 오락이고 게임이고 내 욕망의 정점이니까, 나를 찾기 위한 끝없는 여정이니까.

지금 막 연락을 받고 터질 듯한 흥분을 가라앉힌 다음, 이곳 카페를 둘러본다.

젊은 사람 두 세 명이 앉아 담소를 나누고 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 그 이야기 속에서 보석을 발견하고 싶기 때문이다. 할 수만 있다면 정처 없이 떠돌며 이야기를 굶어모으고 싶다. 수집한 이야기들을 말풍선처럼 터트려 세상에 흩뿌리고 싶다. 진정한 이야기꾼이 되기 위해 난 이제 겨우 한 발을 내밀었다. 때론 눈이 멀고 때

론 귀가 안 들릴 지도 모른다. 그래도 나는 쓸 것이다.

‘별거벗은 동물’의 이야기를.

우리 가족, 나를 응원한 모든 지인들, 사랑합니다.

당신들이 불어넣어준 놀라운 숨결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시다.

< 희곡부문 신인상 >

유수현

2010년 봄 어느 날이었다. 친구들과 나누었던 소소한 대화를 인터넷카페 자유게시판에 써서 올렸다. 바로 댓글이 달렸다.

아무개 : 희곡을 한 번 써보시죠?

나 : 희곡이라고요? 무슨 가당치 않은 소리를 하십니까. 저는 희곡이 뭔지도 몰라요.

아무개 : 희곡이 절대로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님이 쓰신, 바로 이런 글이 희곡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가당치 않은 소리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명한 희곡작품들을 찾아서 읽고 있었고, 마냥 재미로만 보던 연극을 깊이 있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날 그분의 댓글이 내 인생의 향로를 바꿔놓을 줄 상상도 하지 못했었는데 말이다. 그러던 중에 한 소극장에서 운영하던 희곡창작교실에 참여하여 내가 쓴 희곡으로 공연을 올리게 되는 기회를 잡았다. 연출과 배우 모두 한 마음이 되어 공연을 준비했고 마침내 연극이 무대에 올랐다. 그것은 만화경이었다. 공연이 되는 동안 내 희곡은 배우들에 의해 생명을 얻어 숨을 쉬었고, 내가 상상하고 의도한대로 글자들이 하나하나 살아 움직이며 나

의 영혼을 흔들어 댔다. 내 생애 첫 공연, 그 벅찬 감동의 여운은 눈물이 되어 흘렀고, 지금 이시간까지도 그 감동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경험하지 않으면 몰랐을 그 감동이 나를 계속 쓰게 만들었고, 쓰지 않으면 사라질 것 같은 불안함에 쓰고, 또 쓴다.

많이 부족한 나의 작품을 선택해 주신 목포문학상과 심사위원들께 무한한 감사드린다. 이제야 겨우 희곡이라는 큰 산아래 첫 발을 내 딛는 나에게 큰 용기를 주셨고 더불어 채찍도 함께 주셨다. 한 발 한 발 산에 오르는 동안 지치지 않을 중요한 에너지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그때 내 글에 댓글을 달아주신 그 분께도 감사드린다. 그 분의 그 한 마디가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벅찬 감동 한 번 느껴보지 못한 채 무덤덤히 세상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므로.

<수필부문 신인상>

김동수

인생에 또 하나의 이력을 붙인다. 그럴수록 무거워지거나 앓을까, 벌써부터 걱정이다. 한때, 빈문서 파일을 열고 한 줄도 못쓴 채 하얀 화면을 바라보기만 한 적이 있다. 전 작품보다 나아야 하는데, 목포문학상의 위신을 생각하면 한동안 또 그러지 싶다.

문향의 고장 목포, 문학의 향기가 우러나는 이 가을에 한 번 오시라고 초대장을 보내주신 목포문화관과 여러 선생님께 감사드린다. 덕분에 행복한 시월을 맞는다.

< 동시부문 신인상 >

박혜자

올 해는 행복한 일이 참 많습니다.

낙선했지만 지방선거에 도전도 해 봤고 새 식구도 맞이
했고 동시로 상도 받았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했고 꿈꾸었던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
래서 저는 행복합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더니 정말 그런가 봅니다.

제가 한 밥을 드시고는 자신이 믿는 신께 저의 행복과
안녕을 빌어주시던 많은 분들. 그 분들의 기도 덕분에 돌
부리에 걸려도 크게 다치지 않았고 세찬 바람을 맞아도
기침 두어번으로 감기를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상
도 받았습니다.

상에 연연하지 말고 느긋하게 쓰고 싶은 글을 쓰라며
격려해준 남편과 성준, 성아, 백현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름다운 동시교실 박일 선생님! 함께 공부하는 선생
님들! 고맙습니다.

넘치는 기쁨을 선물해주신 목포문학상과 심사위원 선
생님께 머리 숙여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제6회 **목포문학상** 수상 작품 집

2014년 12월 15일 초판 1쇄

역 은 이 목포문학상 운영위원회
펴 낸 곳 향도인쇄

목포문학상 운영위원회
전남 목포시 남농로 95(용해동) 목포문학관
전화.061-270-8412, 팩스. 061-270-8413
www.munhak.mokpo.go.kr